

www.baekyangsa.kr

학술세미나 다시보는 만암

# 만암 대종사 생애와 사상

일 시\_ 불기2555(2011)년 10월 28일 1시

장 소\_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주 최\_ 고불총림 백양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 학술세미나, 다시 보는 만암

사회 : 보 연 (백양사 재무국장)

## 1부 개회식

☉ 삼귀의...4

☉ 반야심경...5

☉ 대화사

- 시 몽 (고불총림백양사 주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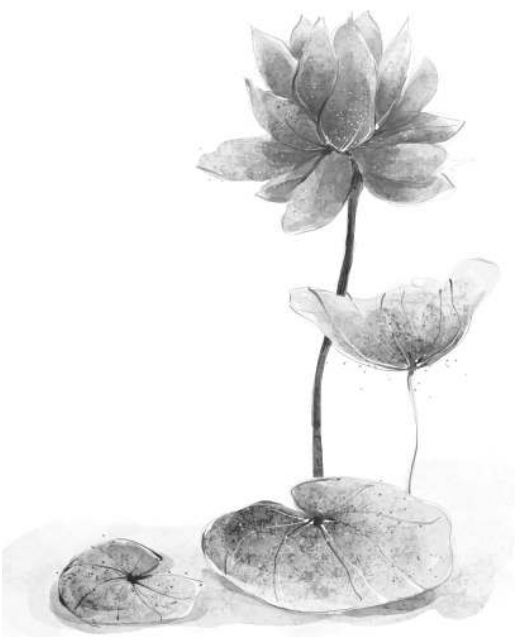
☉ 치 사

-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8

- 인 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9

☉ 찬탄사

- 불심 도문 (죽림정사 조실)...10





사회 : 미 산 (중앙승가대 교수)

## 2부 학술세미나

- ❁ 1주제 : 蔓庵 宗憲의 생애와 沙門像  
발제\_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17  
논평\_ 금 강 (조계종 교육위원)…38
- ❁ 2주제 : 白羊寺 강학의 계승과 曇庵의 전통 인식  
발제\_ 김용태 (불교문화연구원)…45  
논평\_ 이종수 (불교학술원)…56
- ❁ 3주제 :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  
발제\_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61  
논평\_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75
- ❁ 4주제 : 근대 불교계와 만암 송종헌의 교육 활동  
발제\_ 한동민 (수원박물관)…81  
논평\_ 황인규 (동국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98
- ❁ 5주제 : 내가 들은 만암스님  
발제\_ 암 도 (조계종 원로의원)…103



# 삼귀의

최영철 작곡  
김용호 편곡

장중하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늡고 죽음도 늡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해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결림이 없고 결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3번)



[대회사]

## 만암 대종사께서 고불총림의 깃발을 들다

시 몽 (고불총림백양사 주지)

만암 대종사께서는 한국불교사와 조계종단의 가장 큰 스승이십니다.

오늘 만암대종사 학술세미나를 위해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과 치열한 토론을 준비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7년 만암 대종사께서 고불총림의 깃발을 내건 것은 일제 식민지불교 체제하에서 발생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8.15해방 이후 종단 안팎에서 정화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만암 대종사께서는 종단 내부에서 자주적인 불교정화를 모색하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화를 펼쳐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불총림이 등장하기 이전 해방이후부터 이듬해 1946년 12월까지 불교계에서는 식민지불교의 극복, 교단정화를 둘러싸고 교단집행부와 재야혁신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단 정화의 노선과 방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는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만암 대종사께서는 마침내 스님이 거주하는 백양사에 고불총림(1947년 2월경)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고불총림은 백양사에 거주하는 상주대중만을 한하지 않고 전라도 일대의 각 사찰대중까지를 함께하는 총림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림의 명칭(호남불교 고불총림)에서부터 금방 드러나고 있듯이 고불총림 개요, 고불총림 결성 성명문, 호남 고불회 취지서, 고불총림의 강령, 고불총림의 청구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식민지불교의 청산을 전제한 정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내려는 대종사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에까지 확산시키면서 대종사께서 구현하고자 했던 정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만암 대종사께서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을 전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불총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고불총림에서 나타난 대종사의 새로운 불교운동은 고불총림이 갖는 사상성과 총림을 주도한 대종사의 정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 첫째, 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화의 이념과 실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
- 둘째, 기존교단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점
- 셋째, 승단이 처한 현실과 미래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대안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
- 넷째, 그 추진에 있어서 개방성을 표방한 점
- 다섯째, 정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개혁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점
- 여섯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 일곱째, 삼보정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점
- 여덟째, 고불총림 추진의 진정성과 실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
- 아홉째, 고불총림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되 전통불교 수호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이 대중사의 사상에서 분출한 총림의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식민지 불교의 잔재를 쓸어내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해방공간 교단에서 추진한 식민지 불교의 극복(불교정화운동)에 대하여 만암 대중사께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불만은 종맥계승의 부재, 식민지 불교체제의 안주, 미약한 교단정화, 현실을 부정하는 노선 방향 등이었습니다. 더욱이 교단집행부와 재야혁신단체들 간에 전개된 갈등 분열 의식은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만암 대중사께서는 1947년 2월 성도절을 맞이하여 자신이 구상한 독자적인 불교정화를 선언하고 그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불총림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대중사께서 총림의 깃발을 자신이 거주하는 백양사에 내걸었지만 백양사 경내에 상주하는 대중에게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 지방에서 수행 정진하는 사찰대중과 함께 총림의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였던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고불총림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총림의 깃발을 든 시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화운동(1954년 정화운동이 시작되던 해)이 일어나기 8년 전 이미 대중사께서는 정화의 이념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백양사에 세운 고불총림(1947년 2월 성도절)입니다.

따라서 백양사 재적·재직승 및 문도들은 만암 대중사께서 높이 치켜 든 깃발아래서 그분이 구현하고자 했던 정신을 받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끝으로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형 등 문도스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술세미나에 함께 동참해주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스님과 중학연구소 소장 종호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 사]

##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관통하는 대종장, 만암스님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들녘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고불총림 백양사가 만암 대종사의 유훈을 기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만암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관통하는 대종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양사로 출가하여 당대의 대강백 한영스님으로부터 전문 강학을 배우고, 이후 환응스님에게 전강을 받으시고 해인사 전문 강원을 시작으로 후학양성에 정진해 오셨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민족 전체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스님은 출가본사인 백양사로 돌아와 교육 사업에 매진하면서 광성의숙을 설립하시고 약 100여명의 학인들과 선과 교, 율장 등 삼장을 공부하며 외전(外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선반농(半禪半農)을 은모임으로 실천하시며 승가의 자급자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28년부터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교장직을 수행하였고, 1947년에는 광주 정광중학교를 설립하시는 등, 한국불교의 희망과 미래가 교육에 있음을 간파하신 선구자적인 탁견을 지니셨던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 출가수행자가 지켜야할 위의를 생각하시며 평생에 걸쳐 교육 불사에 정진해오셨습니다.

이 같은 가풍이 녹아들어 백양사가 고불총림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것은, 대종사의 크나 큰 가르침이 백암산 자락에 응혼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스님은 정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한국 불교정화를 이끌었습니다. 1954년 개최된 '전국 비구승 대표자회의'에서 종정(宗正)에 추대되어 비구승단을 이끌며 종단의 화합에 진력하셨으며 이후에는 백양사로 내려와 후학양성에 정진하셨습니다.

평생을 두고 출가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던 진정한 근대불교의 사표 중의 사표이신 만암 대종사님의 고귀한 정신과 생애를 조명하는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이자 큰 감사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불총림 방장 수산 대종사와 주지 시몽스님, 그리고 고불총림 대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 사]

## 도제양성에 헌신한 수행자

인 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아름다운 가을이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한결 바람이 매서워짐을 감지하는 요즈음입니다. 가을은 결실을 맞이하고, 찬바람은 성숙되어지기 위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송 만암스님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시대적 격동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며, 열한 살 때 출가하여 강사가 되어 누구보다 도제양성에 헌신한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1911년에는 조선불교가 선교양종(禪敎兩宗) 30본산제로 바뀌고, 1921년에는 공식적인 조선불교선교양종 총무원이 성립되면서, 만암스님은 수행에 있어서도 선과 교를 겸수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암스님은 백양사내에 사회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50~100명 단위로 스님들을 모아 선(禪) 교(敎) 율(律)의 겸수와 함께 외전(外典)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스님의 열정은 승가교육에 대한 원력으로서, 현재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만암스님은 부처님 성도일에 백양사에서 한국 불교 최초로 ‘고불회(古佛會)’를 조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8. 15 해방 이후 한국 불교계도 새로운 변화의 추세 속에서 만암은 “그동안 사찰에서 소외되었던 수행승에게 일부 사찰의 운영을 맡기자”고 제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불교정화’의 기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계가 발전하려면 이판(理判) 수행승(修行僧)과 사판(事判) 敎化僧을 분명히 하고 이판은 선리(禪理)를 탐구하고 사판은 교화활동에 힘써야한다”고 한 그의 말은 오늘날의 불교계에서도 되새겨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통의 계승은 변화를 창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며, 이 의지는 <<다시보는 만암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학술세미나에 발제와 논평을 맡아 주신 학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백양사 문도와 동국대학교 중학연구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찬탄사]

## 만암 종헌 대종사 추모 찬탄사

도 문 (원로의원/죽림정사 조실)

만암 종헌 대종사님을 추모 찬탄하옵니다.

### 1. 만암 종헌 대종사는 이러한 스님이시다.

① 「만암 종헌 대종사님은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釋迦如來付囑系代法) 제75세 이십니다.」

시아본사 석가모니 여래 불 세존님이 마하가섭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미묘법문(微妙法門) 실상무상(實相無相) 청정법안(淸淨法眼) 열반묘심(涅槃妙心)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너에게 부촉하노라 하시어서 석가여래부촉법(釋迦如來付囑法) 제1세 마하가섭(摩訶迦葉) 존자, 제2세 아난다(阿難多) 존자, 제28세 보리달마(菩提達磨) 존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주의 핵인 28수(二十八宿)로 석가여래부촉법 제28세 보리달마 존자는 동토 중국 초조(初祖)가 되시고 제6조 석가여래부촉법 제33세의 법손 제35세 마조 도일(馬祖道一) 조사의 문하에 몇 분의 조사로 부터 해동 신라로 달마선법(達磨禪法)이 9산선문(九山禪門)으로 전등(傳燈)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38세 임제 의현(臨濟義玄) 조사를 거쳐서 우주의 핵인 28수(二十八宿)로 제56세 석옥 청공(石屋淸琇) 조사까지가 동토 중국의 정법안장이었던 것입니다.

해동 고려의 태고 보우(太古普愚) 조사께서는 안으로 해동 신라 불교 5교 9산선문(新羅佛敎五敎九山禪門)의 법을 멀리 이어서 원사(遠嗣)하고 밖으로 동토 중국 원(元)나라 하무산에 들어가시어 석가여래부촉법 제56세 석옥 청공 조사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전수(傳受)하여 석가여래부촉법 제57세의 해동 종조(海東宗祖)로서 등단하시었던 것입니다.

계계승승하여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喚醒志安) 조사께서는 해동 조선왕조의 송유 억불(崇儒抑佛) 정책에 의하여 순교(殉敎)하셨던 것입니다. 순교하신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 조사께서는 그 정법안장을 허공에 부촉하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석가여래부촉법에서 석가여래계대법(釋迦如來系代法)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허 대선사의 법맥은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喚醒志安) 조사, 석가여래계대법 제68세 호암 체정(虎巖體淨) 대선사, 제69세 청봉 거안(靑峰巨岸) 대선사, 제70세 울봉 청고(栗峰靑杲) 대선사, 제71세 금허 법침(錦虛法沾) 대선사, 제72세 용암 혜언(龍岩慧彦) 대선사, 제73세 영월 봉율(永月奉律) 대선사, 제74세 만화 보선(萬化普善) 대선사,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 제75세 경허 성우(鏡虛惺牛) 대선사 이십니다.」

용성 조사의 법맥은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喚醒志安) 조사, 석가여래계대법 제68세 금계 원우(錦溪元宇) 대선사, 제69세 청파 혜원(靑波慧苑) 대선사, 제70세 백인 태영(百忍泰榮) 대선사, 제71세 완진 대안(翫眞大安) 대선사, 제72세 침허 처화(枕虛處華) 대선사, 제73세 초우 영선(草愚永瑄) 대선사, 제74세 남호 행준(南湖幸準) 대선사, 「석가여래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龍城震鍾) 대선사이시고,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 조사의 후신(後身)으로 130여년 만에 용성 진종 조사로 탄생하시어 원사법(遠嗣法)으로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로 등단하셨던 것입니다.」

만암 대종사의 법맥은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喚醒志安) 조사, 석가여래계대법 제68세 호암 체정(虎巖體淨) 대선사, 제69세 연담 유일(蓮潭有一) 대선사, 제70세 양악 계선(羊嶽桂璇) 대선사, 제71세 침송 성순(枕松聖詢) 대선사, 제72세 덕운 천훈(德雲天焄) 대선사, 제73세 한양 용주(漢陽龍珠) 대선사, 제74세 취운 도진(翠雲道珍) 대선사,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釋迦如來付囑系代法) 제75세 만암 종헌(曼庵宗憲) 조사로 부촉 계대가 되었음을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석가여래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龍城震鍾) 조사가 증명(證明)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암 종헌 대종사님은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 제75세 조사 이십니다.」

② 「만암 종헌 대종사님은 조선불교중흥율(朝鮮佛教重興律) 제7조 이십니다.」

시아본사 석가모니 여래 부처님 당시의 계율맥(戒律脈)이 서역 인도에서도 끊어지고 동토 중국에서도 끊어졌으며 해동 조선에서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서역 인도의 율맥은 씨알이 되어 서역 인도에서 소멸됨과 동시에 소승 남방불교권으로 전래가 되고, 북방 대승불교권으로 전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토 중국에서도 법맥이 끊어지고 계율의 맥이 끊어져 버린 것을 동토 중국 청(淸)나라 법원사(法源寺) 고심율사(古心律師)께서는 동토 중국 청나라에서 불타조사(佛陀祖師)의 법맥도 계맥도 끊어져 버림을 크게 자탄하시고, 갑인년(甲寅年 서기1734년)에 문수사리보살로부터 서상수계(瑞祥受戒)를 받아 동토 중국불교중흥율 초조가 되셨던 것입니다.

해동 조선왕조에서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에 의하여 조선 승려를 천민(賤民)으로 전락케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시대의 천민으로서 8종류의 사천(私賤)인 8반사천(八般私賤)이 있었는데 ① 사노비(私奴婢) ② 승려(僧侶) ③ 백정(白丁) ④ 무당(巫堂) ⑤ 광대(廣大) ⑥ 상여군(喪輿軍) ⑦ 기생(妓生) ⑧ 공장(工匠) 등 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승려가 8반사천 가운데 한 천민으로 전락되었으니 법맥이 끊어지고 율맥이 끊어졌음이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지안 조사 순교 97년 후인 조선왕조 제23대 순조대왕 26년 병술년(서기1826년) 7월에 하동 지리산 7불암 대은 대사께서 은사이신 금담 장로님과 함께 시아본사 석가모니 여래 불 세존님에게 서상수계(瑞祥受戒) 발원 7일 기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7일 회향 일에 한줄기 상서(祥瑞)로운 광명(光明)의 빛이 대은 대사 정수리에 비치자 그의 은사 금담장로께서 이르시되, 「오로지 계(戒)가 존재하는 곳에서 부자지간의 아들이라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그의 상좌인 조선불교중흥을 초조 대은 율사에게서 계(戒)를 받으니, 조선불교중흥을 제2조가 되셨습니다.

조선불교중흥을 제3조 초의 율사, 제4조 범해 율사, 제5조 제산 율사, 제6조 금해 율사, 제7조 만암 율사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가닥의 계율맥은 조선불교중흥을 초조 대은 율사, 제2조 금담 율사, 제3조 초의 율사, 제4조 범해 율사, 제5조 선곡 율사, 제6조 용성 율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조선불교중흥을 제6조는 용성 율사이시고, 조선불교중흥을 제7조는 만암 율사이십니다.」

## 2. 만암 종헌 대종사님은 대강 이러한 대작불사를 하시다.

① 장성 백암산 백양사 중창주가 되시어 가람 수호의 법왕이 되시었습니다.

백양사 중창불사 사적비를 위당 정인보 찬(爲堂鄭寅普撰)으로 백양사 경내에 건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등단하시어 우리나라 불교계 4부대중의 지성화(知性化)에 기초를 여실히 세워 주셨습니다.

③ 백암산 백양사에 호남 고불총림을 결성하시어 선교겸수의 종합도량의 문호를 열어주셨습니다.

호남 고불총림 결성 성명을 대강 살펴보면 조선불교가 종(宗)을 옮기고 파(派)를 바꾸며, 애비를 제멋대로 바꾸고 할애비를 배반하여 쉽게 바꾸는 환부역조(換父易祖)의 경우에 이르므로

현 교단과 절연을 성명하고 오직 불타의 대위덕의 광명과 우리나라의 모든 고승석덕의 빛나는 광명을 계승하여 한 광명등(一燈)이 백 천등(百千燈)을 밝히기를 원만한 마음으로 서원한다고 만암 종헌 대종사님께서 사자후를 하셨던 것입니다.

④ 광주 광산에 학교법인 정광학원을 설립하여 정광중학교 초대 교장과 정광고등학교를 개교 초대 이사장으로 등단하시어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 교화의 기초를 확립하는 법나를 불고 법고를 울려주셨습니다.

⑤ 조국 광복과 함께 조선불교의 나아갈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로 4부 대중의 사표가 되시는 조선불교 교정으로 등단하시어 조선불교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⑥ 한국 불교의 정화 초조는 용성 진종 조사이시고, 제2조는 만암 종헌 대종사이시며, 제3조는 동산 대종사, 효봉 대선사, 금오 대선사, 청담 대선사 등 이십니다. 한국 불교의 정화 제2조 이신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갑오년(甲午年 서기1954년) 정화 이전부터도 효봉 대선사, 금오 대선사, 동산 대종사 등과 함께 우리나라 4군데 내지 5군데 본사(本寺)를 선정하여 참선수행 이 판승(理判僧)이 제대로 정진할 수 있는 수행도량 형성의 부동주(不同住) 수행처 마련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갑오년(甲午年 서기1954년) 4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 유시 후, 한국 불교 4부대중 7중 불자의 사표이신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부 역조(換父易祖) 하려는 음모를 타파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한불교 조계종과 절연(絶緣)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⑦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장성 백암산 백양사 조실에서 상좌 겸 수법제자 서옹 석호 대종사와 상좌 겸 수법제자 금타 대선사와 수계제자 불심 도문 법사를 불러 환부 역조(換父易祖)를 막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애비를 제멋대로 바꾸고, 할애비를 배반하여 쉽게 바꾸는 환부 역조(換父易祖)배들을 막기 위하여, 나 만암이 정리해 논 불타조사 원류(佛陀祖師源流) 문치를 금타 수좌에게 주노니, 금타 수좌는 선지가 있는 수좌이니까 만암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고승이 간직한 것처럼 방편을 잘 써서 진행하되 반드시 정화 교단은 청정 비구의 손에 들어갈 때에 석호(西翁) 수좌는 청정 비구임과 동시에 참선 간화선 수행자이어서 비구 종단에 종정이 될 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 용성의 법손 도문 수좌로 하여금 석호(서옹) 문하에서 이 불타조사 원류를 불타조사 원류라 하지 말고 해동 불조 원류(海東佛祖源流)라 하여 발간 유포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4부대중이 모두 다 함께 해동(海東)의 종조(宗祖)는 태고 보우(太古普愚) 조사이니, 목우자 불일 보조(牧牛子佛日普照) 국사는 승려의 사표는 될지언정 해동의 종조가 아님을 밝혀 이불화 거사와 이종의 교수의 주장인 고려 보조 국사가 해동의 종조라는 환부 역조(換父易祖)의 폐단을 막으라

고 유훈 하셨던 것입니다.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병신년(丙申年 서기1956년) 음력 12월 16일에 백양사 조실에서 세수 81세, 법랍 71하를 일기로 하여 원적하시고 사리 8과(舍利八顆)가 출현하시어 인천(人天)의 복전(福田)이 되셨습니다.

그 후 만암 종헌 대종사님의 유훈에 따라 서용 석호 대종사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심체제로 제5대 종정으로 추대가 되시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심 도문 법사는 교무부장으로 등단하여 몇 분의 고승의 손을 거쳐 간 해동 불조 원류(海東佛祖源流) 몽치가 경운(景雲) 대선사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불심 도문 교무부장이 찾아내어 서용 석호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의 서문을 받아 실어서 상(常)·락(樂)·아(我)·정(淨)의 4권으로 된 해동 불조 원류(海東佛祖源流) 책자를 간행 유포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를 위시하여 한국불교 4부대중에게 확실하게 밝혀버린 불심 도문 법사는 만암 종헌 대종사의 유훈인 환부 역조(換父易祖)의 논리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⑧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장성 백암산 백양사 경내에 불사리탑비명(佛舍利塔碑銘)을 건립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명에 의하면 해동 신라의 고승 자장 율사(慈藏律師)와 극동 일본의 고승 홍법 대사(弘法大師)가 동토 중국에서 불사리(佛舍利)를 모시고 와서 1천년이 넘도록 해동의 한국과 극동의 일본 국민의 복전이 되었었는데, 이제에 이르러서는 백용성(白龍城) 우두머리 뛰어난 스님으로부터 불사리(佛舍利)를 삼가 받들어 모시게 되었으니, 이는 여래사자(如來使者)가 아니겠는가? 또한 이 원력(願力)이 장엄하니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법(法)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갑자년(甲子年 서기1924년) 4월 욕불일(浴佛日)에 만암 종헌은 삼가 짓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백양사 조실로 계시면서 산내 암자인 운문선원 조실로 용성 진중 조사를 모시었으니 정화 초조 용성 조사와 정화 제2조 만암 대종사와의 관계에 대한 사연은 생략합니다.

⑨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용성 진중 조사 유훈10사목(遺訓十事目)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선하시고 명확하게 교시하셨습니다.

만암 종헌 대종사께서는 불심 도문 법사의 조부모와 모친과 당고모와 당고모부(前문교부장관 화곡 서명원 박사)와 종조부 자연 임봉권 화백 등과 같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서재필 박사와 함께 14세 소년인 도문 임윤화 사미를 서양의 미국 유학에 관한 심각한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문교부장관 화곡 서명원 박사의 재종조부 이신 서재필 박사께서는 미국으로 망명하시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을유년 8·15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셔서 미군정에서 활동하시다가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남한 단독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미국으로 무자년(戊子年 서기

1948년)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서재필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서재필이나 우남 이승만 박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미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학도가 되었지만, 도문 임윤화 군은 공맹(孔子孟子)과 노장(老子莊子)과 불조(佛陀祖師)를 아는 소년이니, 이 바탕위에 미국 유학을 가도록 하여 미국식 서양 교육을 받은 뒤 외교 활동을 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외교관이 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 만암 종헌 대중사께서는 이렇게 답변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기미년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이시고, 이 운동의 막후 기둥으로써 대한제국 부흥운동을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향도하신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으로 제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말기 현상으로써 독립동지가 배반하고 상좌와 제자가 배신하며 친일 민족지도자들이 자기만이 친일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창씨개명 하려는 음모를 직시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큰 물고기인 자치가 작은 물고기인 자치를 잡아먹는구나. 쇠에서 녹이 슬어 상하는구나. 사자 배스속에서 충이 생기어 쓰러지는구나. 크게 자탄하시고 그의 상좌 겸 수법제자인 동헌완규 조사에게 유훈10사목(遺訓十事目)을 부촉하시고, 이 겨례의 4분 5열된 과보를 막으라고 하시면서 운봉 사은 임동수 외호 거사의 증손자요, 봉래 임정준 한학자의 손자이고, 독립운동가 철생 임철호 애국지사의 외아들인 6세 임윤화 어린이로 하여금 12세시에 만암 종헌 대중사의 문하에 출가토록 하고, 27세시에 용성 진중 조사의 수법제자 석가여래부촉법 제 69세 석가여래계대법 제76세 조선불교종흥을 제7조 동헌 완규 조사의 수법제자로 등단하여 유훈10사목(遺訓十事目) 실현으로써 온 겨례의 4분 5열된 과보를 막도록 부촉 당부하셨으므로 14세 소년 도문 임윤화 사미는 이 용성 진중 조사의 유훈실현에 일생을 바쳐서 온 겨례를 위하여 홀로 외로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형국임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 서재필 박사는 핀잔 말씀의 대답으로써 모르는 소리외다.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보세요. 장차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없을 것이외다. 동양 교육을 받은 바탕위에 서양 교육을 받아 외교관이 되어 겨례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면서 용성 조사의 유훈 실현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당고모 당고모부 내외분, 조부모님 종조부님 자당님이 이에 귀를 기우려 동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만암 대중사께서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용성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문 임윤화 사미는 중생도 몰라야 되고 인류도 몰라야 됩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온 겨례만을 생각해 알 뿐이고, 다만 온 겨례만을 위하는 중이 되게 할 뿐, 용성 조사의 유훈에 따라서 도문 임윤화 사미는 세간의 5육락과 출세의 욕망을 확실하게 다 놓아버리고 일본어도 중국어도 영어도 세계사 공부도 함께 다 놓아버리고, 다만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와 한국 불교가 세계화하여 불교의 종주국, 종교의 종주국의 기반이 확고할 때 도문 사미로부터 7대로 내려가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 제84세 전후에 이르르면 우주의 핵인 28수(二十八宿) 도수(度數)로써 종주국

(宗主國)으로 섬겨질 때가 있으리니, 도문 사미는 오직 이 기반을 세우기 위해 한국불교의 핵인 용성 조사의 가르치심인 참선수행 의단독로, 염불수행 삼매현전, 간경수행 혜안통투, 주력수행 업장소멸, 불사수행 복덕구족 뿐인 실천적 수행에 입각하여 평상심이 시도심(平常心是道心)으로 살 뿐,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 제84세를 전후하여 서역 인도, 동토 중국, 해동 한국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세계불교의 이상적 저 언덕에 정법안장으로 일월과 같은 광명으로 비추어 지기를 확신하면서 우리나라 글,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의복,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충 효 경(忠孝敬)의 정신 사상, 역사의식으로 한국 불교의 핵심을 확립해서 도문 임윤화 사미는 향이 자기 몸을 태워 희생해서 향내를 풍기는 것처럼 5분법신향을 온 누리에 풍기기 위해 살아가는 희생 중이라고 하면서 만암 대종사께서는 도문 사미의 손을 붙잡고 대담하던 장소에서 밖으로 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불심 도문 법사 졸랍은 이제에 이르러 80을 바라다본 노승으로서 용성 용사와 동헌 은사 겸 수법사와 만암 계사 겸 참회사인 스승님들께 불경하지 않고 공경심으로 생활하는 시도심(是道心) 평상심(平常心)을 잃지 않음이 바로 만암 대종사님의 가피지 묘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온 겨레 전 동포를 위하여 용성 용사의 유훈 실현 부촉과 동헌 은사 겸 수법사의 유훈 실현 당부와 만암 계사 겸 참회사의 확실한 교시로 이 유훈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애국 애족이요, 중생 교화이며 앞으로 7대 후인 석가여래 부촉 계대법 제84세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 불교의 종주국이 되고 세계 종교의 종주국이 되는 기초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에 정성과 열정을 다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만암 종헌 대종사님으로부터 불심 도문 법사 졸랍이 12세시에 용성 진종 조사님의 숙세의 인연과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은덕으로써 장성 백암산 백양사 고불총림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一歸何處) 화두(話頭)를 결택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평창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 조실 경허문하 한암 중원 대종사와 연을 맺게 하여 주시어 그의 문하의 상좌 겸 수법제자인 오대산 월정사 조실 탄허 택성 대종사와 만화 희찬 대선사와 보문 대선사와 희섭 대선사와 백과문하 학선 병식 대선사, 운성 대강사, 청우 대선사, 기산 대선사와 용성문하의 동헌 완규 조사, 회암 준휘 대선사, 동산 혜일 대종사, 동암 성수 대선사, 고암 상언 대종사, 자운 성우 대율사와 동헌문하의 이산 도광 대선사, 신암 도원 대선사, 혜광 종산 대선사와 만공 문하의 전강 영신 대선사와 연담문하의 목담 대종사등과 연을 지어 주시었고, 만암 대종사께서는 손수 상좌 겸 수법제자인 금타 대선사, 서용 석호 대종사와 그의 법손 천장 임풍 대선사등과 연을 맺게 해 주신 만암 종헌 대종사님을 이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추모하면서 찬탄하옵나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장안산하 죽림정사  
조실 佛心道文 합장





[1주제]

## 蔓庵 宗憲의 생애와 沙門像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 1. 머리말

1950-60년대 진행된 ‘불교정화운동’은 한국 근현대 승단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대 승단 역사는 그야말로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었으며, 항상 극단의 선택이 강요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정화운동은 결국 비구승단의 승리라는 외형적 결과로 일단락되었으며, 현 대한불교조계종은 이같은 정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표방하고 있는 정통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다.

조계종단 내에서 한동안 ‘정화운동사’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금기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정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분들이 다수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 시대의 역사적 功過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계종단 차원에서 정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2008)이라는 학술서가 간행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정화운동사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정화운동 시대의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더욱 이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학술세미나의 주제인 蔓庵 宗憲(1876-1956)은 정화운동사 연구에 있어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고승이다. 하지만 만암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술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sup>1)</sup>,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글들이 일부 있는 정도이다.<sup>2)</sup>

1) 최근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박애숙의 논문이 있다(「만암 종헌 연구」, 2009). 아울러 김광식의 논문은 만암의 관점에서 불교정화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고불종림과 불교정화」, 『불교사연구』 4·5합,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2004 :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발표자도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문제를 다루면서 만암의 종조관을 언급한 바 있다(김상영,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출판사, 2008).

2) · 李鍾福, 「蔓庵老師를 告別하면서」, 『佛敎世界』 2, 불교세계사, 1957.8  
· 현대불교편집부, 「佛敎維新的 先驅者 蔓庵 宋宗憲大宗師의 生涯」, 『現代佛敎』 2, 現代佛敎社, 1960.1  
· 「蔓庵大禪師編-山色은 부처의 淸淨法身」, 金吉祥 編, 『高僧法語集』, 弘法院, 1969  
· 종 성, 「韓國 佛敎淨化와 蔓庵大宗師」, 『月刊法會』 13, 문서포교원, 1985. 11·12  
· 김상일, 「宋蔓庵스님-슬프고 아픈 이승의 생활」, 『錦湖文化』 89, 錦湖文化財團, 1992.11  
· 「큰 스님을 찾아서-수산대종사-영광 불갑사 조실」, 『법보신문』 1994. 2. 7

본 발표문은 만암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아직 만암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발표자는 무엇보다 만암의 생애와 관련한 年代記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불교잡지와 일간지, 조선총독부 『관보』, 『만암문집』 등에서 만암 관련 연대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문 말미에 「만암 종헌 연보」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다.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표문의 구성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점들은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 II. 출가 및 수행

만암의 행장을 전하는 자료로 총 4종이 있다. ①「自敘略歷」은 만암이 75세 때인 1950년 겨울 안거 중에 직접 쓴 글이다.<sup>3)</sup> 글의 분량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 자료는 만암의 출가 동기와 승려생활 전체에 대한 회고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②「만암대종사사리탑비명병서」<sup>4)</sup>는 權相老가 1957년 지은 비문으로, 만암의 입적 직후 지어진 최초의 행장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비문은 내용상 오, 탈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 같으며,<sup>5)</sup> 이로 인해 1982년 새로 찬술된 비문이 ③「대종정만암대종사사리탑비명병서」이다. 이 비문을 지은 李家源은 자신이 비문을 짓게 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그의 高弟 西翁宗正이 師 在世日에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곳은 白羊寺가 으뜸이라 하여, 그곳에 큰 비를 세워 그 행적을 기록하고자 그 문도로 하여금 『만암집』을 받들고 와서 나에게 銘을 부탁하기에 내 본래 불교의 宗旨에는 어두우나 그의 글을 읽어보니 淸勁 非惻하여 모두 세속을 깨우치는 말이요, 그 事行을 상고해 보면 敬祖護法과 撥亂反正으로 處事가 지극히 공변되고 그 훈공이 참으로 弘大하였다.<sup>6)</sup>

· 임혜봉, 「만암 종헌(1876-1957)-고불총림을 세운 '이릿고' 스님」, 『불일회보』 197호, 1997. 5

· 「신임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불교신문』, 2000. 10. 24

· 박기영, 『해우소에서 만난 큰스님』, 교요아침, 2003

· 이희재, 「만암스님의 뜻이 서린 백양사 팔층석탑에서」, 『禪文化』 30, 2003. 1

· 이희재, 「백양사의 만암대종사」, 『禪文化』 43, 2004. 2

· 「고불총림 새 방장 지종스님」, 『불교신문』, 2004. 4. 16

· 「인터뷰, 고불총림 방장 추대 수산스님」, 『현대불교신문』, 2004. 4. 28

· 월간 선원 편집실, 「나의 불교관-만암 종헌 선사」, 『禪苑』 128, 禪學苑, 2006. 2

3) 글 마지막의 “경인 동안거 중에 쇠한 눈살을 찌푸리며 쓰다(庚寅 冬安居中 頓衰眼而書之)” 라는 표현이 있다 (『만암문집』, p.257).

4) 비의 원래 이름은 「大韓佛敎曹溪宗 第三世大宗正 大本山白羊寺 第5回重創主 曼庵大宗師 舍利塔碑銘并序」이다.

5) 「附錄에 실린 退耕스님 撰 曼庵大宗師 舍利塔 碑文은 誤字 脫字가 많아 復元할 길이 없어서 淵民 李家源 博士에게 碑文을 새로 받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 退耕文集이 근래에 발간되어 다행히 碑文原本을 발견하였으나 원본 역시 오자가 많고 修辭上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여 오랜 각고 끝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었으며 李家源 박사가 撰한 碑文도 함께 실었다.” (만암대종사문집간행회 편, 『만암문집』, 백양사 고불총림, 1997, p.453)

6) 『만암문집』, p.321

당대의 대표적 한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이가원은 西翁 스님의 부탁으로 비문을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가원이 지은 비문의 앞 부분 내용은 권상로의 비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의 뒷 부분은 권상로의 비문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年譜略記」는 만암의 행장과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만암문집(구)』에 7) 「略歷實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67년 이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누가 이 자료를 편찬하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만암문집(구)』을 편찬하는 과정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 이상 네 종의 자료는 연대 표기, 특히 음력과 양력의 혼동으로 인해 서로 다른 연도를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만암은 1876년 1월 17일 전북 고창군 중거리에서 출생하였다. 宗憲은 범명이며 蔓庵<sup>9)</sup>은 그의 호이다. 백양산에서 오랫동안 지냈기에 혹은 牧羊山人이라고 하였으며, 一休<sup>10)</sup>라는 別號를 쓰기도 하였다. 선친의 諱는 義煥이며 礪山人이고 先妣는 김해 金氏이다. 두 종류의 비문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만암은 「自敘略歷」에서 출가 이전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선친께서는 제가 겨우 네 살에 홀연히 乘天하매 다만 窮天의 통한을 품고 慈侍下에서 生長하였다. 나이 겨우 여덟 살에 글방에 나아가 어리석음을 깨우치던 중 열 살 때에 이르러 命途가 짧다 하여 先妣께서 나의 入山을 許與하매 백양산 蓮潭 門下의 翠雲道珍禪師에게 출가하였다. 이듬해 선비께서 또 돌아가시매 한없는 슬픔을 안았으니, 이 일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世緣이 이미 薄하고 入山한 지도 오래지 않았는데 또 이런 變을 당하게 되매 이는 바로 空門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으니 문득 이 일을 당하여 인간 세상에 참혹한 일을 어찌 다 이르겠는가? 우리 佛家에서 이른바 因緣의 所致라 하겠으니 어찌하겠는가?<sup>11)</sup>

만암은 네 살 때 겪은 부친의 죽음을 ‘抱窮天之恨’이라 하였으며, 출가한 이듬해 또 다시 겪어 야했던 모친의 죽음을 ‘抱岡極之痛’이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자신의 불운을 ‘世緣이 이미 薄하다’고 하면서 ‘因緣의 所致’에 따라 출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암은 1886년 蓮潭 門下의 翠雲 道珍 선사에게 출가하였다. 도진의 자세한 행장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sup>12)</sup> 만암 관련

7) 『만암문집』은 1967년(백양사 편, 『만암문집』, 대성출판사)과 1997년(만암대중사문집간행회 편, 『만암문집』, 백양사 고불총림)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그런데 1997년 간행된 문집의 내용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호남 고불총림 결성 성명」과 같은 중요 자료의 문투를 일부 고쳐 놓은 점은 이 문집의 자료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이 문집은 만암 관련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만암 관련 자료를 총 결집한 새로운 내용의 『만암문집』 발간을 기대해 본다. 본 발표문에서는 1997년 간행된 문집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1967년 본을 언급할 때에는 별도로 “『만암문집(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8) 「略歷實記」의 앞 부분에 “이에 禪師의 自敘와 其他의 實跡을 綜合하여 列記한 바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이 있다.

9) 秋史는 白坡의 문손 중에 불법의 도리를 깨치는 스님이 나오면 주라고 법호를 미리 써주었다고 한다. 石顛과 茶輪, 만암 등이 그에 해당한다.

10) 「草心」이라는 글의 끝에 ‘一休老衲’이라는 표현이 있으며(『만암문집』, p. 305), 「一休借韻」이라는 제목의 시도 전한다(『만암문집』, p. 70). 이 별호는 주로 만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1) 『만암문집』, pp. 256-257

12) 『동사열전』에 실린 翠雲慧悟(1866-?)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대흥사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1894년 대흥사 적련암 강사로 머물고

자료에서는 만암이 태고 보우의 18대손이며 연담 유일의 6대손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도진은 연담의 5대손에 해당하는 법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가 이후 만암은 20여 년에 걸친 修學期를 보낸다. 두 종류의 비문에서는 그가 구족계를 수지한 이후 교학 연찬기(1891-1901)와 선 수행기(1901-1910)를 거쳐 1911년 처음으로 開堂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암의 修學과 관련한 비문 내용은 극히 단순하여 修學處라든가 그 시기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年譜略記」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보충하거나 다소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보약기」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師는 16세에 이르러 龜岩寺의 佛敎專門講院에 입학하여 內典의 大敎를 모두 이수하였다.
- ❁ 師는 23세에 雲門庵에서 幻應講伯의 뒤를 이어 開講하고 淸流庵에서 續講하던 중 甲辰 乙巳年間(1904-1905년)에 韓日關係가 악화되어 의병의 궤기로 인하여 청년학도를 거느리고 白蓮庵 天眞庵 등지를 전전하며 續講하였다.
- ❁ 丁未年(1907년) 32세로 海印寺에서 강의를 청하여 就任한 바 그때 백양사의 학인 十餘名이 항상 따랐으며 四敎와 大敎의 학과가 재임 2년동안 언제나 5, 6십 명이 되었으니 南北講院의 여러 講伯 가운데 명성이 가장 藉藉하였다.<sup>13)</sup>

「연보약기」에서 먼저 주목되는 내용은 만암이 16세 때 龜岩寺 불교전문강원에 입학하여 內典의 大敎를 모두 이수하였다는 대목이다. 구암사는 조선후기 講學 전통을 대표하는 도량 이다. 雪坡 尙彦(1707-1791), 白坡 巨璇(1767-1852), 石顛 朴漢永(1870-1948)<sup>14)</sup> 등이 모두 구암사와 관계된 강백들이다.<sup>15)</sup> 1891년 무렵의 구암사 강원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만암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강학 도량에서 교학 연찬기를 보낸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연보약기」의 두 번째 내용에서는 만암이 23세 때(1898년) 운문암에서 幻應講伯의 뒤를 이어 開講하였다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것은 그의 비문에서 언급한 1911년의 ‘개당’ 사실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이다. 실제 「연보약기」는 이 부분을 ‘강사시대’라는 제목 아래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만암은 이미 1898년 무렵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서 표현한 ‘개당’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1910년 廣成義塾 설립 이후 진행된 만암의 본격적 학인 지도, 즉 선과 교를 아우르는 학인 지도를 상징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翠雲道珍과의 동일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강원총람』(p.84)에서는 도진의 생몰연대를 1854-1940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13) 「年譜略記」, 『만암문집』, pp. 333-334

14) 『강원총람』(p.96, p.659)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논문, 잡지기사 등에서 만암이 鼎鎬(박한영)에게 수학하였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龜岩寺 불교전문강원에서 박한영에게 수학하였다는 것인데, 이같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발표자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 만암의 행장 자료 어디에도 이같은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박한영은 1888년 출가하여 21세 때인 1890년 백양사 幻應에게 四敎를 배웠다. 그가 강의를 시작한 것은 1896년 이후부터이며, 1900년을 넘기면서 제방에 명성을 떨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암이 구암사에서 수학한 시기는 1891년 무렵이므로 만암이 박한영에게 수학하였다는 서술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5) 불학연구소 편,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7, p.535

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만암은 운문암에 이어 청류암, 백련암, 천진암 등지에서 강의를 계속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자료의 내용처럼, 1907년 해인사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남북 강원의 여러 강백 가운데 명성이 가장 자자하였다”는 표현이 과장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암은 점차 ‘강사’로서의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던 듯하다.

만암에게 있어 幻應 坦泳(1847-1929)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승이다. 먼저 다음의 두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A-① 생각해 보면, 長老 幻應은 어려서부터 참다운 행을 하였다. 그 傳講은 鏡潭대사를 이어 받았으며, 또한 홀로 雲門이라는 외딴 암자(암자는 백암산 꼭대기에 있다)에서 좌선하며 수도하였다. 양 坡(雪坡와 白坡) 후에 또 율사가 배출되자, 30본산에서 다 함께 宗匠으로 추대하였다. 스님은 60년 동안 그림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삼천리 내 세상에 그 명성이 가득하였다. 마음 씀이 자비로워 짐짓 저절로 상호에 드러났고, 持戒의 정미하고 엄정함 또한 가히 그 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은 백양사 전 주지 金幻應 스님에 관한 이야기이다.<sup>16)</sup>

A-② 백과의 문중은 선의 강의와 계율을 함께 전수하였는데, 옛날의 幻翁·雪竇·鏡潭, 지금의 幻應·映湖 등 여러 화상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 환응화상은 선과 계를 蔓庵(宋宗憲이다)에게 전하였고, 선암사의 枕溟 또한 백과공의 선과 계를 전하였으며, 이것이 굴러서 華山 晤善에게 전해지고, 다시 擎雲 元奇 화상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sup>17)</sup>

위의 두 자료는 모두 『조선불교통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먼저 A-①은 幻應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에 서술되어 있듯이 그는 운문암에서 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했던 이 시대 대표적 강사이자 수행승이었다. 李能和는 환응에게 “30본산에서 다 함께 宗匠으로 추대하였다”거나, “60년 동안 그림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삼천리 내 세상에 그 명성이 가득하였다”고 하였다. 환응에 대한 당시 불교계의 평가를 충분히 살필 수 있는 표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암은 23세 때 운문암에서 幻應講伯의 뒤를 이어 開講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두 고승의 관계를 傳講弟子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A-②에 의하면 환응은 만암에게 선과 계를 전하였다고 한다(幻應和尚 傳禪戒于蔓庵). 환응과 만암의 관계는 禪脈, 또는 律脈의 전수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하겠다.<sup>18)</sup>

만암은 「自敘略歷」에서 출가 이후 수행 생활을 “처음엔 출가한 본래의 취지를 미처 몰랐고 佛門에 들어온 지 十餘 星霜이 흘러서야 선과 교에 있어서 얼마쯤 섭렵했기에 본래의 취지가 어디

16) 『역주 조선불교통사』 6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330

17) 『역주 조선불교통사』 3권, 같은 책, p.204

18) 『조선불교통사』에는 비록 간략하지만 만암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다. “법명 宗憲은 산문의 기강을 세우고, 中延(백양사의 중흥조)의 옛 절에서 주지를 맡아 幻應長老의 뒤자리를 승계하였다. 위의 내용은 장성 백양사 주지 송종헌 스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역주 조선불교통사』 6권, p.336)

에 있는지를 대충 판별했다”고 회고하였다. 두 종의 비문에서도 ‘向壁安居 參尋禪旨者 又十年’, ‘向壁觀鼻 參尋禪指者 垂兩十載’라고 하여 10년간의 참선 수행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禪僧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그의 선사상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문집에 실려 있는 다음의 오도송을 통해 그의 선풍을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19)</sup>

「물외암에서의 오도송(於物外庵中悟道頌)」(五絶二首)

寶刀翻游戲	보배칼을 마음대로 쓰고
明鏡無前後	맑은 거울은 앞뒤가 없도다
兩般一樣風	두 가지 모두 한마음
吹到無根樹	뿌리 없는 나무에 불어 넣는다

又

吾將無刀劍	내가 날 없는 칼을 잡아
割來露地牛	노지의 흰 소를 잡아서
屠蘇兼供養	도소주와 함께 공양을 올리니
何處有恩讐	어느 곳에 은혜와 원수가 있을까 <sup>20)</sup>

### III. 백양사 중창 및 중앙 종단에서의 활동

#### 1. 廣成義塾 설립과 임제종운동 참여

만암은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한 무렵 백양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義塾, 즉 廣成義塾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후진 양성을 시작하였다. 광성의숙은 백양사 뿐 아니라, 이 시기 승가교육사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간직하고 있는 기관이다. 만암은 淸流庵에 광성의숙을 설치하였는데, 청류암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시기에 전봉준이 하룻밤 묵어가기도 하였고, 한말 항일 의병 활동기에는 의병들이 드나들기도 하는 등 백양사 내 사회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19) 오도송은 보통 時處가 밝혀져 있는데, 만암의 오도송은 物外庵이라는 장소만 알 수 있을 뿐 그 시점을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만암의 행장 관련 자료 어디에도 그의 오도송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의아한 느낌마저 든다. 따라서 이 오도송의 내용을 가지고 만암의 선사상을 논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다만 만암의 법을 이어받은 현 고불총림 방장 壽山의 증언에 의하면, 만암은 특히 ‘이뵈고?’ 화두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20) 『만암문집』, pp. 29-30. 물외암은 鶴鳴禪師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도량이기도 하다. 『만암문집』에는 만암의 오도송에 덧붙인 학명선사의 계송도(「附寄曼庵丈室」) 함께 실려 있어 흥미롭다.

21) 현대사연구회, 「송만암대종사의 사상」, 『만암문집』, p. 422

광성의숙의 설립 과정에 대해 「연보약기」에서는 “師는 연고가 깊은 부근 사찰을 규합하여 청류암에 재래식 講院을 개설하고 시대에 부합되는 內外學을 兼修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매 遠近이 모두 호응하여 운집한 학인이 백 여명에 이르렀다. 주로 敎와 禪으로 律儀를 겸하였다”<sup>22)</sup>고 하였다. 이 시기 이른바 근대식 교육의 도입 문제는 승가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있던 상태였고, 중앙에서는 이미 명진학교<sup>23)</sup> 설립을 통한 근대식 승가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 광성의숙은 이같은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설립 취지와 교육 내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연보약기」의 내용을 통해, 광성의숙은 재래식 강원이지만 내외학을 함께 공부하는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기관이었음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설립 이후의 광성의숙 모습은 역시 다음의 「연보약기」에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師는 講伯인 幻應老德을 方丈和尚으로 모시고 자신은 일개 學監으로 在任, 내외의 諸般 교무를 총괄하면서도 日常의 行事は 修養하던 때와 같이 秋毫도 다름없이 行持가 견고하여 항상 四圍의 畏敬을 받았기에 백양의 관할에 속한 삼십여 寺庵이 義塾事業에 모두 호응하였다. 의숙의 母體인 백양사는 某年에 灰燼되고 몇 개의 房舍와 庵子만이 산내에 殘在했으나, 國內의 어느 巨刹보다도 청년 佛徒의 교육사업은 착착 진행되어 국내 사찰 중에서는 연히 選佛場의 자리를 占하였으며 義塾에 수용된 學人은 언제든지 오십 명 이상 백 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 의숙은 日警에 의하여 출판이 금지된 國史와 地理, 그밖에 民族精神을 鼓吹하는 모든 서적을 임의로 배우며 읽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排日名士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국민정신을 涵養하는데 一助가 되었으니 師의 정신적 着眼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sup>24)</sup>

만암은 이미 오랜 기간 인연을 맺고 있던 幻應 坦泳을 방장으로 모시고, 자신은 학감의 소임을 맡아 의숙 전반을 이끌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환응은 일제의 30분말사범 시행 이후 백양사 초대 주지로 부임하였으나,<sup>25)</sup> 의숙 설립 당시 직책은 분명하지 않다. 환응과 만암의 노력으로 광성의숙은 백양사 관할 30여 사암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냈으며, 학인은 항상 50-100여인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위 인용 자료의 뒷 부분은 광성의숙이 지니고 있었던 일종의 저항의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日警에 의하여 출판이 금지된 國史와 地理, 그밖에 民族精神을 鼓吹하는 모든 서적을 임의로 배우며 읽을 수가 있었다’는 광성의숙의 교육 내용은 실제 일제의

22) 「연보약기」, 『만암문집』, pp. 334

23) 명진학교와 관련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남도영, 「구한말의 명진학교」, 『역사학보』 90, 역사학회, 1981

김순석, 「통감부 시기 불교계의 명진학교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김광식,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한편, 동국대학교에서 간행한 『동국대학교 백년사』 1권(2006)에도 명진학교의 설립 배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개설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24) 「연보약기」, 『만암문집』, pp. 334-335

25) 1912년 12월 23일자 『관보』 제120호에 “전남 장성군 백양산 白羊寺에서는 金幻應을 주지 후보자로 선정하여 취직의 건을 신청함에 대하여 12월 19일에 인가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주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일경의 순찰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광성의숙의 이러한 교육내용은 만암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점은 또한 ‘만암의 불교정화관’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만암은 일제 36년의 불교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敎門을 파괴시킨 일이 가장 서글픈 일<sup>26)</sup>이라고 하였다. 또한 「恭啓(其一)」라는 글에서 “倭寇에게 被奪된 僧規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온다는 것은 우리 先師 古德이 일천육백여년 동안 如實히 如來의 正法을 奉持해 온 誠力을 돌이켜 볼 때 어찌 외람되고 한심스러우며 억울하고 통분할 일이 아니옵니까?”라고도 하였다. ‘만암불교’에 있어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왜색불교의 청산이라는 과제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광성의숙은 이같은 만암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하겠다. 「연보약기」에는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의 의숙 경영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은 본 논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광성의숙에 투영된 만암의 저항의식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臨濟宗운동에의 가담이 그것인데, 먼저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B-①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등이 문자와 언설로 곳곳에서 격렬하게 일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술년(1910) 10월 5일(음) 광주 澄心寺에서 회의를 열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날이 다 되어도 와서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 이곳에서 행사를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다시 유세를 일으켜서, 이에 다음해인 신해년(1911) 1월 15일에 또 순천 송광사에서 총회를 열었다. 이 총회에 온 사람들은 곧 전라남도과 지리산 일대의 스님 무리였다. 이때 송광사에 임시 종무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管長을 투표로 선거하였다. 선암사의 金擎雲과 백양사의 金幻應이 모두 덕망이 높아 同數의 표를 얻었다. 여러 번 선거를 해도 모두 같아서 끝내 별도로 선거하는 방법을 정하여 경운법사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운법사는 연세가 많고 힘이 쇠잔해진 까닭에 나오지 못하고, 한용운에게 권한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주부 내에 임제종 포교당을 설립하였다.<sup>27)</sup>

B-② 全南來人の 傳說을 聞한則 今月 六日에 全南 諸寺 代表人 김학산, 김보정, 김율암, 아희성, 조신봉, 김청호, 장기림, 박한영, 진진웅, 신경허, 송중현, 김종래, 김석연, 송학봉, 도진호 등 15인이 광주군 瑞石山下 證心寺內에 특별 총회를 開하였는데 臨濟宗門을 一層 확장하고 호남 諸寺의 新塾諸生을 勸勉하여 新舊의 교학을 쇄신하여 新教 자유의 목적지에 期達하는 것이 신세계 종교인의 光偉한 의무라고 諸山塾內에 포고하였다더라.<sup>28)</sup>

26) 만암은 자신의 수학도량인 구암사 화재 소식을 접한 후 그 소회를 밝힌 시를 남겼다. 그는 「聞龜岩寺入火吟(七絶二首)」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왜구가 침범한지 36년, 교문을 무너뜨림 가장 서글팠네(倭寇侵來州六年 敎門破滅最愴然)”라고 하였다. 『만암문집』, p.90

27) 『여주 조선불교통사』 6권, 같은 책, p.313

28) 『불교 一新의 機』, 『매일신보』, 1911. 2. 2



李晦光은 1906년 설립한 불교연구회를 토대로 圓宗을 창립하였다. 원종은 1908년 3월 6일 각도 사찰 대표 52인이 참가한 元興寺 총회에서 이회광을 大宗正으로 추대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이회광은 일본 조동종 승려 武田範之를 원종 종무원 고문으로 추대하였을 뿐 아니라, 일진회 회장 李容九 내부대신 宋秉峻 등 친일파 인사들과 관계하면서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펼쳐나갔다. 특히 1910년 10월 6일 체결된 이른바 일본 조동종과의 盟約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sup>29)</sup>

B-①은 이같은 불교계 움직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등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澄心寺에서의 회합이 좌절된 이후 또 다시 모임을 추진하였고, 결국 1911년 1월 15일, 송광사에서 모임을 성사시켰다. 전남과 지리산 일대의 스님들이 주로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송광사에 임시종무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투표로 종무원의 관장을 선출하였다. 여러 차례의 투표를 거쳐 결국 선암사의 擎雲이 선출되었는데, 이 때까지 경합했던 인물이 바로 백양사의 幻應이었다. 비록 관장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백양사 환응이 이 시기 임제종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②는 증심사에서 개최된 임제종 특별 총회와 관련한 신문 기사인데, 이 총회에서는 ‘臨濟宗門을 一層 확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 특히 호남 諸寺의 新舊 교학 쇄신과 관련한 사항을 諸山塾內에 포고하였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한 全南 諸寺 代表人 15인 명단 가운데 만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총회가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포고되는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성의숙을 운영하고 있던 만암의 참석은 일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이해된다.

박한영, 한용운 등의 회고처럼 당시 불교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이회광의 원종에 대항하기 위해 임제종운동을 시작하였다.<sup>30)</sup> 하지만 임제종 운동은 단순히 이회광의 매종행위를 비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회광이 주도하는 원종 종무원에 대응되는 기관을 조직하는 등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1)</sup> 임제종운동은 1912년 5월 26일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을 개교하면서 운동의 탄력을 받는 듯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문폐가 철거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 시기 전개된 임제종운동은 한국불교의 고유성, 정체성을 의식한 종파 재건 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내세운 임제종은 한국불교사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종명이지만, 그 속에는 태고법통의 계승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이같은 임제종운동에 환응, 만암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기 백양사의 불교 성격 뿐 아니라, 만암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9) 임제종 운동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연구가 상세하며(「1910년대 불교계의 조동종 맹약과 임제종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5 :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발표자는 일제강점기 중단과 종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김상영,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증명 변화와 종조법통 인식」, 『불교근대화학의 전개와 성격』,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출판사, 2006)

30) “박한영 陳震應 한용운 金鍾來 등은 此 위기일발의 機를 乘하여 奮然蹶起 먼저 호남일대에 반항의 旗를 세우고 조선불교의 부흥을 圖할새 원종의 締盟을 파괴하기 위하여는 他宗을 別立하여 원종을 自滅케 함이 切경이라는 견지에서 조선 교유의 임제종을 창립하여.” (한용운, 「불교청년총동맹에 대하여」, 『불교』 86, 1931. 8)

31) 김광식, 「1910년대 불교계의 조동종 맹약과 임제종운동」, 앞의 책

32) 김상영,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증명 변화와 종조법통 인식」, 앞의 책

## 2. 백양사 중창불사

만암은 1916년 7월 4일자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얻어 백양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두 종의 비문에서는 모두 甲寅年, 즉 1914년 만암이 백양사 주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비문의 단순한 誤記인지, 아니면 1914년부터 만암이 실질상의 주지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하튼 만암은 1916년부터 백양사 주지로 취임하여 사찰 면모를 크게 일신하였으며, 백양사를 이 시기 호남불교의 중심도량으로 가꾸어놓았다. 그러면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을 통해 먼저 만암의 정확한 주지 재임기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 ① 전남 장성군 북하면 본사 백양사 주지 金幻應의 임기가 만료하였기에 그 후임으로 宋宗憲 주지 취임의 건을 신청함으로 본월 4일에 인가함(1916년 7월 7일, 제1178호)
- ②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본산 백양사 주지 송종현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 취임의 건을 신청함으로 12월 25일에 인가함(1920년 1월 8일, 제2219호)
- ③ 전남 장성군 백양사 주지 송종현의 재임 취임의 건을 12월 8일에 인가함(1923년 12월 13일, 제3401호)
- ④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지로 柳錦海 취임의 건,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주지로 白景霞 취임의 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주지로 金一雲 취임의 건 모두를 10월 20일에 인가함(1927년 10월 25일, 제247호)
- ⑤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지로 송종현,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주지로 甘船月の 각각 취임의 건을 11월 7일에 인가함(1930년 11월 13일, 제1159호)
- ⑥ 경기도 수원군 안룡면 용주사 주지로 姜大蓮 취임의 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지로 송종현 취임의 건을 신청함으로 1934년 1월 22일에 모두 인가함(1934년 1월 26일, 제2111호)
- ⑦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지 田敬充 취임의 건을 1937년 3월 2일에 인가함(1937년 3월 8일, 제3041호)
- ⑧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지 송종현 취임의 건을 신청함에 1939년 11월 24일에 인가함(1939년 11월 29일, 제3858호)
- ⑨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지 曼庵宗憲 취임의 건을 신청함에 1943년 6월 3일에 인가함(1943년 6월 8일, 제4903호)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관보』에는 일제강점기 백양사 주지직 임명과 관련하여 총 9건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1916년 이후 백양사 주지직은 두 차례, 즉 柳錦海(1927. 10. 20-1930. 11. 6)와 田敬充(1937. 3. 2-1939. 11. 23)이 임명을 받은 기간 이외에 모두 만암

이 주지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만암은 1927년, 10여 년간에 걸친 백양사 1차 중창불사를 마치고 그간의 내력을 기록한 사적비를 세웠다(위당 정인보 지음). 錦海의 주지 취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만암은 10여 년에 걸친 불사의 중압감 속에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을 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종단 내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 시기 만암은 종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1929년 中央佛專 교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일시적으로 주지직을 떠나 있던 만암은 3년만인 1930년 11월 7일자로 다시 백양사 주지직에 복귀하였다. 이후 1937년부터 2년 6개월 여 잠시 떠나 있다가 1939년 11월 24일부터 다시 주지직을 맡았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만 놓고 보면 만암은 1916년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주지직 승인을 받았으며, 그 재임 기간은 무려 24년 이상에 달한다.

만암이 진행하였던 백양사 중창불사는 무려 40여 년간 진행되었다. 먼저 「연보약기」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 백양사는 荒涼한 폐허에 瓦家 一棟과 草屋 一棟만이 남아 있었다. 師는 백양사를 중건하고자 甚深한 원력으로 一絲不亂하게 정진하던 중 여러 차례 산중회의를 주관한 지 數十餘 星霜을 지나 師의 계획한 중건 佛事가 서기 1917년 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막을 열었다. 이는 물론 산중 諸德의 歸一한 원력과 신도 諸位의 지극한 誠力이며 또한 사회 유지의 아낌없는 원조가 결집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그 가운데는 師의 法力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師의 법력과 願力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緣化의 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건 공사를 개시한 지 만 십년이 되던 서기 1927년에 이르러 제1차의 工事を 마쳤다.<sup>33)</sup>

여러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1900년대 초기의 백양사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약간의 불사가 진행되어 만암이 주지직에 취임하는 1916년 무렵 백양사 경내에는 3-4개 정도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암은 본격적 중창불사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만암은 먼저 대중의 공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대중 공의를 중시하는 만암의 성품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중의 원력과 신도의 지원 등에 힘입어 1917년 2월부터 본격화된 백양사 중창불사는 1922년 5월 4일, 1차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낙성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sup>34)</sup> 이 낙성식에는 수 만 명에 달하는 관람자가 참석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겸하여 열린 탓에 백양사에는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행사 당일에는 지역 유지가 대거 참석하였고, 밤 늦게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연보약기」의 내용에 의하면 이 때의 행사는 대웅전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5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1927년까지 진행된 중창불사는 성격상 제2차 중창불사에 해당하는데, 다

33) 「연보약기」, 『만암문집』, pp. 336-337

34) 「백양사 낙성식」, 『매일신보』 1922. 5. 11

음의 자료를 통해 이 시기 진행된 중창불사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去年 冬間에 나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선교양종 대본산 백양사를 巡禮하여 본 일이 있다. 當寺의 淸衆은 住持 宋曼庵 和尚의 導率下에 在하여 和合一致되어 共同心力으로써 一大 伽藍 法堂 寮舍 其他를 一新建築하여놓고 그 淸規를 지키에는 朝夕禮佛, 一堂會食 뿐만 아니라 비록 小沙彌일지라도 法衣를 입지 안코는 朝夕供養에 參與를 不許하며 工課를 함에는 晝參夜參의 禪風과 四敎大敎의 講規를 엄격으로 행함을 보고 나는 심중에 實地所見이 표면소문과 상이함을 느꼈다. 그리고 조선 각寺가 이와 같은 風規를 지키는 줄을 알겠다.<sup>35)</sup>

이능화는 1926년 겨울 무렵 백양사를 찾았던 것 같다. 그는 먼저 당시 백양사의 외양을 언급하였는데, 만암화상의 영도 하에 백양사는 법당 요사 등을 一新建築하여 대가람을 형성해 놓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불사의 과정에 대중들은 和合一致되어 共同心力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이 잡지 기사에서는 무엇보다 이능화가 당시 백양사 대중의 생활을 평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능화는 백양사 대중의 청규를 지키는 대중생활에 감탄하고 있다. 작은 사미라도 반드시 法衣를 입고 공양에 참석토록 하는 엄격함, 禪風과 講規를 철저히 준수하는 工課 등의 모습을 보고 이능화는 ‘표면의 소문과 다름’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것은 10년 간의 백양사 중창불사가 단지 ‘외형상의 불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대중생활 전반에 이르는 ‘내적 중창불사’까지 아우르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능화의 이 글은 이 시기 백양사의 寺格을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sup>36)</sup>

만암의 주지 재직 기간에 이룩한 중창불사의 전체 규모는 조금 후대에 작성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양사는 6.25 한국전쟁 와중에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戰後 다시 중창불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 간행된 유인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 이룩한 중창불사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sup>37)</sup> 이 유인물에 소개된 백양사 전각은 다음과 같다.

35) 李能和, 『朝鮮佛敎의 三時代』, 『佛敎』 31(1927, 1), p.11

36) 이 시기 백양사는 제주지역 포교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 이 무렵 제주 元堂寺는 ‘전남 백양사 출장포교소’로 불리었는데, 『매일신보』 1927년 12월 1일자에 “전남 백양사 출장포교소 제주 元堂寺에서 主任 河施律氏가 誠意로 포교에 노력한 결과 신도가 다수에 至하여 淸眞堂을 장엄치 아니치 못하게 되어 금년 夏期에 多額의 자금을 投하여 一新히 수리하였고 차제 확장의 기운이 도래함으로 본산에서 宋宗憲 강사가 출장하기로 예정하는 중이라더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백양사의 제주지역 포교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과제가 아닐까 한다.

37) 『연보약기』에 “불행히도 6.25의 동란으로 山内の 數十餘 庵子가 모두 兵火에 소실되고 本堂과 수개의 堂宇만이 남아 있으나 6.7년간을 비워두매 비와 바람에 갈리고 씻겨 창이 망가지고 벽이 무너져 너무 쓸쓸한 요즘의 경지는 騷人墨客으로 하여금 더욱 슬픈 감회를 일으키게 할 뿐이다. 온 나라가 각 방면으로 復舊를 周旋하는 이때에 본사도 赤手空拳으로 南郭濫吹(무능한 사람이 재능있는 사람처럼 흉내내는 것을 이름)와 같이 復舊를 唱和하던 中 枯樹生華(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는 뜻으로 불운했던 사람에게 좋은 운이 트임)와 함께 有志 諸賢의 贊助가 없는 바는 아니나 일은 크고 힘이 모자라매 可謂 紅爐點雪의 경지에 處해 있기에 부득이 일반 來客에게 觀覽券을 발부하여 塵合泰山으로 남은 事業의 有終의 美를 거두고자 자기 殿堂의 創建 由緒를 자세히 설명하여 觀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사찰 관리를 발부하는 과정에 간행된 유인물로 보이는데, 그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만암문집』, p. 338)

- (1)天王門 (2)梵鐘閣 (3)大雄殿 (4)八相古畫 (5)祖師殿 (6)七星閣 (7)極樂殿  
 (8)冥府殿 (9)雨花樓 (10)舍利塔 (11)道義影閣 (12)香積殿 (13)碧眼堂<sup>38)</sup>

40년 간에 걸쳐 무려 13개의 전각을 신축하거나 중수한 만암의 불사는 실로 대단한 규모로 진행된 것이었다. 지금의 백양사 가람 형태는 대부분 이 시기의 불사를 거쳐 형성되었을 것이다.

만암의 백양사 중창불사는 그의 특별한 佛事觀과 寺院經濟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sup>39)</sup> 그는 늘 사찰의 자급자족을 주장하였으며, 그 방편으로 양봉을 강습하여 꿀을 제조하였고 짚신을 만들었으며 죽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러한 일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모두 중창불사에 쓰여지도록 하였다. 뒷날 그의 문도들은 만암의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 半禪半農이라고 불렀다. 반선반농의 실천과 함께 1937년 5월 5일(음) 작성한 「財産移轉之緒言」이라는 글은 중창불사로 획득된 사찰 재산에 대한 원칙을 밝혀놓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에 속하는데, 이들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 3. 중앙불전 교장과 중앙 불교계 활동

1916년 백양사 주지로 부임한 만암은 백양사 중창불사 뿐 아니라, 백양사를 대표하는 승려 자격으로 중앙 불교계에서 활동하였다. 만암은 앞선 임제종운동 참여 과정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현실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던 고승이었다. 특히 광성의숙을 창립한 이후 만암은 종단 전체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같은 관심은 1920-30년대 불교교육사에서 그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만암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주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발표문은 이 시기 만암의 활동과 관련한 연대기 자료들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 ❁ 1921년 3월 16일 개최된 조선불교 삼십본산 주지임시총회에 참석함(『동아일보』 1921. 3. 17)
- ❁ 1922년 1월 3일 개최된 조선불교 삼십본산 주지총회에 참석함. 이 회의에서 위원장 자문 기관으로 설치된 常置員의 鑑査員으로 임명됨(『동아일보』 1922. 1. 14)
- ❁ 1922년 1월 13일 개최된 삼십본산 주지회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종무원 사업을 찬성함. 이 때 참석한 본사는 10개임(『동아일보』 1922. 1. 15)
- ❁ 1922년 1월 14일 개최된 조선불교총회에 참석함(『동아일보』 1922. 1. 16)<sup>40)</sup>

38) 『연보약기』, 『만암문집』, pp. 338-343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39) 이에 대해서는 박애숙의 석사논문이 잘 정리되어 있다.

40) 이 기사에 만암이 “금번에 었지한 까닭으로 함인지 삼십본산이 원만히 타협되지 못함은 조선불교를 위하여 비상한 유감이라. 었더케 하여서든지 다른 본산도 모다 화합하여 조선불교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구구한 감정을 문데로 조건을 정한다 함은 불가하다” 는 발언을 하여 유신회원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 ❁ 1928년 4월 30일 개교한 佛敎專修學校의 교장으로 취임함(『불교』 48, 『一光』 1)
- ❁ 1928년 5월 28일 개최된 佛專校友會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됨(『불교』 49, 『一光』 1)
- ❁ 1928년 11월 30일 개최된 조선불교승려대회 발기회에서 1929년 1월 3일 개최할 본 대회를 준비하는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임됨(『불교』 54)
- ❁ 1928년 12월 24일 『一光』 창간호에 「示佛專學生」이라는 법어를 발표함(『一光』 1)
- ❁ 1929년 1월 2일 개최된 조선불교승려대회 제7회 준비위원회에서 종헌 등의 제정을 담당하는 제정위원으로 선임됨. 이어 개최된 제정위원회에서 개최를 선언함. 이 위원회의 사회를 보다가 病故로 인해 사회를 중단함(『불교』 56)
- ❁ 1929년 1월 5일 개최된 조선불교승려대회 3일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교학부장으로 선출됨. 이 때 회의에서 幻應 스님이 7명의 敎正 가운데 한 분으로 선출됨(『불교』 56)
- ❁ 1929년 4월 27일 개최된 佛專校友會 제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됨(『불교』 59)
- ❁ 1931년 4월 22일 佛敎專修學校 교장직을 사임함(『一光』 4)
- ❁ 1931년 7월 6일 佛敎專修學校 도서관 고문으로 위촉됨(『一光』 4)
- ❁ 1936년 2월 26일 개최된 전조선 삼십일본산 주지대회에 참석함(『조선일보』 1937. 2. 25)
- ❁ 1937년 1월 25일 개최된 全南五本山聯合會에서 이사로 선임됨(『불교(신)』 1)
- ❁ 1937년 6월 25일 교무원을 방문하여 백양사 출자금 채납액 상환 문제를 상담함(『불교(신)』 6)
- ❁ 1938년 10월 새롭게 구성되는 總本山建設에서 비상임 고문직을 맡음(『동아일보』 1938. 10. 23, 『불교(신)』 9)
- ❁ 1940년 3월 28일 개최된 전조선불교 삼십일본산 주지대회에 참석함(『조선일보』 1940. 3. 29)
- ❁ 1941년 8월 18일 종무고문에 임명됨(『불교(신)』 31)

#### IV. 고불총림 결성 및 종단 통솔

8·15 해방 이후 기존 조선불교조계종을 이끌던 집행부는 1945년 8월 17일 종무원 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식민지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일부 승려와 청년 불자들이 교단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8월 18일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20일 총본산 태고사에서 종무를 인수하였다. 김법린·최범술·유엽 등의 승려가 중심이 되었던 조선불교혁신회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고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광복 이후 첫 승려대회로 기록된 이 대회는 각 지방의 본산 대표 5명씩 모두 6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식민지 불교를 청산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태고사법과 본말사제도를 폐기하였으며, ‘조선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명칭을 ‘조선불교’라는 교단 이름으로 바꾸고 종정의 위치에 敎正을 두는 변화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중앙총무원

등의 새로운 교단 기구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sup>41)</sup>.

조선불교라는 신설 교단은 조선불교교헌의 제정, 반포를 통해 정비되어갔다. 승려대회에서 선정한 교헌 기초위원회와 법규위원회가 성안한 교헌은 1946년 3월 제1회 중앙교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46년 5월 28일 정식으로 반포되었다. 총 26장 106조로 구성된 조선불교교헌은 해방공간기 불교인들의 식민지시대 청산을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측면에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조선불교 교헌은 선과 교를 두루 융섭하는 한편, 교는 원효에게 선은 지눌에게 각각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법통은 조선중기 이후 단일 법통으로 전해지던 태고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다.

만암은 해방직후 불교계의 식민지불교 극복을 위해 당시 승단에 다양한 충고를 하였다. 그러나 조선불교 교단의 식민지불교 극복 노력은 미흡하였으며, 특히 만암이 중시하던 법통과 종조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었다. 이에 만암은 교단 구성원들을 ‘轉宗轉派’ ‘換傳易祖’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교단과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백양사 고불총림은 이같은 과정 속에서 탄생되었다.

소위 현 교단은 하등의 반성을 不得한즉 若此而止則 조선불교가 可謂 轉宗轉派에 換傳易祖의 경우에 달하므로 부득이 현교단과 絶緣을 聲明하고 오직 불타의 大威德의 광명과 반도의 모든 高師碩德의 餘光을 繼하여, 一燈이 百千燈을 燃함을 滿心弘誓하는 정신하에 爲先 左記의 약간 동지를 구하여 舊臘月 8일 불타 성도일을 기하여 고불총림 결성식을 거행하고 同名題下에 新發 足を 經營하는 바로다.

불기 2974년 臘月 8일  
牧羊山人 宗憲 白<sup>42)</sup>

고불총림은 1946년 시작되었지만 1947년 2월 경인, 당시 성도재일에 본격화되었다. 위 인용문은 만암이 1947년 12월 8일 발표한 「고불총림결성성명」이라는 글의 뒷부분이다. 고불총림의 결성 배경과 성격은 이 성명에 잘 나타나는데, 고불총림은 식민지 불교 하에서 한국불교의 형식과 정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반발로부터 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43)</sup> 만암의 불교정화 의지와 그 방향은 고불총림의 「강령」과 「청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44)</sup> 강령 서문에서 만암은

4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근현대편-』, 앞의 책, pp.157-160

하춘생,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 앞의 책, pp.16-18

김상영,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미」,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앞의 책, p.159

42) 「고불총림결성성명」, 『만암문집』, 대성출판사, 1967, p.100

43) 고불총림은 일제강점기 시도되었던 ‘모범총림’과 1946년 동안거부터 출범한 해인사 가야총림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 총림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논문(-, 「해인총림의 어제와 오늘」,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 「김지효의 꿈, 범어사 총림건설」, 『불교학보』 4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8)과 발표자의 논문(「한국불교 총림의 전개양상과 그 역사적 의미」, 『조계종 총림의 역사와 문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출판사, 2009)이 참고된다.

44) 고불총림 강령과 청규에 대해서는 김광식이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고불총림과 불교정화」, 앞의 논문)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당하여, 불교가 파멸을 당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 여타 분야는 정상적인 재건 작업을 기하는데 비해 불교 교단은 혼미가 지속하여 정화의 방향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석가와 조사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불교정화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만암은 1947년 5월 8일부터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 의해 설립되었던 조선불교 총본원의 총본원장으로 천거된 적이 있다. 하지만 만암이 총본원장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암은 또한 1951년 3월 21일(음 2.14) 방한암 제2대 교정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입적하자 같은 해 6월 20일 제3대 교정에 취임했다. 이후 만암은 조계종으로의 종명 회복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불교근세백년』의 “박한영 스님의 뒤를 이어 교정에 추대된 송만암 스님은 고불회의 취지를 살려 종명을 조계종이라 하고, 교헌을 종헌으로 바꾸고 새로 제정된 종헌에는 스님이 평소 갖고 있던 뜻을 반영해서 교화승(대처)과 수행승(독신)의 구별을 했다. 송만암 스님은 대처승을 교화승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찰은 수행승이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1951년 이종욱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연구하도록 지시했다”<sup>45)</sup>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V. 만암 종헌의 沙門像

역사상의 인물을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당 인물에 지나치게 경도되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물의 美化 현상이다. 발표자 역시 본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되뇌었던 사항이지만, 여기서 이같은 문제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만암의 沙門像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만암 이 자신의 삶을 회고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나 출가하여 중이 되었을 때 처음엔 출가한 본래의 趣旨를 미처 몰랐고 佛門에 들어온 지 十餘 星霜이 흘러서야 선과 교에 있어서 얼마쯤 섭렵했기에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판별했다. 첫째는 信根이 견고하지 못했고 둘째는 주위의 (환경이) 복잡하여 간신히 寶所에는 이르렀으나 다만 심오한 경지에는 들지 못했으니 가히 金山은 만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르려 했으나 아직껏 오르지 못하고 반백의 세월을 헛되이 教門의 쓸모없는 일에 사로잡혀 겨를이 없으니 필경에는 헛되이 살다가 보람 없이 죽는 사람이라 이것이 나의 분수라고 말해야 할는지? 그러나 평생토록 처리해 온 일은 공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을 따름이요, 털끝만큼도 자신을 위해 영리를 도모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불행한 가운데 한 가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sup>46)</sup>

45) 강석주·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중앙일보, 1980, pp. 235-236

46) 「자서약력」, 『만암문집』, pp.255-257



「自敍略歷」은 만암이 75세 때 작성한 글이다. 그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오르려 했으나 아직껏 오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문의 쓸모없는 일에 사로잡혀 겨를이 없었던 때문이며, 결국 이렇게 헛되이 살다가 보람 없이 죽는 것이 ‘나의 분수’라고 해야 하는지 자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생 공을 위해 살면서 ‘털끝만큼도 자신을 위해 영리를 도모한 일이 없다’는 점을 밝힌 후, 이것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만암의 행장을 살펴보면 「자서약력」의 이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 만암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 노년의 안거수행을 마친 후 “오늘 번뇌를 제거하니 기쁨 더할 수 없도다”<sup>47)</sup>고 한 반면, “숙세의 인연으로 총림에 들어갔지만, 백에 하나도 이루질 못하고 지금 늙었다”<sup>48)</sup>고도 하였다. 만암은 아직껏 오르지 못한 그 경지를 향해 끊임없는 정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만암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정작 백양사와 이 시기 불교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영리를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은 진실한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면 이같은 만암의 自評을 전제로 그의 사문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만암은 宗史觀이 뚜렷한 사문이었다.

만암은 조계종의 宗祖는 道義이며, 법통은 太古法統이라는 소신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는 백양사 중창 과정에서 ‘道義影閣’을 신축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에 이르러서야 陳田寺 복원, 도의 영정 제작, 종조 추모다례제 봉행 등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만암의 도의영각 신축은 特記할만한 일이 분명하다. 만암은 이미 해방공간기 조선불교 교단 집행부와 이 문제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정화운동 초기 전개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만암과 비구승단이 결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蓮潭老師 진영쟁탈전’으로 표현되는 일화라든가, 만암의 비문을 권상로가 찬술하였다는 점, 태고의 부도 앞에서 呼哭하였다는 점 등은 모두 그의 뚜렷한 종사관과 관련 있는 일들이라 하겠다.

둘째, 만암은 교육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문이었다.

만암은 광성의숙 설립에 이어 3년간 중앙불전 교장을 역임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승가교육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과 소신은 너무도 뚜렷했다. 특히 중앙불전의 昇格을 둘러싼 각종 문제와 普成高普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 그의 소신은 주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암은 승가교육 뿐 아니라 일반교육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 그가 설립한 淨光學校는 지금까지 불교 가르침을 최우선시하는 호남지역 명문교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다.

셋째, 만암은 가람수호의 화신과도 같은 사문이었다

가람 수호는 승려의 주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40여 년에 걸쳐 백양사의 면모를 일신한 만암의 중창불사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일이다. 만암의 중창 불사를 바

47) 「附 解制日吟」, 『만암문집』, p.71

48) 「散吟」, 『만암문집』, p.140

탕으로 일제강점기 백양사는 호남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 불교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능화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암의 중창불사는 단지 '외형상의 불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僧風전체를 진작하는 '내적 중창불사'까지 아우르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암은 생산불교, 半禪半農 불교를 실천한 사문이었다.

만암은 백양사 대중들에게 중창불사 과정에서 마련된 自耕農을 바탕으로 半農半禪의 생활과 晝耕夜讀의 古風을 遵守하자고 당부하였다. 이것은 自作自給의 미풍을 발휘하는 것이고, 백장청규 정신으로 유명한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의 가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재정 기반이 열악한 백양사가 면모를 일신하는 대규모 불사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반선반농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로지 시주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찰 운영방법, 그러면서도 철저히 청정한 승풍을 유지해갈 수 있었던 대중 통솔력, 이것은 만암불교의 家風으로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다섯째, 만암은 평등과 화합원융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사문이었다.

만암은 광성의숙 시절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 그는 언제든지 대방에서 학인들과 더불어 생활하였다고 하며, 자신의 밥상 위에 특별한 반찬이 놓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면모는 훗날 주요 宗團事를 해결하거나, 왜색불교를 청산하는 방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만암은 비구, 대처의 구분과 역할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정작 대처승을 일시에 사찰에서 내치는 정화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쥐에게도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었다고 하는 그의 자비심과 원융적 불교관을 감안할 때, 만암이 택했던 정화방향과 방법은 결코 낮설지 않다.

<만암 종헌 연보>

- 1876년 1월 17일 전북 고창군 중거리에서 출생  
1886년 翠雲道珍에게 귀의하여 출가  
1889년 백양사 翠雲道珍 스님을 은사로 득도  
1891년 龜岩寺 불교전문강원에 입학하여 내전의 대교를 모두 이수  
1898년 운문암에서 幻應 강백의 뒤를 이어 개강. 이후 청류암, 백련암 천진암 등지를 전전하며 續講  
1901년 여름부터 면벽안거 수행 시작. 이후 10여 년간 수행  
1907년 해인사에서 강의를 청하여 취임. 그 때 백양사의 학인 십여 명이 항상 따랐으며, 강사로 점차 이름을 떨침  
1910년 청류암에 廣成義塾을 설립하여 후진양성에 힘씀  
1911년 처음으로 개당하여 불자를 휘두르며 3년간 지도. 1월 6일 증심사에서 열린 임제종 특별 총회에 참석  
1916년 7월 7일 환응 스님에 이어 백양사 주지로 취임  
1917년 백양사 대웅전 건립 불사 기공  
1919년 12월 25일 총독부로부터 주지 취임 인가  
1921년 3월 16일 조선불교 삼십본산 주지임시총회에 참석  
1922년 1월 3일 조선불교 삼십본산 주지총회에 참석. 이 회의에서 위원장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常置員의 鑑査員으로 임명  
1922년 1월 13일 삼십본산 주지회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종무원 사업을 찬성  
1922년 1월 14일 조선불교총회에 참석<sup>49)</sup>  
1922년 상해로부터 대장경 220책을 구입하는 한편 雲門禪院을 개원하여 학인과 수좌승을 배출. 단오날 말사 주지 일동으로부터 紀念章을 받음. 대웅전 건립 불사를 완공하고, 5월 4일 낙성식을 성대하게 개최  
1923년 12월 8일 총독부로부터 주지 취임 인가  
1924년 舟峰上人에게 5언절구 시를 지어 보임. 4월 浴佛日 「白巖山白羊寺佛舍利塔碑銘并序」를 지음  
1925년 7월 「親塑四天王像記實」을 지음  
1927년 중창불사를 마치고 그간의 내력을 기록한 사적비를 세움(위당 정인보 지음)  
1928년 4월 30일 개교한 佛教專修學校의 교장으로 취임

49) 이 기사에 만암이 “금번에 었지한 까닭으로 함인지 삼십본산이 원만히 타협되지 못함은 조선불교를 위하여 비상한 유감이다. 었더게 하여서든지 다른 본산도 모다 화합하여 조선불교사업을 위하여 로력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구구한 감정 문데로 조건을 정한다 함은 불가하다” 는 발언을 하여 유신회원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 1928년 5월 28일 佛專校友會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
- 1928년 11월 30일 조선불교승려대회 발기회에서 1929년 1월 3일 개최할 본 대회를 준비하는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임
- 1928년 12월 24일 『一光』 창간호에 「示佛專學生」이라는 법어를 발표
- 1929년 1월 2일 조선불교승려대회 제7회 준비위원회에서 종현 등의 제정을 담당하는 제정위원으로 선임. 이어 개최된 제정위원회에서 개최를 선언. 이 위원회의 사회를 보다가 病故로 인해 사회를 중단
- 1929년 1월 5일 조선불교승려대회 3일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교학부장으로 선출. 이 때 회의에서 幻應 스님이 7명의 敎正 가운데 한 분으로 선출
- 1929년 4월 27일 佛專校友會 제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
- 1930년 4월 7일 불교전수학교를 中央佛教專門學校로 승격 개편
- 1930년 11월 7일 총독부로부터 주지 취임 인가
- 1933년 僧臘日에 「백양총림청규」를 작성
- 1934년 1월 22일 총독부로부터 주지 취임 인가
- 1935년 5월 27일 불교중앙포교당 대건축발기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
- 1935년 6월 「李氏念佛華之塔」의 탐문을 지음
- 1937년 1월 25일 전남오본산연합회 이사 선출
- 1937년 2월 27일 31본산 주지회의 참석
- 1937년 (음) 5월 5일에 「財産移轉之緒言」을 작성. 「佛甲寺冥府殿移建及改金改彩記」를 지음 1939년 仲春에 「淸信女趙氏平等行功德碑」 비문을 지음
- 1939년 11월 24일 총독부로부터 주지 취임 인가
- 1941년 『불교』 신년호에 「삼보는 곧 화합의 뜻」이라는 기고문 게재
- 1943년 3월 金時在 普善行의 탐에서 시를 지음. 小春 24일 「金剛庵重修記」를 지음
- 1943년 6월 3일 총독부로부터 주지 취임 인가
- 1946년 호남고불총림을 결성하여 선교겸수의 종합도량 설립. 10월 10일 滿虛先師 立碑式을 축하하는 시를 지음
- 1947년 정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취임. 「호남 고불총림 결성 성명」을 발표
- 1948년 조선불교 교정으로 취임. 9월 「光山郡松汀邑金仙教堂創立記」를 지음
- 1949년 12월 20일 「東愚鄭純朝先生紀功碑」 비문을 지음
- 1950년 小春에 눈 속에서 시 「散吟」을 지음. 동안거 중에 「自敘略歷」을 지음
- 1951년 교정 재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글을 총무원에 전달
- 1952년 77세를 회고하는 시 「七十七初度吟」을 지음. 대종정에 추대됨
- 1953년 6월 11일 「古鏡」이라는 글을 지음. 수행의 길목을 터득함. 仲秋에 「새로운 면목」이라는 글을 지음. 11월 28일 제12회 정기중앙교무회에 「諭示」를 발표

- 1954년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 仲春에 서간문을 씀. (음) 5월 5일 목담선사가 한국불교조계종 제3세 종정 만암대종사 찬시를 씀. 6월 20일 제13회 정기중앙교무회에 「宣示」를 발표  
11월 20일 제14회 중앙종회에 「宗正訓辭」를 발표
- 1955년 (음)2월 23일 「태고문인모듬회」 소집을 알리는 문건을 띄움. (음) 2월 24일 통도사 장로 예하에게 편지를 씀. 6월 27일 「불교문화의 올바른 신봉」이라는 글을 발표. 8월 7일 「총무원 간부 총퇴각 권고」문을 작성. 8월 10일 「친서 통고문」을 작성. 「書懷」라는 글을 작성
- 1956년 2월 15일 「대한불교 문제에 대한 제언」을 씀. 목담선사가 찬시를 씀. (음) 5월 5일 시 「祝秋月山龍華寺」를 지음. 6월 29일 제15회 중앙종회에 「宗正의 宣示」를 발표. 12월 16일 세수 81세, 법랍 71세로 백양사에서 입적
- 1957년 경칩 날 백성욱이 「조시」를 씀. 동안거날 권상로가 「大韓佛敎曹溪宗 第三世大宗正 大本山白羊寺 第5回重創主 蔓庵大宗師 舍利塔碑銘并序」를 지음
- 1982년 臘月 初吉 이가원이 「大宗正蔓庵大宗師舍利塔碑銘并序」를 지음
- 1995년 5월 15일 국민훈장 목련장 추서. ‘정광학원 이사장 고 송종헌’



[논 평]

## 「蔓庵 宗憲의 생애와 沙門像」을 읽고

금 강 (조계종 교육위원)

백양사(白羊寺)는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숭한 고난과 전란 속에서도 민중들과 함께해온 호남불교의 요람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년) 여환조사(如幻祖師)가 창건하여 절이름을 백암사(白岩寺)라 칭하였고, 고려 덕종 3년(1034년) 증연조사가 중창하면서 절 이름을 고쳐 정토사(淨土寺)라 부르기도 했다. 뒤로 각진국사, 환양선사, 도암선사, 환성선사가 중건하였으며, 이후 백양사는 자비와 지계의 엄정함을 이은 환응 탄영스님의 맥을 이어 학림의 교편을 잡고 치문의 경책을 부지런히 편 석전 한영선사와 만암 종헌선사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백양사의 운문암은 고려시대의 각진국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소요태능, 편양, 진묵, 연담스님 그리고 조선 말기 불교를 이끌었던 백과, 학명 스님과 근대의 용성, 인곡, 석전, 만암, 고암스님 등 이 나라 불교 법통을 이어온 큰스님들이 상주 수행하여 수행 근본도량으로 자리해왔다.

또한 임진란, 정유재란, 갑오농민혁명 때에는 백양사 스님들이 농민군에 수백명이 참여하여 싸우다가 순절하는 등, 역사와 민족 민중의 고난에 동참해온 정의로운 전통이 있다. 실로 민족과 역사와 민중과 함께하는 전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하겠다.

특히 백양사를 오늘에 있게 한 분은 만암(蔓庵) 대선사이다. 만암스님은 일제 때인 1917년 폐허가 되어 있었던 백양사를 중창하여 대찰의 면모를 갖추셨고, 백양사 청류암에 민족교육의 산실인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설립하였고,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을 설립하고 해방 후에는 광주 정광중고등학교를 세워 교장직을 맡아 사회교육에도 열의를 다하셨다. 또한 만암스님께서는 1947년에 전남북 십수 개 사찰을 동참시켜 백양사에 고불총림을 개창하셨다. 백양사 고불총림은 일제잔재인 왜색불교가 횡행하고 종풍이 쇠잔해갈 때 청정한 승풍을 진작시키고 종지종풍을 면면이 이어가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만암 큰스님께서 선언하신 호남고불총림 결성취지를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가 이조 말의 폐정을 틈타 제국주의자의 침략을 받아 마침내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나라가 식민지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혼까지 거의 소멸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불교도 식민지 불교가 되어 우리나라 전통의 형식과 정신이 모두 말살되어 나라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차에 다행히 천리의 순환을 얻어 일제가 물러간 뒤 강토를 되찾아 건국의 기운이 짙어가는 가운데 한갓 불교는 이제까지도 먹구름이 끼어 새벽 빛을 보지 못하므로 오직 부처님의 대위덕 광명과 우리 나라의 모든 고승선덕의 빛을 이어받아 한 등불이 백천 등에 불을 당기듯 마음 속 가득 크게 서원하는 정신으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더불어 납월 8일 부처님 성도일을 기하여 고불총림 결성식을 거행하고 그 이름 아래 새롭게 발족하는 바이다."

만암스님의 고불총림 취지문에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백양사 고불총림은 단순히 형식을 갖춘 총림이 아니라 해방 직후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상응 하는 왜색 식민지 불교 청산, 민족정기 함양, 승풍진작 등 3대 목표를 두고 설립한 것이 민족불교 중흥의 산실의 고불총림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만암스님은 고불총림의 민족불교정신으로 민족교육과 종단화합 정화에 정진하셨던 것이다. 일찍이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일부 매국 승려들에 의해 조선불교의 대일 예속이 획책되고 있을 때 석전 한영선사 만해 용운선사와 더불어 임제종을 세워 반민족적 망동을 저지하기도 했던 만암 큰스님을 해방 후에도 고불총림의 이념에 따라 종단 정화를 통한 민족불교 확립에 진력하셨다. 특히 이승만의 유시로 조장된 불교의 분열을 경계하며 중도화합에 의한 자주적 정화라는 탁견(卓見)을 제시하시어 오늘날까지도 그 혜안은 후학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백양사는 총림 설치 이후 만암스님의 반농반선의 가풍이 면면이 이어오다, 전 종정이신 서옹스님이 총림을 다시 복원하고, 고불총림 무차선회와 참사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는 지종스님이 끊임없이 후학들을 위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만암스님은 백양사의 입장에서는 중창주이며 총림의 기틀을 만들어 수많은 후학들이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신 어버이와도 같은 분이다.

또한 교단적 차원에서도 한국불교사상 가장 혼란의 시기인 일제식민지시대와 해방전후와 6,25 전란의 시기에 교육과 교단을 책임지는 대표로서의 활동은 현시대의 과제들을 푸는 중요한 열쇠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백양사의 만암스님에 대한 유훈을 받드는데 대한 게으름과 종단에서의 정화방법 이견으로 인하여 스님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김상영교수의 발제문 '蔓庵 宗憲의 생애와 沙門像'은 만암스님의 수행부분과 백양사의 중창불사부분과 간략하지만 만암스님의 사문상에 대한부분을 정리를 해주어 귀중한 글이라 할 수 있겠다.

아쉬운 부분은

첫째 만암스님의 수행과 안목을 실제로 표현한 고불총림을 결성하고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생애전반의 흐르는 반농반선의 대중적 살림살이와 일제식민시대의 파괴되어진 승풍을 진작시키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부분, 종단적 차원이 아닌 백양사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지역에서만 총림결성의 이유들이 논의 되었으면 바란다.

개인적으로 고불총림결성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한국불교승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본다.

해방이후 불교는 불교혁신세력과 교단집행부의 식민불교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의 불교운동을 위한 정화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립양상을 보였다.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서산대사이후 확립되어진 선교양종의 통합된 조선불교전통이 일본의 종파불교를 만나면서 혼란스러워졌으며, 취척로 인한 계율의 문제, 사찰령으로 인한 본산 중심제와 주지전횡의 문제, 사찰재정자립의 문제 등 불교교단의 내부분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과제였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청정하고 화합하는 승가를 구성하듯 백장스님의 반농반선의 총림의 체제가 선불교의 모델이듯 이론으로 다투기보다는 실제의 총림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 시대 정화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암스님이 ‘換父易祖’라는 강력한 말을 하며 1954년 종정의 자리를 거부하고, 태고의 부도 앞에서 呼哭하였다는 만암스님의 太古 普愚스님을 宗祖로하는 宗史觀과 간화를 본위로하는 간화선 수행방법은 만암스님의 사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총림의 취지문에 나타난

“종맥의 承統에 吾宗은 臨濟門孫으로 태고보우 祖師의 전통을 계승하며 卽心卽佛의 哲理를 철저적 悟得하며 本宗 家風에 遺漏가 無기를 周圖함”

「佛敎」 제79호에 백양사의 전범에 나타난

主客과 老少를 불문하고 入寺卽時로 看話禪 本位이다 더욱이 冬夏安居에는 本末 住持를 모두 招待하여 1개월간 面壁家風을 宣揚하니 누가 보든지 靈山威儀를 그대로 옮겨 왔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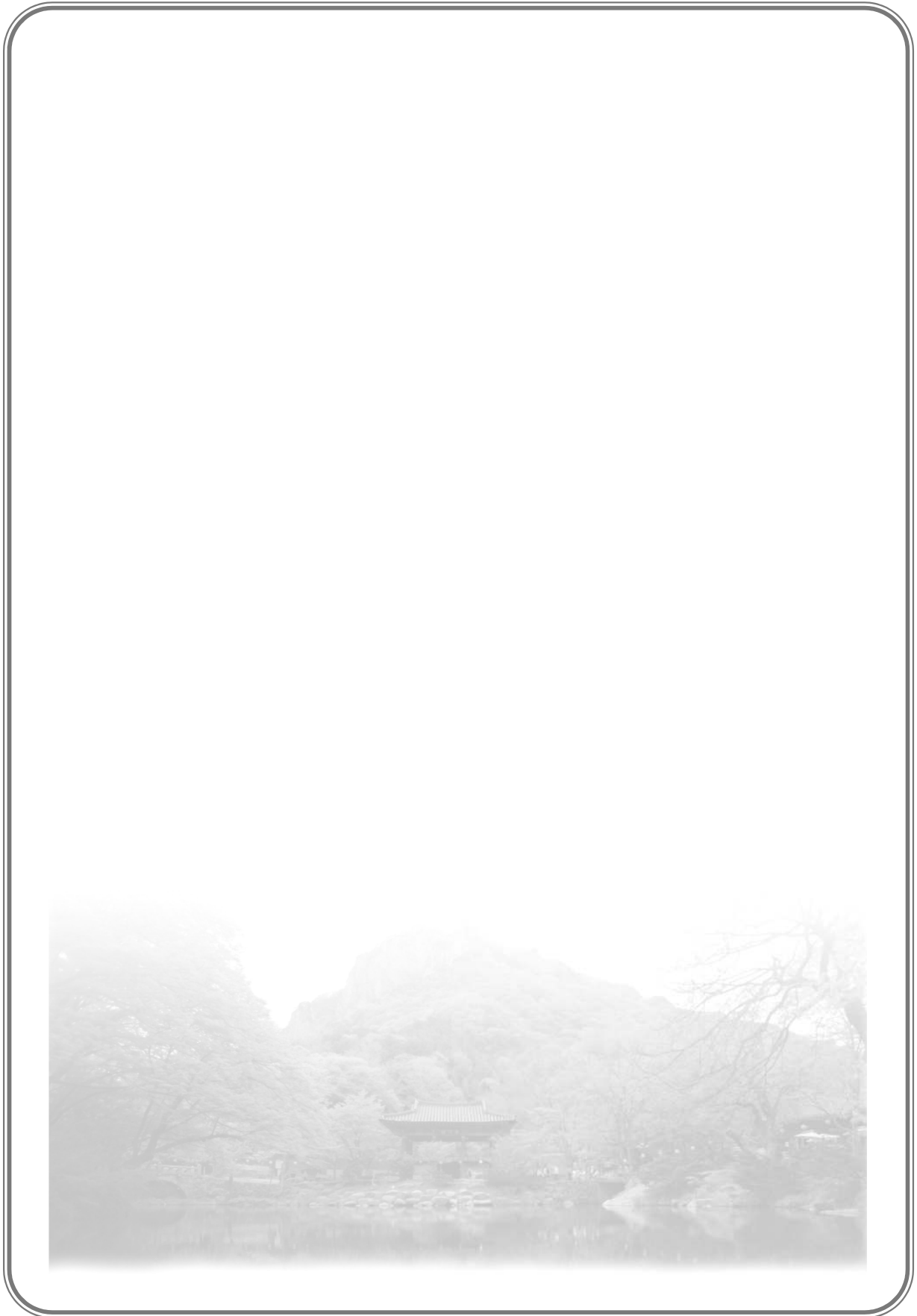
세 번째는 1954년의 종정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에는 단순한 종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권개입의 정화 움직임이 압박으로 작용한 내용이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후

- 1차 이승만 대통령 담화 1954. 5. 21
- 2차 이승만 대통령 담화 1954. 11. 4
- 3차 이승만 대통령 담화 1954. 11. 19
- 4차 이승만 대통령 담화 1954. 12. 17
- 5차 이승만 대통령 담화 1955. 6. 16









[2주제]

## 白羊寺 강학의 계승과 曼庵의 전통 인식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목 차

#### 들어가는 말

1. 조선후기 호남불교와 白羊寺의 강학
2. 白羊寺 강학의 전수와 曼庵의 전통 인식

###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교학의 중심지였던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승려들을 문과별로 살펴보고 호남불교의 거점 중 하나였던 白羊寺의 講學에 대해 고찰해 본다. 이어 백양사의 강학을 전수한 이들과 특히 근대 백양사의 거목이었던 曼庵 宗憲의 활동 및 전통 인식에 대해 검토한다. 백양사는 호남의 교학종장인 蓮潭 有一 계통의 법맥이 이어진 한편 禪宗쟁으로 유명한 白坡 巨璇의 유포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즉 조선후기 교학과 선종의 두 전통이 근대에까지 이어진 교차지점 이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대불교의 대표적 학장으로 손꼽히는 漢永 鼎鎬도 배출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만암 또한 전통적 강학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식 교육을 접목하였고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古佛叢林과 淨化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曹溪宗의 宗名과 宗祖 확립에 관여하였다. 특히 불교정화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친 1950년대에 宗正을 역임하면서 한국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고 균형감 있는 현실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만암의 업적이나 위상에 비해 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 성과 또한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만암의 사상과 수행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하기에 앞서 그 기초 작업으로서 만암이 전승한 백양사 강학과 강학 전통에 대해 검토해 본다. 또 만암의 활동내용을 수학과정, 총림건설과 정화운동, 종명 및 종조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의 전통인식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조선후기 호남불교와 白羊寺의 강학

조선후기 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호남지역은 淸虛系와 浮休系의 주류가 활동하면서 강학 전수와 교학 연찬이 매우 활성화되었다. 특히 淸虛 休靜(1520-1604)의 말년 제자 鞭羊 彦機(1581-1644)의 법맥을 이은 鞭羊派는 묘향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호남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편양의 적전인 楓潭 義謹의 문도 중 霜峰 淨源은 양평 龍門寺에서 입적하였고 대구 桐華寺와 충청도 지역에도 탑이 건립되었으며 그 후손인 仁巖 義沾은 18세기 영남의 교학을 대표하는 종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풍담의 제자 중 月潭 雪霽는 금강산에 주석하다가 만년에 전라도 승주의 澄光寺로 거처를 옮겼는데 당시 “호남에 經敎가 크게 열렸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징광사에 탑비가 세워졌다. 그의 적전제자인 喚惺 志安과 그 문도 虎巖 體淨의 탑도 해남 大菴寺에 건립되었다.

풍담의 또 다른 제자인 月渚 道安은 묘향산을 근거지로 하면서도 대둔사에서 법회를 주관하였고 입적 후 평양과 대둔사에 法器가 보내졌다.<sup>50)</sup> 그의 적전 雪巖 秋鵬 또한 묘향산에 주석하였지만 징광사와 대둔사 등에도 탑이 봉안되었고 제자 碧虛 圓照의 탑 또한 묘향산 安心寺와 대둔사에 동시에 세워졌다.<sup>51)</sup> 그런데 설암의 제자 중 霜月 璽筠은 순천 仙巖寺에서 출가하였고 대둔사의 逍遙派 華岳 文信에게 구족계를 받는 등 처음부터 호남 지역을 활동거점으로 하였다.<sup>52)</sup> 이처럼 청허계 최대문과 편양파는 三南으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특히 그 주류가 호남에 대거 진출하였다. 17세기 전반까지 호남지역은 같은 청허계인 소요파와 靜觀派, 그리고 부휴계의 주요 거점이었는데 17세기 말부터 편양파 주류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8세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sup>53)</sup> 이를 반영하여 조선후기에 호남은 ‘중국의 楚分과 마찬가지로 동방의 高禪을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sup>54)</sup> 영남과 함께 불교의 중심지였지만 특히 교학이 성행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청허 휴정의 동문 浮休 善修(1543-1615)의 법맥을 이은 부휴계는 처음부터 松廣寺를 거점으로 하여 호남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부휴의 수제자이자 남한산성 八道都摠攝을 역임한 碧巖 覺性(1575-1660)이 계파의 토대를 다진 후 그 손제자 栢庵 性聰(1631-1700)이 普照遺風의 계승을 내세워 자파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백암은 중국에서 들어온 불서를 대거 간행하여 조선후기 교학의 발전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하는데,<sup>55)</sup> 18세기에 화엄교학이 성행하게 된 것도 백

50) 閔昌道, 「普賢寺月渚堂碑銘」(李智冠 편, 2000,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 迦山佛敎文化研究院, pp. 314-315); 李德壽, 「大菴寺月渚大師塔銘」(『한국고승비문총집』, pp. 318-319)

51) 『振虛集』 권2, 「碧虛堂大師行跡」(『韓國佛敎全書』 10, pp. 174-175)

52) 상월새봉은 1750년 禪敎都摠攝主表忠院長을 맡았고 그의 탑은 선암사, 대둔사, 묘향산에 각각 세워졌고 비는 선암사, 대둔사에 건립되었다. 새봉의 동문인 南岳泰宇도 ‘受香山衣鉢 轉輪南土’ 라는 표현처럼 주로 남방에서 활동하였고 金山寺에 탑과 비가 세워졌다(『南岳集』 「序」: 趙龜命의 書).

53) 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54) 『霜月大師詩集』 「霜月大師詩集序」(『한국불교전서』 9, p. 591)

55) 김용태, 2006,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普照思想』 25, 普照思想研究院. 모운 진언과 회암 정혜가 교학으로 특히 유명하며 『華嚴經』과 『都序』, 「節要」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다.

암이 澄觀의 「華嚴經疏鈔」를 간행, 유포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默庵 最訥도 유명한 화엄 종장으로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편양과 蓮潭 有一과 불교 心性을 둘러싼 논쟁을 펼치기도 하였다. 부휴계는 벽암의 제자 暮雲 震言 이후 葆光 圓旻 — 晦庵 定慧를 거쳐 寒巖 性岸 — 秋波 泓宥 — 鏡巖 應允 — 智峰 巨機 — 月荷 戒悟로 이어지는 교학 계보를 낳을 만큼 조선후기 교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sup>56)</sup>

호남의 중심 사찰 가운데 하나인 白羊寺는 일찍부터 청허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청허 휴정의 제자이자 소요과의 조사인 逍遙 太能(1562-1649)이 출가한 절이 백양사였고,<sup>57)</sup> 그 문손들도 지리산 유역과 호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이후 편양과의 적전인 환성 지안이 백양사를 중창한 이후 18세기부터는 백양사의 주도권을 편양과가 쥐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환성의 문손이자 호남의 교학종장인 연담 유일이 활동한 18세기 후반부터 연담의 법맥을 계승한 이들이 백양사의 강맥을 전수하면서 강학의 전통을 세워나갔다. 이를 반영하여 백양사에는 청허, 소요 등의 탑비와 함께 연담의 비가 세워져 있다.<sup>58)</sup> 백양사의 강학은 연담의 제자 羊巖 啓璇(1757-1837)을 중심축으로 하여 19세기에도 확고히 계승되었다. 연담은 백양사에도 주석하였지만 주된 근거지는 대둔사였다. 그럼에도 백양사에 그의 진영이 봉안되고<sup>59)</sup> 20세기 초에 백양사에 비가 세워진 것은 양악 이후 연담의 법맥을 잇는 문손들이 백양사 강학을 주도하면서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표 1>은 18세기 이후 백양사의 강학 계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18세기 이후 백양사의 강맥



출처 : 佛學研究所편, 1997, 「講院總覽」, 曹溪宗教育院, p.84

56) 「諸經會要」 「佛祖宗派圖」 (「한국불교전서」 10, pp. 56-57)  
 57) 「東史列傳」 권2, 「逍遙宗師傳」 (「한국불교전서」 10, p. 1020)  
 58) 曼庵大宗師文集刊行會, 1997, 「백양사의 탑비부도」 「曼庵文集」, 白羊寺 古佛叢林, p. 353  
 59) 「동사열전」 권4, 「蓮潭宗師傳」 (「한국불교전서」 10, p. 1030)

백양사의 강학전통을 세운 양악 계선은 백양사에서 출가하였고 연담의 사형이자 화엄교학의 대가인 雪坡 尙彦과 대둔사의 유명 강사 雲潭 鼎日에게 경전을 학습하였다. 양악은 백양사 清流庵에 오랜 기간 주석하였지만 연담이 주관한 해남 表忠社의 守護 및 都摠攝을 맡기도 했고 ‘八道僧風糾正 禪教兩宗華嚴講主’로 칭해졌다. 양악의 강학 기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備忘記」 5권을 저술하고 「古文私記」 1권을 기록하여 講場에서 행하였으며 문집 2권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受恩’제자는 梵雲, ‘傳法’제자는 枕松 聖詢, 文谷 致成 등이며 ‘受戒’제자는 20여 명에 이른다. 양악의 4세 법손 寶鏡 友性和 應雲 性能의 주도로 그의 전각이 세워지고 향사되었으며 대둔사에도 탑이 세워지는 등,<sup>60)</sup> 연담과 양악의 법맥과 강학 전승을 매개로 한 백양사와 대둔사의 결연 관계는 오래 지속되었다.

양악의 강맥은 침송 성순을 거쳐 虛舟 德眞(德雲)에게 이어졌다. 허주는 처음 조계산에서 출가하였고 송광사, 선암사, 대둔사, 백양사 등 여러 곳에 주석하면서 持戒와 교화에 전력하여 影山 敬淳과 함께 당대의 선지식으로 손꼽혔다.<sup>61)</sup> 허주의 강맥은 다시 漢陽 龍珠와 華曇 法隣의 두 계열로 나뉘어 전해졌다. 먼저 한양 용주는 수원 龍珠寺에서 출가한 후 백양사로 옮겨왔는데 내외전을 두루 읽고 선과 교를 참학하여 백양사의 강맥을 이었다. 그의 전법 제자인 보경 우성과 응운 성능은 연담, 양악 등 5-6세 조사들과 스승 한양의 영각을 청류암에 세우고 진영을 모셨으며,<sup>62)</sup> 한양의 강맥은 응운과 翠雲 道珍, 幻應 坦泳을 거쳐서 만암으로 이어졌다. 한편 화담 법린은 여러 강원에서 교학을 두루 연찬하였고 계율 준수와 觀音呪力으로도 이름났으며 錦海 權泳에게 강석을 넘겼다. 금해는 한양의 제자 환응 탄영에게 화엄을 전수받았고 청류암에서 개당하여 백양사의 강학 전통을 계승하였다.

백양사의 역대주지 명단을 보면, 개산조 如幻 이후 17세 幻庵, 18세 龜谷, 21세 碧松 등태고 법통의 조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24세 주지는 많은 일화를 남긴 震默 一玉, 25세는 喚羊으로 되어있다.<sup>63)</sup> 이후 26세 逍遙 太能, 27세 白谷 處能, 29세 喚惺 志安, 30세 蓮潭 有一 등 소요과에 이어 편양과의 적전 계보가 주지 명단에 등장한다. 또 32세 羊岳, 33세 華月, 34세 枕松, 35세 道巖, 36세 鏡潭, 37세 漢陽, 41세 寶鏡, 42세 應雲, 43세 錦海, 45세 鶴山, 46세 西湖, 47세 幻應, 48세 曼庵, 49세 금해, 50세 만암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백양사의 강학을 잇고 강맥을 전수한 이들 중 상당수가 주지를 역임했음을 보여준다.<sup>64)</sup>

한편 백양사 강학 전통의 형성에는 연담 계통의 강맥 외에 또 다른 사상적 영향관계가 개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19세기 선 논쟁의 불씨를 지핀 白坡 巨璇(1767-1852)과 그 학맥을 계승한 이들이 백양사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말한다. 백파는 禪雲寺에서 출가한 후 지리산 靈源庵에서 당대 최고의 화엄종장인 설파 상언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26세에 雲門庵에서 개당하면서 백

60) 『동사열전』 권4, 「羊岳禪師傳」(『한국불교전서』 10, p. 1034)

61) 『동사열전』 권4, 「虛舟禪師傳」(『한국불교전서』 10, p. 1042)

62) 『동사열전』 권5, 「漢陽禪師傳」(『한국불교전서』 10, pp. 1053-4)

63) 喚羊은 山羊의 감화를 받았고 이때 사명을 白羊寺로 개명하였다고 한다(앞의 「만암문집」, p. 373).

64) 「백양사의 역대주지」(앞의 「만암문집」, pp. 353-354)



양사와 인연을 맺었다. 그가 백양사 강맥의 적자인 양악과 경전을 함께 강의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sup>65)</sup> 다만 백파는 설파가 주석한 靈龜山 龜岩寺에서 설파의 문손인 雪峰 巨日의 법을 전수받았으므로 법맥상 백양사의 연담 계통과는 거리가 있다. 비록 설파와 백파, 연담이 모두 환성 지안 계통의 편양파 주류였고 연담이 설파로부터 화엄교학을 수학하는 등 학문적인 사승관계를 이루기는 했지만 연담과 백파 이후의 법맥은 서로 갈래를 달리 하였다. 또 백파는 30년간 교학을 연찬하였지만 1812년 45세에 이르러 법의 眞諦가 문자 밖에 있음을 깨닫고는 講案을 거두고 선 수행에 전념하는 등 사상적 행보 또한 같지 않았다. 연담의 교학종장으로 시종한 것과는 달리 백파는 백양사에서 禪旨를 닦고 구암사에서 禪講 법회를 여는 등<sup>66)</sup> 禪門을 중흥한 호남의 禪伯으로 이름을 떨쳤다. 또 입적 후 백파의 탑과 秋史 金正喜가 찬한 비는 출가지인 선운사에 세워졌고 영정은 華藏(구암사)에 봉안되었다.<sup>67)</sup>

이처럼 백파는 구암사를 중심으로 선운사와 백양사를 활동무대로 하였고 교학에 뛰어나기는 했지만 선종 우위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그가 格外禪詮은 물론 華嚴法門에도 정통하였고 계율도 잘 수지하였기에 추사로부터 ‘華嚴宗主 大律師 大機大用’의 칭호를 얻기는 했지만,<sup>68)</sup> 만년 이후 백파의 관심은 오로지 선에 집중되었다. 그의 저술 면면도 「修禪結社文」, 「禪門手鏡」, 「(六祖)法寶壇經要解」, 「(禪門)五宗綱要私記」, 「高峰禪要私記」, 「禪門拈頌私記」 등 선의 종지를 선양한 것이었다. 즉 看話禪의 요체를 적시한 사집파의 「고봉선요」, 대교파의 「선문염송」, 그리고 환성 지안의 「선문오종강요」 등 선종 서책에 주로 주석을 붙인 것은 그의 선종 우위적 경향을 분명히 보여준다.<sup>69)</sup> 주저 「선문수경」에서는 臨濟宗이 선종 중에서도 가장 우월하며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은 낮은 단계의 것이라는 입장이 주종을 이룬다.<sup>70)</sup>

이에 대해 연담의 문손인 草衣 意恂은 선과 교가 법에서는 다르지 않으며 근기와 방편상의 차이만 있다고 하여 반박하였고 이후 세대를 이은 선 논쟁이 펼쳐졌다. 즉 초의의 「禪門四辨漫語」에 이어 부휴계 優曇 洪基의 「禪門證正錄」, 백파의 문손 雪竇 奉珙의 「禪源溯流」, 竺源 震河의 「禪門再正錄」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sup>71)</sup> 백파와 초의의 논점을 정리하면, 먼저 백파는 임제종을 최고의 위치인 祖師禪에 배당하고 다른 선종 계통은 如來禪에 배정하여 한 단계 낮은 위치로 설정하였으며 교학은 格外禪의 선종과 구분되는 義理禪 단계에 넣어 가장 낮은 차원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비해 초의는 선과 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양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조사 선과 여래선, 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격외선과 의리선으로 구분되며 이는 방편상의 설명일 뿐이지 차등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sup>72)</sup>

65) 「栢悅錄」 「白羊山淨土寺清流洞記」 (『한국불교전서』 10, p. 526)

66) 「少林通方正眼」 「行狀」 (『한국불교전서』 10, pp. 651-653)

67) 「소림통방정안」 「像讚并序」 (『한국불교전서』 10, p. 628)에는 雪峰의 達摩像이 백파와 닮아서 靈龜(龜岩, 華藏)山에 白坡像으로 모셨다 한다.

68) 金正喜, 「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銘」 (『한국불교전서』 10, pp. 628-633). 「行狀」에는 禪師로만 되어있다.

69) 忽滑谷快天, 1930, 「朝鮮禪教史」, 春秋社, pp. 498-499에 의하면 金剛山 神溪寺에 백파의 「太古歌釋」 등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70) 「동사열전」 권5, 「優曇講伯傳」 (『한국불교전서』 10, p. 1058)에서는 공선이 고려 말 眞靜國師 天頌의 「禪門綱要」 1권을 기초로 하여 「선문수경」을 지었다고 한다.

71) 김용태, 앞의 책에서 선 논쟁의 쟁점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조선후기에는 선교겸수의 방향에서 강학이 중시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특히 화엄교학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파는 선종의 수승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조선불교의 법통 및 수행기풍의 핵심인 임제종 간화선 우위의 선종 인식을 보인 것이었다. 그의 관점에서 교학은 단순한 입문 과정으로서 선종과 구분되는 하위 단계일 뿐이었다. 이에 비해 초의는 선과 교(화엄)는 근원에서 같으며 양자의 최고 경지는 동일하다는 선교일치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조선후기 교학 중시의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결국 양자의 논란은 임제종 정통주의와 화엄교학의 중시라는 전통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백파의 법과 사상은 설두 봉기(1824-1889)에게 이어졌는데 설두는 字인 有炯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처음 백양산 正觀 快逸에게 출가한 후 부휴계 枕溟 翰醒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선과 교를 함께 연마하였다. 白巖 道圓을 스승으로 삼아 조사인 백파의 법맥을 이었고 백파의 구암사 강회에서 직접 大教를 배웠다. 설두는 양주 天磨山 奉印寺에서 禪講大會를 열었고 백파의 유고를 수습하고 비와 전각을 세우는 등 추송 및 선양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sup>73)</sup> 설두의 저술로는 「禪源溯流」와 불교사서 「山史略抄」 등이 남아있는데, 「선원소류」는 백파를 비판한 초의의 「선문사변만어」와 우담의 「선문증정록」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백파사상에 대한 확고한 계승 의식을 보여준다. 설두의 법은 제자 雪乳 處明을 통해 한영 정호로 이어졌는데 이 계열은 선과 교를 아우르는 불교 전통의 근대적 계승 문제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 이처럼 백양사는 연담 계통의 법맥을 이은 강맥과 백파의 사상적 영향이 교차하는 접점이었고 양자가 공존하는 완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백양사의 강학 전통과 관련된 학승을 추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양과 월저도안 계통의 涵溟 太先(1824-1902)은 백양산 豐谷 德仁에게 출가한 후 道菴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부휴계 침명 한성에게도 수학하였다. 그는 스승의 臨濟宗觀을 강하기도 하였고 30년간 강석을 펼치며 화엄종주로도 명성을 떨쳐서, 양악과 백파를 이었고 설두와 당대의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들었다.<sup>74)</sup> 鏡潭 瑞寬(1824-1904)도 백양사에서 출가 후 구암사의 백파에게 내외전을 수학하여 제자가 되었고 침명 한성에게 계와 선을 배웠다.<sup>75)</sup> 또 淸峰 世英은 소요과 兒庵 惠藏의 4세손으로 대둔사에서 출가 후 범해 각안에게 배웠고 백양산의 경담과 한양, 구암사의 설두, 선암사의 함명 등 호남교학을 대표하는 종장들에게 두루 참학하였다.<sup>76)</sup> 호암 체정의 4세손인 晦山 普慧는 梵魚寺에서 출가하였지만 대둔사, 백양사, 송광사 등 호남의 유명 강원을 유력하며 참학하였고 화엄을 배우면서 초의와 시를 왕래하기도 하였다.<sup>77)</sup>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백양사는 호남의 강학을 대표하는 연담 유일과 백파 공선, 두 계통의 영향을 받으면서 호남교학의 중심사찰로서 위상을 굳혔고 그 강학 전통은 근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72) 김용태, 앞의 책 참조

73) 「동사열전」 권5, 「雪竇講伯傳」(「한국불교전서」 10, p. 1060)

74) 「동사열전」 권5, 「涵溟講伯傳」(「한국불교전서」 10, p. 1059)

75) 「동사열전」 권5, 「鏡潭講師傳」(「한국불교전서」 10, p. 1060)

76) 「동사열전」 권5, 「淸峯禪伯傳」(「한국불교전서」 10, p. 1073)

77) 「동사열전」 권4, 「晦山講伯傳」(「한국불교전서」 10, p. 1044)

## 2. 白羊寺 강학의 전수와 曼庵의 전통 인식

백양사의 강학 전통은 근대에도 계승되었는데 그 강학을 이은 대표자로는 幻應 坦泳, 漢永 鼎鎬, 曼庵 宗憲을 들 수 있다. 먼저 幻應 坦泳(1847-1929)은 14세에 고향인 고창 禪雲寺에서 출가한 후 백양산 운문암의 경담 서관에게 이력과정을 수학하였다. 이어 19세기 선 논쟁에 참여 하였던 구암사의 설두 봉기, 송광사의 우담 홍기에게 강학을 배우고 1877년 경담 문하에서 건 당식을 거행하고 法翁에게 傳講한 후 운문암에서 25년간 후학을 지도하였다. 1912년 30본산제가 시행되면서 백양사 본사의 제1대 주지가 되었고 1921년 제자인 玄鶴이 선운사 주지가 되면서 선운사 東雲庵으로 옮겨 주석하였다. 1928년 조선불교중앙총회의 교정으로 추대되었고 이듬 해인 1929년 입적하였다.<sup>78)</sup>

백양사 운문암에서 환응 탄영에게 사교과정을 수학한 한영 정호(朴漢永: 1870-1948)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어지는 禪敎 전통의 계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백파 공선 계통의 학맥을 잇는 근대 불교계의 학장이었다. 한영은 백파가 주석했던 백양사와 구암사, 그리고 선암사에서 四敎科와 大敎科를 수학하는 등 전통적 불교학을 두루 섭렵하였다.<sup>79)</sup> 그는 송광사 부휴계의 대표적 학승인 錦溟 寶鼎(1861-1930)과도 친분을 가졌는데 보정은 백양사 강원의 초청을 받아 강의하기도 하였다.<sup>80)</sup> 한영은 1910년 통합종단 圓宗의 대표자인 李晦光이 원종과 일본 曹洞宗과의 비밀 연합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반대하는 臨濟宗 운동을 韓龍雲과 함께 주도하였고 불교계의 정신적 자각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虛心博學, 勇猛精進, 忘我利生, 喜捨圓通, 好問廣益’을 제시하면서 선교 융합의 방향을 개진하기도 하였다.<sup>81)</sup> 이후 그는 불교고등강숙 및 불교전문학교 교장과 불교계를 대표하는 敎正을 지내는 등 학문과 교육뿐 아니라 교단의 현실 문제에도 참여 하여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환응에 이어 백양사의 2대 주지가 된 만암 종헌(宋宗憲: 1876-1957)은 백양사의 전통 강학을 계승한 이였다. 법호는 曼庵, 호는 牧羊山人이며 11살에 연담 유일의 후손인 백양사 취운 도진에게 출가하여 법을 이었고 구암사 강원에서 한영 정호에게 대교과를 수학하였으며 운문암의 환응에게 교학을 전수받아 23세에 그의 뒤를 이어 개강하였다. 32세인 1907년에는 海印寺에서 강의를 청해 와서 2년간 가르쳤는데 사교과와 대교과에 늘 50-60명이 수강하는 등 유명 강백으로 전국적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1910년에는 한용운, 박한영이 주축이 된 임제종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양사로 돌아와 淸流庵에 전통강원을 개설하였고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여 불교와 국사, 지리 등 내·외학을 함께 배우는 신식 교육기관으로 廣成義塾을 설립하였다. 이 때 환응을 方丈으로 모시고 스스로 學監으로 재임하며 교무를 총괄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숙의 학인이 늘 50-100명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1914년 백양사 주지가 된 후

78) 白羊寺一記者, 1929, 「故敎正幻應大禪師의 百日을 臨하야」 《佛敎》 64

79) 朴漢永은 「石顛文抄」(서울: 法寶院, 1962) 등의 저작을 남겼는데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80) 「茶松文稿」 권2, 「答映湖講伯求韻」: 「謝白羊山講狀書」(『한국불교전서』 12, pp. 723·728)

81) 朴漢永, 1912, 「佛敎講師와 頂門金針」 《朝鮮佛敎月報》 9, 朝鮮佛敎月報社: 1913, 「將何布敎利生乎」 《海東佛報》 2, 海東佛報社

의숙과 강원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1917년 절의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1927년에 1차 공역을 마쳤다.

1914년의 자료에서도 백양사에 專門講堂과 함께 신식 교육기관인 普通學校가 이미 개설되었음과 출신 승려 2명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사실이 확인된다.<sup>82)</sup> 사찰에 보통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統監府 시기인 1906년부터이며 1909년에는 華嚴寺, 泉隱寺, 泰安寺, 觀音寺가 연합 운영한 新明學校, 송광사의 普明學校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백양사에는 1910년 무렵 만암의 주도로 광성의숙이 설립된 것인데, 1913년 3월 22일 朴長照 등 5명의 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다음 해 3월 25일에 金性哲 등 2회 졸업생이 나왔다.<sup>83)</sup> 1915년 中央學林-地方學林 체제가 성립된 후인 1920년 자료에서는 광성의숙이 지방학림의 하나로 통계에 잡혀있다. 또 1918년의 기록을 보면 백양사 보통학교에 9명, 지방학림(광성의숙)에 5명이 재학하고 있었고 전문강원에는 14명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었다.<sup>84)</sup>

근대의 사찰 전문강원은 1910년 장단 華藏寺에 華山講塾이 개설되었고 1912년에는 서울 근교 興天寺와 용주사, 화엄사 등에도 강원이 만들어졌으며 1913년에는 仙巖寺의 불교전문강원, 佛國寺의 佛教講塾 등이 문을 열었다. 백양사의 전문강원은 만암에 의해 1910년 무렵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1928년에는 사미과 졸업생 1명, 사교과 수료생 7명을 배출하였고,<sup>85)</sup> 1937년에는 강주 朴峰霞의 지도하에 대교과, 사교과, 사집과, 사미과 과정에서 총 24명이 강원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된다.<sup>86)</sup> 한편 만암은 1922년에 上海에서 나온 대장경 220책을 구입하여 雲門禪院을 개설하였고, 이후 1928년부터는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교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인 1946년에는 광주에 淨光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학술전통의 계승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sup>87)</sup>

만암의 활동 중 더욱 특기할 만한 것은 1947년 백양사에 연 古佛叢林으로, 이는 선과 교의 수행과 계율 수지를 강조한 독자적 불교 정화운동이었다. 그는 해방 후 종맥의 계승의식이 부재하고 불교계가 식민지 체제에 안주하고 있다고 보고 교단 정화와 분열 극복의 방안으로 三寶 수호와 출가 전통의 계승, 불교의 토대 재정비를 내걸고 고불총림을 세운 것이었다. 총림의 노선에 동조하는 사찰에는 고불총림의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처음에 22개 사찰, 178명의 비구가 동참하여 시작하였지만 1950년 전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sup>88)</sup> 만암이 작성한 백양사 고불총림 淸規에는 승려 자격, 일과, 수행, 의무, 상벌, 재산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吾宗의 종맥은 臨濟의 문손으로 太古 普愚 조사의 전통을 계승하며 卽心卽佛의 哲理를 철저히 깨달아 얻고 선양한다”고 하였고, “법의 대중은 4부중이 철칙이지만 근래에 근기가 불순하

82) 1914, 「大正二年度各本末寺普通學校及專門講堂調査表」: 「大正二年度內地留學生調査表」, 《海東佛報》4, 海東佛報社

83) 「한국불교근현대강원연표」: 「강원교육관련자료모음」(「강원총림」, pp. 763-765: 807)

84) 「강원총림」, p. 807

85) 1918, 「三十本山付末寺僧尼及學生信徒數調」 《朝鮮佛教叢報》8, 三十本山聯合事務所, pp. 72-74: 1928, 「白羊本山專門講院의 成績發表」 《佛敎》52, 佛敎社

86) 「강원총림」, p. 99

87) 「백양사만암대종사사리탑비명병서」: 「연보약기」(앞의「만암문집」, pp. 309-316: 332-337)

88) 김광식, 2006,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여 비구중 가운데 正法과 護法の 2부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여 종맥을 천명하고 정화의 방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도제의 양성과 淨財의 저축을 위해 근로 소득으로 자력생활을 추구한다는 방안도 명시하였다.<sup>89)</sup>

만암은 1951년 方漢巖(1876-1951)에 이어 朝鮮佛敎 교단의 3대 敎正으로 취임하였고 1954년에는 새로 개칭된 曹溪宗의 宗正이 되었다.<sup>90)</sup> 앞서 1953년에는 교정으로서 ‘半農半禪’의 생활과 自作自給의 근로생활을 주장하였고 도시불교의 재흥과 대중화를 촉구하면서 주지와 포교사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戒命의 존속과 인물의 추대 및 교단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sup>91)</sup> 만암은 종정의 직책상 불교정화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는 일체에 빼앗긴 僧規를 해방 후에도 답습함은 한심하고 통분할 일이라고 분개하였고,<sup>92)</sup> 또 불교가 본래면목을 상실한 상태에서 개혁유신, 혁신정화가 매번 탁상공론으로 끝나므로 이제 의론의 시대를 지나 실천에 나서야 하는 위기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였다. <sup>93)</sup> 그는 현실적 정화방안으로 쟁투 없는 화합적 정화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대처 승려인 호법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청정비구인 정법승이 삼보사찰 운영부터 주도해 나가는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정화를 의미한다. 앞서 1939년에 있었던 禪學院 朝鮮佛敎禪宗의 정기선회에서 만암은 모범총림의 건설을 위해 지리산,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묘향산의 5대 명산의 전통사찰을 청정비구에게 할애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교무원 측에서 묵살하여 무산된 일이 있었다.<sup>94)</sup> 이는 그가 정화의 필요성과 명분에는 동의하였지만 대처가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없는 교단의 통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교단의 정화 추진과정에서 宗名の 개정과 宗祖 문제에 대한 논란과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의 승려대회에서 발의된 朝鮮佛敎 교단의 「敎憲」에는 “선과 교를 융섭하여 元曉의 大乘行願과 普照 知訥의 定慧兼修를 계승하며, 법맥은 太古 普愚 이하 淸虛 休靜, 浮休 善修를 잇는다”고 하여 원효, 보조의 상징성과 함께 태고법통과 조선후기의 법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sup>95)</sup> 이후 1954년 정화운동이 본격화되고 비구와 대처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조선불교는 다시 曹溪宗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총본사격인 태고사는 曹溪寺로 개명되었다. 그런데 당시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 비구 측에서 비구승대회를 열어 태고가 아닌 보조를 종조로 삼는다는 종헌 개정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때 종정을 맡고 있던 만암은 그에 대해 ‘換父易祖’라고 비판하고 종정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sup>96)</sup> 우여곡절 끝에 조계종 내의 종조 논란은 초조 道義, 중흥조 태고 위에 보조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논의가 귀결되었다.<sup>97)</sup>

89) 「백양총림청규」(앞의 「만암문집」, pp. 187-188)

90) 「강원총림」, pp. 96-97

91) 「새로운 면목」(앞의 「만암문집」, pp. 217-221). 이 내용은 제12회 정기중앙교무원회 유시에서도 보인다.

92) 「총무원 法座에 보낸 편지」(앞의 「만암문집」, p. 209)

93) 「宗正訓諭」(제14회 중앙종회, 1954년 11월 20일)

94) 박애숙, 2009, 「蔓庵 宗憲 研究」,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논문, pp. 65-66

95) 김상영, 2008,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 「불교 정화운동의 재조명」, pp. 160-162의 「朝鮮佛敎敎憲」 敎旨와 傳燈.

96) 김상영, 앞의 논문, pp. 168-171

결국 1962년에 만들어진 大韓佛敎曹溪宗의 「종헌」 1조에는 “道義國師에서 기원하여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 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공칭함”이라고 확정되었다.<sup>98)</sup> 또 6조에서는 “曹溪 慧能의 법을 전수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태고국사를 중흥조로 하며 청허와 부휴의 법맥을 계승한다”고 하였다.<sup>99)</sup> 이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개조 도의, 중천조 보조, 중흥조 태고의 종조관을 확립하고 태고 이후 조선후기 법맥으로 이어진 태고법통의 정통성을 표방한 것이다. 이처럼 조계종과 태고법통의 결합은 실제의 역사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한국불교의 전통을 종합, 계승한다는 통합적 역사인식의 발현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종명 및 종조 문제는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많은 주장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송광사의 금명 보정은 1920년 무렵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하여 조계종과 보조종조론을 선구적으로 제창하였다. 금명은 부휴계의 법맥을 이었지만 백양사의 허주 덕진이나 『東師列傳』의 저자 범해 각안, 함명 태선 등 편양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수학하였다.<sup>100)</sup> 금명의 비문 陰記에는 受業門生 대표, 제자, 손제자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 중 수업문생으로 당시 송광사의 주지이자 뒤에 『松廣寺誌』를 편찬한 綺山 錫珍(林錫珍: 1892-1968)과 만암 종헌이 대표자로 수록되어 있다.<sup>101)</sup> 또 비의 「贊助記」에는 송광사는 물론 금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던 大興寺(대둔사), 백양사, 화엄사 등의 사찰명이 적혀 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總本山 건립운동이 일어났고 1941년 기존의 朝鮮佛敎禪敎兩宗이 曹溪宗으로 개칭되면서 총본사 太古寺가 건립되었는데, 당시 임석진이 총본산 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만암도 건설위원회 고문을 역임한 후 조계종 종무고문이 되었다.<sup>102)</sup> 이들이 금명의 수업문생 대표였고 또 금명이 조계종을 적극 주창하였음을 고려하면, 조계종 인식의 확산과 종명 추진에 만암 또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30년에는 방한암이 海東初祖에 대한 글을 발표하여 도의를 초조로 내세우고 조계종과 보조정통론을 강조하면서 태고를 중흥조로 위치시켰는데,<sup>103)</sup> 이후 조계종의 정통성 및 도의초조설은 학계 및 교계에서 확산, 인정되었다. 만암 또한 1954년 종명이 조계종으로 다시 개칭될 때 종정을 맡은 만큼 조계종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주도한 1954년 6월의 조계종 종헌개정안에는 종조 도의-중흥조 태고-청허·부휴의 법맥 계승이 명시

97) 김상영, 앞의 논문, pp. 178-184 참조. 한편 김광식, 2010, 「한암의 종조관과 도의국사」 『한국 현대사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p. 558에서는 1954년 도의가 종조로 내세워졌다고 밝혔고 2010, 「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였다. 또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에서 曹溪宗 종헌이 반포된 이후 위작된 「朝鮮佛敎禪宗宗憲」의 〈宗名 및 宗旨〉에서도 “本宗은 신라 道義國師의 迦智山門에서 기원하여 고려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서 禪宗이라 공칭하고 이후 종맥이 이어져왔다”고 하였고, “도의를 종조, 태고보우를 중흥조로 하여 이후 淸虛와 浮休의 양 법맥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당시의 종조 논의를 집약하고 있다. 「조선불교선종종헌」이 1935년이 아닌 1955-1963년 사이에 위작되었다는 사실은 김순석, 200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pp. 143-144에서 밝혔고 이후 연구에서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

98) 敎育院佛學研究所, 2001, 「曹溪宗史 近現代篇」, 曹溪宗敎育院, pp. 223-224의 大韓佛敎曹溪宗 〈宗憲〉 중 第1章 宗名 및 宗旨.

99) 李鍾益, 1976, 「大韓佛敎曹溪宗中興論-民族精神文化復興論」, 寶蓮閣, p. 11에서는 이 曹溪宗憲이 張龍瑞가 기초한 원안에 의거한 것임을 밝히고 도의 종조, 태고 중흥조는 허구라고 비난하였다.

100) 김용태, 2006, 「금명보정의 부휴계 정통론과 조계종 제창」 『韓國文化』 3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1) 「華嚴講主錦溟堂大宗師碑」(『한국고승비문총집』), pp. 872-875)

102) 金光植, 1996, 「韓國近代佛敎史研究」, 民族社, p. 431

103) 方漢巖, 1930, 「海東初祖에 對하여」 『佛敎』 70, 佛敎社

되었고, 보조정통론에 대한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9월에 열린 선학원 전국비구승대회에서는 태고 대신 보조를 종조로 내세워 종헌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만암은 환부역조라고 격렬히 비판하며 종정직을 사임했던 것이다.<sup>104)</sup> 그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는 한편 「太古門孫保宗會趣旨」를 직접 쓰고 太古寺의 신축을 추진한 점,<sup>105)</sup> 그리고 九河에게 道義影堂의 제액 글씨를 부탁하여 백양사에 도의영각을 건립하고 진영을 봉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sup>106)</sup> 종명 조계종, 초조 도의, 태고법통의 정통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만암이 1956년에 쓴 글에서 “대통령 유시 이후 비구가 쫓기하여 대처승은 물론 태고를 종조로 삼는 독신승을 배척하고 종조 태고선사를 말살하여 보조국사로 바꾸니 이에 전국 승려가 분규를 일으키게 되었다. 보조과 비구를 정부에서 비합법적으로 후원하면서 종래의 합법적인 종단 영도권과 재산을 강압적으로 인계하고 200여 비구가 종단의 운영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다투니 종단 및 1700개 사찰 운영이 어려워지고 불미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 것은,<sup>107)</sup> 당시 태고, 보조의 문제가 단순한 종조론이나 전통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정화과정에서 일어난 종단의 주도권 및 이권 쟁투, 정치권력의 개입과 명분 및 상징성 획득과 맞물린 치열한 현실문제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만암은 위의 글에서도 수행승(비구)은 수행과 함께 종단 및 중요 사찰의 운영을 맡고 교화승(대처)은 사업운영 및 포교를 주로 담당하여 승단 화합과 상부상조를 이룰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그의 평소 지론이었던 理判(정법승)과 事判(호법승)의 공존을 거듭 표명한 것이었다. 이처럼 만암은 종조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구나 대처의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았고 수행비구의 명분상의 우위와 현실적 권한을 인정하면서 선과 교, 수행과 교화의 공존을 추구한 것이다.<sup>108)</sup> 그가 1950년에 쓴 自敘에는 “선과 교를 섭렵하여 출가의 본래 취지를 대충 판별하였고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 겨를이 없었지만 공을 위해 진력하였다”고 하여,<sup>109)</sup> 교단의 화합과 공생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104) 박애숙, 앞의 논문, pp. 75-76

105) 「太古門孫保宗會趣旨」: 「宗團回復 遲速에 대하여」(앞의 「만암문집」, p. 256: 243)

106) 앞의 「만암문집」, p. 211: 343

107) 「대한불교 문제에 대한 제언」(1956년 2월 15일) (앞의 「만암문집」, pp. 234-237)

108) 「현 비구승단에 고함」(앞의 「만암문집」, pp. 238-240)

109) 曼庵大宗師文集刊行會, 1997, 自敘略歷(1950년 作), 曼庵文集, 白羊寺 古佛叢林, pp. 256-257



[논 평]

## ‘白羊寺 강학의 계승과 曼庵의 전통 인식’을 읽고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조선후기 불교는 근.현대불교의 근원성을 밝혀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잃든 좋은 오늘날 불교 전통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이 조선후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고 가장 많은 문헌자료와 미술자료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억불을 당하여 불교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다행히 2000년대 이후 조선후기 불교 전공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발표자(김용태 교수)는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불교 문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임제법통과 교학전통을 밝혔고, 더 나아가 연구 범위를 넓혀 근대 불교에 대해서도 좋은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문은 그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백양사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강학 전통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연장선에서 근대 만암 스님의 활동을 조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寺誌나 문서들을 통해 각 사찰의 강학 전통이나 그 사찰에서 배출된 禪僧 내지 學僧의 활동을 파악하고 아울러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전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조선후기 불교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논평을 맡은 저 역시 조선후기 불교사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러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발표문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논평자도 공감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논평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1. 논자는 소요 태능 스님이 출가한 절이 백양사라고 하였는데, 「소요당집」에서 “年甫十三遊白羊山 觀物外境 便有出塵之志 依眞大師薙鬚”라고 하여 백양산이라고만 표현하였고, 백양사라고 하는 명칭은 19세기 이후에 보인다. 현재 백양사 자리는 18세기까지 정토사로 알려졌던 사찰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태능 스님이 출가한 사찰을 현재의 백양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2. 논자는 만암 스님이 1947년에 개설한 古佛叢林을 독자적인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출가 전통의 계승, 불교 토대 재정비를 위해 고불총림을 세웠다고도 하였다. 즉 고불총림은 불교 정화운동으로서 출가 전통의 계승과 불교 토대 재정비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당시 고불총림의 어떤 모습이 정화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는지 부연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古佛叢林’이라 이름 붙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3. 만암 스님은 현실적으로 교단 내에 청정비구인 정법승과 대처승인 호법승의 존재를 인정하고, 점차 청정비구 교단을 건설하기 위해 단계적 정화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정이었던 만암 스님의 주장은 논란만을 야기한 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표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4. 만암 스님은 선학원을 중심으로 보조 지눌을 宗祖로 삼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換父易祖’라고까지 하였다. 만암 스님은 初祖를 도의 국사로 추대하고, 태고 보우를 宗祖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만암 스님이 생각하는 初祖와 宗祖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보조 지눌에 대한 만암 스님의 관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한다.
5. 만암 스님은 임제종 법통을 강조하면서 태고종조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전통을 고수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만암 스님은 교육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임제종의 선사이면서 사찰에는 강원을 개설하고 사회에는 보통학교를 창립하였다. 그렇다면 임제종 선사인 만암 스님의 교육사업이 임제종의 본분에 합당한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白羊寺 강학의 계승과 曼庵의 전통 인식’ 을 읽고 -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3주제]

##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 1. 서 언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는 불법의 발현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고투한 고승이 적지 않다. 최근 이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서 근현대 고승에 대한 자료발굴, 분석, 의미 부여 등의 학술적인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고승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성격은 서서히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통해 근현대 불교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 추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고승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보다는 작금의 불교가 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대상자 중에서 주목할 인물이 蔓庵 宗憲(1876~1956)이다.<sup>110)</sup>

만암은 일제시대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본사인 백양사를 중창한 주역이었다. 그리고 그는 백양사에서 구학과 신식학문을 결합시킨 廣成義塾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전의 초대 교장을 역임한 불교 교육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나아가서 그는 해방공간에서 古佛叢林이라는 자생적인 수행공동체를 결성, 운영하였다. 고불총림은 백양사와 전라도 일대의 사찰에서 동시에 실천된 불교정화를 지향한 결사체이었다. 또한 만암은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종단적인 차원의 자생적인 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암은 불교정화운동의 회오리가 거세었던 와중에서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고수하는 換父易祖論을 주장하여, 비구승측과 결별하였다. 이 무렵 만암은 비구승, 대처승이 다 함께 추대한 조계종단의 종정의 직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만암이 갖고 있는 역사성, 다양성은 필히 주목,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암을 연구한 성과물은 희소하였다. 수년 전 필자는 불교정화의 개요를 정리하는 일환으로 고불총림의 개요 및 성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고찰, <고불총림과 불교정화>를 발표하였다.<sup>111)</sup>

110) 만암의 연구가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던 원인은 백양사(문도)에서 역사 정리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불교정화운동을 강경노선 중심의 역사 위주로만 정리한 것도 거론할 수 있다. 즉 온건노선, 현실 인정을 고려한 만암의 노선은 배척받은 것이다. 그러나 백양사에서 「만암문집」(1967)이 발간되었고, 이를 수정 보완한 「만암문집」이 불기 2541년에 발간되었다. 그리고 「고불총림 백양사」(1996)라는 약식 자료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111) 필자의 논고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의 학술지인 「불교사연구」 45합집(2004)에 기고된 <고불총림과 불교정화>이었다. 그 후, 이 논고는 필자의 저서인 「한국현대불교사연구」(불교시대사, 2006)에 재수록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속 연구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이제 만암이 활동하였던 사찰인 백양사가 주최하는 이런 학술 현장에서 만암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많은 생각이 뒤따름을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추후에는 만암 자체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만암 연구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배경과 전제에서 본 고찰을 통하여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을 정리하려고 한다. 만암의 불교활동, 가람수호, 불교정화에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내재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선농일치 사상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암이 남긴 자료 중에서 선농일치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논지 전개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만암의 행적을 전하는 단편적인 자료 및 증언, 고불총림의 규칙 등에 보이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자료의 행간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편린들이 갖고 있는 역사와 사상을 추출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 고찰이 만암연구 및 선농일치 연구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 만암의 선농일치 내용

### 1) 백양사 역사에 나타난 만암의 자급자족, 반농반선

만암은 1876년 고창군 고창읍의 중거리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에는 私塾에 나아가 한학을 수학하다가, 11세(1886)에 이르러 백양사로 입산 득도하였다. 은사는 翠雲 道珍이었는데, 사미계를 받은 후 즉시 백양사 강원에서 幻應 강백에게 강학을 이수하였다. 16세(1891)에 접어들면서 龜岩寺의 전문강원으로 가서 박한영에게 교학을 더욱 이수하였다. 그후에는 해인사, 선암사 강원에서 강학을 이수하였다. 그후 만암은 23세(1898)에는 백양사 운문암에서 幻應 강백의 뒤를 이어 강사가 되었다. 만암은 국운이 위태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인들을 이끌고 청류암, 백련암, 천진암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후학을 양성하였다. 1907년(43세)에는 해인사 강원의 강사로 취임하였다. 국권을 일제에게 강탈당하자 만암은 1910년에는 청류암에 친구교육을 원용적으로 절충한 廣成義塾을 설립하여 학감으로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렇듯 만암은 청년시절에는 강원에서 교학을 수학하였고, 그 이후 중년에는 강사로 근무하였다.<sup>112)</sup>

이런 강학 중심의 이력의 이외에도 만암의 참선수행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sup>113)</sup> 일부 기록에는 만암이 운문 선원에서 25세(1901)부터 32세(1908)까지 참선수행을 하였다고 나오고,<sup>114)</sup> 「고불총림 백양사」(1996)의 생애편에서는 1902년 백양사 선원

112) 「만암문집」(불기 2541년, 고불총림) 332~347면의 〈年譜略記〉와 「고불총림 백양사」(1996)의 생애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그런데 백양사에서 발간한 이런 자료에는 만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력의 내용에서 일관성 부재, 근거 부재 등이 심하다. 추후에는 착오, 오류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113) 그런데 퇴경 권상로가 찬한 「만암문집」〈大韓佛敎曹溪宗 第三世大正 大本山 白羊寺 第五回重創主蔓庵大宗師 舍利塔碑銘并序〉에서는 1901년 여름부터 面壁安居하여 禪旨를 참구한지 무릇 10년이었던다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이가원은 〈大正蔓庵大宗師 舍利塔碑銘并序〉(「만암문집」)에서 책을 짚어지고 諸邦을 유력하며 教義를 연구하였고, 面壁觀鼻하면서 禪의奧旨를 참구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런 내용은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114) 「현대불교」 2호(1960.1), 〈만암 송종헌 대종사의 생애〉.

에서 5夏를 보내고 이어 운문선원에서 5하를 성취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sup>115)</sup> 그렇지만 만암은 教는 佛의 말씀이요, 禪은 佛의 마음이라고 밝히면서, 禪이 곧 教요, 教가 곧 禪이라고 하였다.<sup>116)</sup> 이러한 만암의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만암 선농일치 사상의 본질을 조명하는 것이 본 고찰의 초점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만암의 이력 및 불교관을 고려하면서도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이 배태는 전통적인 선원에서의 참선수행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백양사를 중창시키는 고투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자 한다. 만암은 백양사의 5대 중창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제하의 불교에서 백양사의 사격을 진작시킨 인물이다. 사격을 진작시켰다는 함은 만암이 백양사 주지를 맡으면서 백양사의 중흥, 불사 등을 단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만암은 1916년부터 일제말기까지의 27여년간 총 7차례의 주지로 근무하였다. 그 기간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17)</sup>

1916. 7 ~ 1920. 12  
 1920. 12 ~ 1923. 12  
 1923. 12 ~ 1927. 10  
 1930. 11 ~ 1933. 12  
 1934. 1 ~ 1937. 3  
 1939. 11 ~ 1943. 6  
 1943. 6 ~ 1945. 8

일제하 36년의 백양사 주지의 대부분을 만암이 소임을 보았던 것이다. 만암이 주지 소임을 보지 않은 것은 초대 주지인 환응의 기간(1911~1916), 유금해가 보았던 기간(1927~1930), 전경충과 김만응이 보았던 기간(1927~1930, 1937~1939)에 불과하다. 만암은 이처럼 장기간의 주지 소임을 보면서 백양사를 재건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재건 불사를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의 본질에 선농불교가 있었다 하겠다. 필자가 말하는 그런 내용의 단서는 「만암문집」의 <年譜略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만암의 自敍 이력에 근거하여 문암 문도들이 정리한 내용이다. 즉 백양사 역사에 구현된 만암 역사의 요체이다.

지금으로부터 사십년 전 白羊寺는 荒涼한 폐허에 瓦家 一棟과 草屋 一棟만이 남아 있었다. 師는 백양사를 중건하고자 甚深한 願力으로 一絲不亂하게 精進하던 중 여러차례 山中會議를 주관한 지 數十餘 星霜을 지나 師의 계획한 중건 불사가 서기 1917년 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막을 열었다.

115) 「만암문집」에 수록된 <年報略記>는 만암의 自敍와 문도들이 그 외 기록을 참고하여 정리한 연보인데, 이곳에서도 만암의 공식적인 참선 수행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116) 「고불총림 백양사」 1996, 133면의 <經藏門>. 만암의 禪教에 대한 입론은 「回光」 창간호 6면의 <奇學人諸君>에서도 찾을 수 있다.

117) 이 근거는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上下」(조계종총무원, 2001)에 적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물론 山中 諸德의 歸一한 願力과 信徒 諸位의 지극한 誠力이며 또한 社會 有志의 아낌없는 援助가 結集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그 가운데는 師의 法力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師의 法力과 願力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緣化의 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건 공사를 개시한 지 만 10년이 되던 서기 1927년에 이르러 제1차의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중건 불사를 이루자면 경제력의 결핍으로 난관에 봉착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師는 左記와 같이 관광안내에 중건 불사 회사수입의 계획을 세웠다. 118)

즉 주지에 취임한 다음해부터 10여년 간의 중건 공사를 개시하여 1927년에 1차 공사를 마쳤던 것이다. 이 같은 공사가 가능하였음은 만암의 법력, 원력에 산중 대중과 신도대중의 협조가 더해진 결과이다. 만암은 그 이후 8·15해방까지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백양사 중창불사를 성사시켰다. 그러면 만암이 주지 소임을 27년간 보면서 백양사 재건불사를 가능케 한 구체적인 사찰공동체의 운영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이 自給自足の 이념과 半農半禪으로 표현된 禪農一致 사상이었다.

師는 自給自足の 理念을 내세워 寺內의 僧侶와 信徒로 하여금 草鞋·竹器의 製造와 養蜂의 講習 등을 獎勵하고 또 半農半禪으로 自耕을 實施하는데 全心血을 傾注하였다. 119)

즉 만암은 自給自足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승려와 신도들을 재건불사라는 목표를 향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만암은 사찰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草鞋·竹器의 제조 그리고 양봉의 강습 등을 실천하였다. 나아가서는 半農半禪으로 사찰의 농지를 자경하였다. 이런 모든 활동은 중창불사에 모아지고 있었다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만암은 백양사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자급자족, 반농반선의 자경으로 자립적인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등공양, 검소한 생활이 구현되었다. 그래서 만암은 이런 자급자족, 반농반선을 통해 나온 재원을 갖고 재건불사를 가능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師가 오랫동안 駐錫해 온 白羊寺는 山內 寺庵과 함께 연중 수입이 양곡 四十石에도 미치지 못함에 師는 寺院을 유지할 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찰 전답을 승려들이 직접 경작하게 하였다. 이 같이 하여 얻은 수입은 절대로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하고 寺中 재산으로 취합하게 한 결과 四十石에 불과하던 백양사 재산이 약 八百餘石에 達하였다. 이같이 半農半禪 제도를 확립하여 師가 주지로 취임하였던 一九一四년에는 수칸의 요사채 밖에 없던 황폐한 사찰을 새롭게 重修하여 湖南 屈指의 巨刹로 一新하였다. 120)

그래서 만암은 백양사 중창불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즉 자급자족의 이념, 반농반선의 활동으

118) 「만암문집」 336~337면.

119) 위의 책, 344~345면.

120) 위의 책, 346면.



로 단합된 사찰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심으로 40석의 수입이 80석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암이 백양사 중창불사를 가능케 하였던 역사의 이면에는 자급자족, 반농반선이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만암과 백양사의 역사는 최근 까지는 백양사에 연고 있는 승려들의 보편적인 역사이었다.

## 2) 일제하 자료에 나타난 만암의 선농일치

백양사 역사에 투영된 만암의 자급자족과 반농반선이 일제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하의 대표적인 불교 잡지인 「佛敎」79호(1931.1)에는 활발한 불교사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안진호의 <白羊과 白羊寺>라는 기고문이 전한다. 이 글은 1920년대 후반 백양사를 현지 방문하여 쓴 글로 이해된다. 1920년대 백양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근대기 백양사 연구에 귀한 자료이다. 그 글의 내용중에는 '白羊의 模範'이라는 단락이 있다. 그 내용은 看話로 本位, 齋式의 如法, 齋式에 美風, 生活의 統一 등이다. 이 중에서 재식의 여법과 미풍은 재(제사)를 지냄에 있어서의 법도, 절도, 전통 고수 등에 대한 것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간화로 본위'와 '생활의 통일'이다. 여기에서 먼저 看話 관련 내용을 적시한다.

### 看話로 本位

當寺는 主客老少를 못지 안코 入寺 즉시로 看話 本位이다. 더욱이 冬夏安居에 末寺 住持 全部를 招待하여 一箇月間 面壁 家風을 宣揚하니 누가 보던지 靈山威儀가 그대로 옮겨 왔다 할 것이다.<sup>121)</sup>

백양사에 거주하는 주객, 노소를 막론한 승려들은 사찰에 들어가기만 하면 간화 본위로 수행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안거, 하안거 시에는 백양사의 말사 주지들도 1개월 간의 면벽참선을 하는 것이 가풍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백양사가 간화선풍이 고양되었다는 함은 여타 본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이다. 이런 간화선풍의 중심에는 당시 주지이었던 만암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는 생활의 통일을 살펴 보겠다.

佛制에 僧伽는 乞食主義이다. 世降聖遠함으로 叢林自炊制가 생겼으나 十方檀施의 常主物으로써 共同生活을 마련한 까닭에 支那는 아즉까지 個人 營計가 없다 한다. 우리 槿域은 각자 準備임에 斗池擘斂이 없는 寺院의 擊鼓收米할 때는 독값이 斗量을 演出하지마는 白羊은 圓融制度를 採用하여 在寺人衆은 죄다 寺米로 糧道을 삼고 個人 自營은 그만 두어라 道場 菜田도 雇軍으로 共同饑需를 準備할테니 個人 設力은 아예 말어라 그 대신 活句提撕에 盡力하면 그만이다. 晨朝에는 죽도 썬어먹고 正午에는 白飯齋供이며 夕供에는 時期를 닦아 麥粟豆太 等を 和米以食하니 經濟 衛生 等 어느 方面을 보와 아니 조흔 것이 없다. 爭之不足이요 讓之有餘라. 그러타고 個人 살림살이의 寺院보다 糧米缺乏을 보지 안코 언제나 盛況을 이루고 있다.<sup>122)</sup>

121) 「불교」 79호(1931.1), 86면.

위의 내용은 백양사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그 요체는 백양사는 圓融制度를 채용하여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하에서 寺中의 대중은 개인적인 경영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찰의 대중승려들은 오직 活句 제접 즉 간화선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백양사의 공동경작, 공동식사를 하는 관행은 경제와 위생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백양사는 모든 생활 자체를 공동적인 원용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1920년대 후반 무렵의 백양사의 원용생활도 만암의 주관, 의지, 뜻과 무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1926~27년 무렵 만암의 백양사 주지로 근무 당시의 정황을 전하는 기록을 제시한다. 이런 기록은 위의 정황의 직전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1920년대 중후반 만암과 백양사의 움직임은 살필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불교」 31호(1927.1)에 李能和가 기고한 <朝鮮佛敎의 三時代>에서 백양사 및 만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내용은 필자의 시선을 집요케 한다.

去年 冬間에 余는 全羅南道 長城郡에 在한 禪敎兩宗大本山 白羊寺를 巡禮하야 본 일이 있다. 當寺의 淸衆은 住持 宋蔓庵和尚의 導率下에 在하야 和合一致되야 公同心力으로써 一大 伽藍 法堂 寮舍 其他을 一新 建築하야 노코 그 淸規를 直힘에는 朝夕禮佛 · 一堂會食 뿐만 아니라 비록 小沙彌일지라도 法衣를 입지 안코는 朝夕供養에 參與을 不許하며 工課를 함에는 晝參夜參의 禪風과 四敎 大敎의 淸規를 嚴格로 行함을 보고 余는 心中에 實地 所見이 表面所聞과 相異함을 느꼈다. 그리고 朝鮮 各寺가 이와 가튼 風規를 直히는 줄을 알겠다. 佛敎의 主人인 朝鮮僧侶의 現下 狀態는 上述과 如하니 이것으로 보아서 佛敎 前途의 發展되야가는 것을 確信한다.<sup>123)</sup>

이능화가 1926년 겨울, 백양사를 순례하여 쓴 이 기고문은 현지 실정을 정밀하게 묘사한 탐방기이다. 비록 압축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당시 백양사 사정, 만암의 뜻이 잘 나와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주지인 만암을 중심으로 백양사 대중들이 일체 단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백양사는 화합일치, 공동합심으로 가람불사를 성공리에 단행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나아가서 백양사에는 대중들이 지켜야 할 청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키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주야로 참선정진을 하는 선풍이 간단치 않고, 강원에서의 수학도 청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전한다.

이와 같은 1926년의 백양사 상황은 주지인 만암을 중심으로 가람불사 재건,<sup>124)</sup> 수행풍토 진작이 여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런 상황은 「불교」 36호(1927.6)에서 전하는 백양사의 부처님 오신날의 성황과 유사하다.

122) 위의 자료, 86~87면.

123) 「불교」31호(1927.1), 11면.

124) 만암의 가람불사에 말사 및 신도들이 흔쾌하게 동참함은 「불교」 63호(1929.9), 50~51면에 자세히 나온다.

全南 長城郡 白羊寺는 湖南의 名勝일뿐 아니라 現 住持 宋宗憲死의 努力을 싸아서 中興의 大吉運과 大令聞이 喧藉한 곳인데 今年의 聖誕記念은 侍輦, 開式, 加侍, 上供, 參拜, 回向 等 式順대로 舉行한 후 午正에 至하여는 一切 觀衆의 증식을 支供하였는데 飯米로 五十斗 이상을 消費하였으며 午後에는 餘興을 開催하여 同寺 勞動獎勵會의 角觥(싸름)이며 青年信徒의 거행하는 八相劇이 잇서서 世尊의 一生의 聖蹟과 一代之 敎理를 宏壯히 宣傳하여 遠近 觀衆의게 多大한 印象을 주었더라(장성)<sup>125)</sup>

즉, 백양사 부처님오신날 을 성대하게 치른 것은 만암의 사찰 중흥이라는 기반하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된다. 백양사의 넉넉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부처님 오신날의 행사를 거창하게 치를 수 있었고, 그리고 행사에 동참한 신도 및 관중에게도 성의있는 배려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1920년대의 백양사는 만암에 의하여 가람불사 회향, 수행풍토 진작, 승속일체의 결속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백양사를 움직여 나가는, 백양사를 일신한 만암의 사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즉 만암의 지도력과 불교사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요컨대 만암 불교사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본 고찰의 초점인 선농일치 사상을 주목하려고 한다. 이런 필자의 관점을 설명해주는 기록으로 김소하(대은)가 「불교」63호(1929.9)에 기고한 <南遊求道禮讚>이 있다.

나는 두 碑文을 어름어름 더듬어 읽어 마친뒤에 다시 큰절(필자 주, 백양사)에 드러와서 본즉 三代藏敎가 盡在此間이라는 말을 腐儒로 하여금 公發케 할만치 寺規가 嚴肅하고 僧風이 整然하다. 會僧堂 禪院에는 三十餘名의 禪客이 拄杖跏趺하여 禪三昧에 드러 잇고 香積殿 講院에는 十餘名의 學人이 義學을 깨고 잇다. 그리고 寺內에서는 어떠한 僧侶라도 法衣가 아니고는 出入을 不得케 한지라 事務員까지라도 法衣를 常着하고 잇는 모양이며 宋蔓庵禪師의 主義가 晝經夜禪 或은 晝耕夜禪의 主義라 어떠한 사람을 勿論하고 晝間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白羊山에 居住한 僧侶로는 朝暮 焚修시에 一時間 或은 二時間式 꼭 入定 坐禪케 한다며 그대로 꼭 實現한다. 그리고 宋禪師께서도 一髮만한 差違도 업시 낫이나 밤이나 禪定에 드러 잇스며 初學으로 하여금 至誠으로 參禪을 권한다고 한다.

그리고 寺內의 어떤 禪德은 宋禪師를 가르켜서 開心道人이라 하며 牧羊道人이라고 한다. 終日 痛哭에 不知何 마누라 喪事며 盡到 長安에 問長安의 格으로 覺皇寺에서 二個年이나 朝夕으로 親侍하며 同卓飯食하든 宋禪師께서 道人이시고 善知識이신 것을 모르다가 白羊山에 와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宋禪師의 功勳이 白羊山 有功할 뿐만 아니라 朝鮮佛敎界에 有功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중략) 백양사는 僧俗간에 누가 와서 보든지 歡喜心이 날만한 三寶住持의 大伽藍이며 善知識이 住할만한 大道場이다. 朝鮮寺刹을 다 보지 못한지라 輕輕히 말할 수는 업스나 나의 본 範圍內에서는 確實히 白羊寺가 全朝鮮의 模範寺刹이라고 推薦하기를 躊躇치 아니 한다.<sup>126)</sup>

125) 「불교」36호(1927.6), 34면.

126) 「불교」63호(1929.9), 49~51면.

김소하가 백양사를 탐방하여 기고한 이 글에도 위에서 살펴본 백양사 및 만암의 실상이 여실히 나온다. 우선 백양사가 寺規가 엄숙하고, 僧風이 정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암의 주의를 "晝經夜禪 혹은 晝耕夜禪"으로 표현한 것이 주목된다. 백양사의 모든 대중은 낮에는 밭은 바의 소임이나 경학을 배우드라도 아침과 저녁의 예불시간에는 꼭 1~2시간의 입정 좌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암의 핵심적인 백양사 운영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참선, 입정을 함은 주지인 만암도 조금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정황에서 필자는 만암의 불교사상의 핵심, 바탕이 참선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만암의 참선은 참선 지상주의, 참선 유일주의가 아니었다. 만암의 참선은 농사, 경학을 하면서 겸행하는 참선이었다. 요컨대 선을 하면서도 다른 일(소임, 경학)을 함께 하는,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요컨대 선농일치이었다.

그런데 만암이 언제부터 이와 같은 晝經夜禪, 晝耕夜禪, 半農半禪을 정립되었던 것일까? 달리 말하자면 만암이 어떤 계기로 선을 수용하였고, 백양사 대중들에게 선을 권유하게 되었는가이다. 그래서 만암선이 백양사 운영의 이념으로까지 실천되었는가는 중요한 측면이다. 만암은 청년시절에는 주로 강학을 이수하고, 40대에는 강원의 강사로 소임을 보았다. 그러나 1916년 이래로 10년간 가람불사에 나서면서는 자급자족, 원용적인 사찰 공동체를 구현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만암이 禪으로 경도됨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필자는 그를 만암과 인연이 적지 않았던 선승인 백학명에게서 찾고자 한다. 백학명은 백양사의 말사인 불갑사 출신으로 내장사에서 반농반선의 선농일치를 실천하던 선사이었다.<sup>127)</sup> 즉 백학명은 백양사 공동체 내의 고승, 선지식, 선사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만암은 자연적으로 백학명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그 정황을 전하는 기록이 있다.

(백학명)禪師가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參禪을 勸하되 그 亦見機而勸이라 한다. 禪師와 莫若間으로 親한 이는 金萬應 宋宗憲 諸師인데 宋禪師가 七年을 두고 白羊寺를 成造할 때는 白禪師가 三四年 間을 同居修禪하였소되 一次도 禪을 勸한 일이 업다가 成造가 끝난 뒤에 京城으로 오르나리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지간히 해두고 自家事나 닥가 보지 아니 하라느냐고 하며 간절하게 禪學을 勸하였으며<sup>128)</sup>

즉 백학명은 만암이 백양사 주지가 되어 백양사 가람불사를 단행하던 1916년 직후의 3~4년 간을 만암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즉 백양사에 만암과 함께 머물면서 同居修禪하였다는 것이다.<sup>129)</sup> 그러나 만암이 주관한 1차 불사가 완료되고, 만암이 중앙에 불교사업 관련으로 왕래가

127) 백학명의 선농불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들이 참고된다.

김광식,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불교평론』 25, 2005.

<백학명의 선농불교> 『학명집』 성문문화재연구원, 2006.

김순석, <백학명의 선농일치와 근대불교 개혁론> 『한국선학』 23, 2009.

김호성, <근대 한국의 선농불교에 대한 재조명 - 학명과 용성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55, 2010.

<학명의 선농불교에 보이는 결사적 성격> 『한국선학』 27, 2010.

128) 김소하, <南遊求道禮贊(續)> 『불교』 64호(1929.10), 50면.

129) 학명은 그 무렵에 백양사의 운문선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유금해의 글, <내장사고백학명선사 영골 급 사리통첩> 『불교』 62호(1929.8), 50면에는 학명이 내소사 주지, 월명암 주지를 거쳐서 白羊禪院으로 移錫하였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백양선원이 백양사 내의 고불선원인지, 운문암의 운문선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찾아지자,<sup>130)</sup> 학명은 만암에게 간절하게 선학을 권하였다는 것이다. 만암은 백학명에 대해서는 같은 본산에서 수행을 하였기에 학명의 선사상, 선농일치에 대해서는 익히 파악을 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가람불사를 지근거리에서 외호하던 당사자의 사상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만암은 가람불사의 1단계가 회향되자 학명이 자신에게 간곡하게 권한 참선에 대해서 깊이, 진정성으로 수용하였을 것이다. 그런 수용의 결과가 위에서 살펴본 1920년대 백양사의 가풍, 승풍, 만암의 선농일치로 나타났던 것으로 필자는 보고자 한다. 학명이 반농반선을 내장사에서 구현하였다면, 만암은 백양사에서 반농반선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이로써 필자는 1920년대 백양사의 가풍, 승풍, 혁신을 반농반선으로 나타난 선농일치 사상으로 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백학명의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선농일치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부터는 백양사 본사 차원, 백양사 공동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sup>131)</sup>

그런데 백학명은 1929년 5월 6일에 입적하였다.<sup>132)</sup> 만암은 학명이 입적하자 영결식의 중간路祭에서 애도문을 낭독하였고,<sup>133)</sup> 1929년 11월 18일 백양사에서 거행된 추도식에서<sup>134)</sup> 추도시를 낭독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만암의 학명에 대한 소회는 남다른 것이었다. 이는 곧 만암이 학명에게서 영향받은 것이 적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명이 구현하였던 선농일치 혁신 및 사업까지도 이제는 만암이 떠 안고 실천해야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만암이 학명의 선농일치 사상까지 포함하여 해방되던 그날까지 백양사에서는 선농일치 시상이 구현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 3) 고불총림에서의 선농일치

만암은 1947년 백양사를 근거로 하면서도 전라도 일대의 사찰에서 고불총림을 운영하였다. 이는 만암이 의도한 자생적인 불교정화이었다. 만암이 단행한 고불총림은 그가 일제하의 불교, 백양사에서 시행하였던 수행, 선농일치 사상이 계승된 것이었다. 때문에 고불총림의 청구에는 선농일치적인 내용이 전한다. 그 단적인 예증은 대중(법중)의 자격, 대중의 일상 생활의 원칙을 정한 근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대중의 자격에 대해서

法衆의 자격은 종지를 崇奉하며 청규를 嚴守함에 僧尼 道俗을 물론하고 均一 정도와 部衆을 隨하여 戒定慧 삼학을 수련하며 濟世儀範을 作함에 遜色이 無케 함<sup>135)</sup>

130) 그 시점은 1919~1920년으로 보인다. 만암은 1919년에 30본사연합사무소 常置員으로 활동하였다. 상치원은 이사 격으로 본사 연합사무소 운영위원의 성격의 소임이다. 「조선불교총보」 14호 54면, 〈상치원 급 감사원의 개선〉.

131) 추후에는 만암과 학명의 선농불교, 선농일치 사상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132) 「불교」 61호(1929.7) 「宗報」, 〈학명선사의 사리〉.

133) 유금해, 〈내장사고백학명선사 영골 급 사리통첩〉 「불교」 62호(1929.8), 52면.

134) 이 추도식은 백학명과 환응 대선사를 함께 기리는 행사이었다. 「불교」 67호(1930.1), 「宗報」의 〈故幻應鶴鳴兩大禪伯 追悼式 奉行〉 참조.

135) 「만암문집」 186~190면

라 하여, 청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그 실천에 있어서는 승니 도속을 물론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청규는 사찰, 고불총림 운영의 철칙이라 하겠다. 이 청규 내용에 선농일치 나오는 것이다.

법중의 日用은 均一함을 期圖하는 바 직원 일동과 定慧 兩衆이 左와 如히 實行함  
 시간별 오전 4~7시 오전 9~ 12시 오후 2~3시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7~10시

法衆別

職員級	禮敬修禪	執務	執務	讀經	勞動	禮敬 講演
定學部	상동	修禪	修禪	상동	상동	상동
慧學部	상동	看經	看經	상동	상동	상동 <sup>136)</sup>

위의 내용은 만암이 일제하의 백양사에서 행하였다는 "晝經夜禪 혹은 晝耕夜禪"으로 표현한 청규와 거의 같다. 여기에서 직원은 종무소 직원을, 정학부는 선방 대중을, 혜학부는 강원 대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고불총림 청규에 의하면 해방공간 당시 백양사 대중은 선농일치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 청규에는 수행(참선, 간경 등)의 여가에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었다. 단순히 노동함에 머무르지 않고, 자급자족 및 사찰 수호의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고 하겠다.

淨財貯蓄은 僧侶의 正命生活이오니 淸淨乞食에 在하며 松落草衣와 菜根木果가 糊口  
 遮身の 資가 아님은 아니나 如今에 風俗習慣이 도저히 此로 劃一의 制를 作키 難한지라  
 가급적 修養의 餘에 勞動의 所得으로 自力生活하며 隨分貯蓄하여 世財 法財가 兩足함을  
 期圖하는 義務가 有함

常主物의 管理는 此가 正法流通에 特殊한 資料가 됨으로 特別한 注意를 加하여 用途에  
 省略을 주로 하고 任司에 公直함을 택하여 徹底的 監督의 責任을 盡力하여 遺漏의 過失을  
 防止하고 所謂 上司로서는 直接 取扱을 避함<sup>137)</sup>

위의 청규에 나오는 근간은 수행과 노동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노동의 소득으로 자력생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선농일치에 의한 생산물(상주물)을 저축하고, 공적인 분야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요컨대 해방공간에서도 선농일치는 백양사, 고불총림의 근간이었던 것이다. 만암의 이 같은 해방공간에서의 선농일치 사상은 불교정화운동기 및 입적 직전까지의 기간에도 지속되었다. 그 편린을 살필 수 있는 문건으로 1953년 가을, 조계종단의 중정으로 종단 간부들에게 제시한 문건, <새로운 면목>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136) 위와 같음.  
 137) 위와 같음.

옛날 우리 教壇 생활은 안으로는 常主財産의 集聚한 遺澤과 밖으로는 檀信 諸家の 臨時援助로 精神上的의 不斷의 노력이 있었으나 육체적 노력은 혹 부족하다는 비난도 있었다. 今後로는 이 自耕農으로 因하여 半農半禪의 生活과 晝耕夜讀의 古風을 遵守하여 自給自足の 美風을 발휘하고 또 옛 禪師의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의 家風을 實踐하게 되는지라, 이도 우리 教壇의 근로생활을 勸發하는 趣旨에 새로운 面目이라 이르겠다.<sup>138)</sup>

즉 만암은 교단 구성원인 승려들에게 半農半禪의 生活과 晝耕夜讀의 美풍을 준수하여 自給自足の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하였던 옛 선사들의 가풍을 실천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즉 만암은 승려의 근로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었다.

만암은 이런 기조를 불교정화운동으로 인하여 종단이 내우외환에 처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밝힌 소회에서도 개진하였다.

#### 示衆(목포 교당에서)

今番에 比丘衆의 突起가 偶然한 事가 아님을 徹底히 覺悟하고, 그에 對한 方策을 講究함에 있어 本人의 意見으로는 寺刹의 淨化는 勿論이거니와 우리 僧侶가 自肅의 精神으로 半農半禪主義를 實踐하여, 世論에 寄生蟲의 非難을 退治하는 同時에 吾教 新生의 路線을 定함에 在하다.<sup>139)</sup>

즉 정화로 인해 일어난 종단의 운영의 타개책으로 半農半禪의 실천을 수용할 것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만암의 이런 진지한 제언은 수용될 여건이 없었다. 그래서 만암은 고뇌하였다. 만암은 반농반선의 실천을 통한 내적인 정화, 종단 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自懷

餘年이 八十이라 무슨 計劃이 有할 것인가. 다만 空門에 入하여 外邊事에 馳走타가 晩年에서 宿志를 達成하여 하나, 神昏心迷暗에 純一之工을 難期하니 可謂 世事纔知白髮新이라 詩句가 記得되는데 다 然中 雪上에 加霜格으로 宗團의 分爭이 起하여 收拾키 難境에 處하여 爲先 各己 自肅自責하는 情神으로 宗團의 半農半禪主義를 喚起하여, 此를 實踐的 實行함을 獎勵함에는 各己 自己邊이나 公衆을 每日 日課를 定하여 銘心不忘의 課程을 作 하는 것이 곧 半農半禪의 目的을 達成함으로 自定하는 바로다.<sup>140)</sup>

만암은 이렇듯 반농반선의 실행을 호소하였다. 종단 구성원들은 자숙자책하는 정신으로 半農半禪主義를 환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불교와 종단을 구하는 것임을 힘주어 개진하였다. 일과를 정하여 실천하고, 명심불망의 각오로 나아가야만 半農半禪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138) 위의 책, 218면.

139) 1967년의 「만암문집」 115면. 만암은 이 글에 덧붙여 발표한 僧規에서 만암은 "韓國佛敎는 원래 大乘의 見地에 基因하여 자기 의 修養에만 限함이 아닌지라, 半農半禪主義(修養 努力)을 一般的으로 普及케 하여 民族의 示範이 作할 事"라고 제시했다. 필자는 이 자료를 「만암문집」(불기 2541년)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당한 곳에서 문장을 수정하여 만암 글의 본래의 원형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140) 위의 책, 116면.

호소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1950년대 불교의 상황은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을 받아들일 여건 자체가 부재하였다. 아니, 받아들인 정신적인 체질이 없었다. 그래서 불교정화, 종단 안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한국불교에는 선농일치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만암사상의 토착화는 불가하였다.

### 3. 만암의 선농일치에 나타난 성격

만암의 선농일치에 나타난 성격을 전술한 바 있는 여러 내용을 유의하여 제시하겠다. 그러나 이런 제시는 가설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추후 다각적인 측면에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만암의 생애, 만암의 불교사상 등을 조망한 연후에 선농일치 사상도 천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만암의 선농일치는 만암이 백양사 중창, 가람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다, 요컨대 사찰재건 불사를 추진하면서 배태된 것이다. 그래서 만암의 선농일치는 여타 선사들의 경우와는 차별성이 적지 않다. 여타 선사, 여타 선농일치는 선원 개신책, 선원에서의 제한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만암의 선농일치는 본사 사찰이라는 백양사에서 구현되었으며 원용적인 체도로까지 승화되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기에 사찰 운영, 가람불사의 이념이 되었다. 즉 자급자족의 이념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둘째, 만암의 선농일치는 수행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즉 만암의 선농일치는 참선과 농사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행하는, 수행을 하면서 농사를 부수적으로 하는 운력 차원에서만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백양사에 거주하는 모든 승려들은 경학을 하든, 참선을 하든, 종무소 직원들이 소임을 보든간에 모든 대중은 수행을 하면서 농사(근로)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이행케 하였다. 때문에 만암의 선농일치는 수행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농사를 짓는 것에 마땅히 참여하면서도 모든 대중은 참선수행도 철저하게 했다. 여기에서 선농일치가 수행 차원에서 고착화되었다.

셋째, 만암의 선농일치는 대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만암의 선농일치는 만암 자신의 일 개인의 사상, 제창,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다. 백양사라는 본사 사찰 구성원과 백양사 말사 승려들에도 파급된 이념이었다. 말사주지들도 의무적으로 참선에 동참해야 했고, 백양사를 찾는 객승들도 자연스럽게 백양사의 청규로 나타난 선농일치에 동참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던 것이다.

넷째, 만암의 선농일치는 백양사의 전통으로 토착화되었다. 이는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이 1910~1950년 백양사를 움직여 나가는 준칙, 청규, 관행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런 성격은 1970~1990년대 백양사 대중, 문도들이 공인하는 백양사 역사와 문화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만암의 선농일치는 불교정화의 성격도 갖는다. 만암은 1954년 본격적인 불교정화운동이 발발하기 이전, 백양사 및 전라도 지역의 사찰에서 자생적인 불교정화로서의 고불총림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고불총림의 내용에도 선농일치가 들어가 있었고, 불교정화운동으로 종단이 파



탄, 피폐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에도 반농반선주의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즉 불교정화의 일환, 대안의 성격도 나온다.

여섯째, 만암의 선농일치에는 백학명의 선농일치 사상의 영향, 교섭이 있었다. 백학명은 만암 문중(연담)과 연고가 깊은 白坡계열의 선승으로서 내장사를 근거로 선농불교를 실천하였다. 학명이 월명선원의 조실로 추대된 것도 만암의 권유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정황을 볼 때에 만암과 학명은 친근한 사이였다.<sup>141)</sup> 때문에 만암의 선농일치는 백양사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백양사 본말사 차원, 전라도 차원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만암의 선농일치에 나타난 성격을 살펴 보았다, 추후에 다각적인 관점, 만암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치밀한 탐구가 요청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시론적인 입장에서 필자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 4. 결 어

본 고찰의 맺는말은 지금까지 서술한 제반 내용의 핵심을 고려하면서도 추후 만암연구,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 연구에 참고할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하고자 한다. 이런 점을 나열함은 본 고찰에서 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개진함으로써 필자의 후속연구의 충실화, 후학들의 연구 동참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

첫째,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문헌, 증언 등) 수집을 해야 한다. 필자가 활용한 자료는 일제시대의 만암 자료, 해방 이후 만암문도와 백양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만암의 불교사상, 선농일치 사상에 대한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노정된다. 즉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재탐구가 요청된다. 특히 문도<sup>142)</sup>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다른 문도들의 증언을 폭 넓게 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이 계승이 되지 않은 연유를 찾아내야 한다. 특히 백양사, 만암문도들이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계승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떤 연유로 만암의 선농일치가 백양사라는 공간에서 실천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요청된다.

셋째, 만암의 역사,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이 종단사, 근현대 불교사 등에서 그간 소홀, 배척받은 연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만암의 고투, 선농일치가 조계종단사에 왜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연구자들은 만암의 선농일치를 주목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만암의 선농일치를 여타 선사들의 실례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즉 백학명과 백용성의 선농불교와의 비교는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 선불교와의 비교도 흥미

141) 선운사, 「석전 정호스님 행장과 자료집」2009, 226면.

142) 김지견, 〈잇을 수 없는 스님, 송만암스님〉 《대한불교》 1979, 2, 4.

로운 작업이다.

다섯째,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은 21세기 현대의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청된다. 백양사와 만암문도들은 만암의 행적에 나타나고 있는 선농일치를 단순히 역사로만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를 지금 불교의 모순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여섯째, 만암의 선농일치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 종교학, 역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해설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만암이 갖고 있는 다양성, 실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에 있어서 후속 연구의 내용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런 점이 만암연구 및 근현대 불교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논 평]

## 김광식 교수의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을 읽고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한국불교에서 禪門생활의 한 특징은 參禪과 運力입니다. 좌선위주의 참선은 자칫하면 신체적 불균형으로 오히려 참선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선불교전통에서는 좌선만이 아닌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도 참선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와서 사원경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찰경제가 어려워서 사찰의 전답(田畓)이나 산림(山林)을 관리운영하고 소출(所出)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농사짓는 것도 참선이라고 그 의미를 확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입장은 다 타당하다는 근거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참선이란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이 다 참선 아님이 없다는 입장이 더 강하게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선문에서는 백장청규라고 해서 선원의 일상생활에서 참선과 노동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방불교의 전통에서는 비구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율장에 위배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특히 흙을 판다든지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는 것은 자칫하면 살아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라도 혹시 해치는 살생행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남방 상좌부의 비구들은 지금도 이런 율장의 계목(戒目)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율장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비슈(Bhikṣu)들은 율장의 운용에 신축성을 두었습니다. 인도불교의 이런 율장에 대한 근본주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소의 변화를 겪었다고 봅니다.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와 율장은 많은 변용을 겪은 것은 이미 불교사적으로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남방불교의 전통은 율맥이며, 북방 특히 동아시아의 선불교전통은 법맥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면서 김광식 교수의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말씀드립니다.

김광식 교수님께서서는 이 논문을 통하여 만암 선사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대강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특히 '선농일치'에 주안점을 두고 이 소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논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만암 선사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과 백양사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입장에 의하기도 하지만, 만암 선사는 '선농일치'라는 것은 참선공부의 한 방편으로서 중국이나 한국의 선

원에서 청구로서 당연히 실천해야할 당위적 입장이었음을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수는 만암 선사께서 몸소 실천하셨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자료섭렵에 의한 만암 선사의 선농일치사상에 대한 논리적 전개는 김 교수님의 전적인 학술적 천착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당대의 불교적 환경은 교단공동체의 운영의 주체나 사원경제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서 만암 선사는 이런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하는 추리도 가능하겠지만, 김 교수는 승려(선승)는 참선하면서 농사도 짓는 다는 어떤 사원(선원)청구로서의 의무 같은 데에 초점을 두면서 만암 선사의 선농일치사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 논평자도 동감입니다. 여기서 ‘선농’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農’을 단순히 농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선원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지으라고 한다면 선원은 텅 비어 버리지 않을까요. 따라서 만암 선사의 ‘선농일치사상’은 참선과 노동 내지는 운력 등 더 나아가서는 운동(스포츠)을 포함한 행주좌와어묵동정 그 자체가 참선이라는 데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원시불교교단이나 남방불교권의 율장에 따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지만, 바로 이런 점 등이 상좌부와 대승불교 더 나아가서는 선종불교(禪宗佛敎)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간화선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사실은, 이런 선농일치사상은 한국의 선불교를 특징짓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교수님은 이 논문의 서두에서 蔓庵 宗憲(1876~1956) 선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교수는 “만암은 일제시대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본사인 백양사를 증창한 주역이었다. 그리고 그는 백양사에서 구학과 신식학문을 결합시킨 廣成義塾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전의 초대 교장을 역임한 불교 교육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나아가서 그는 해방공간에서 古佛叢林이라는 자생적인 수행공동체를 결성, 운영하였다. 고불총림은 백양사와 전라도 일대의 사찰에서 동시에 실천된 불교정화를 지향한 결사체이었다. 또한 만암은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종단적인 차원의 자생적인 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암은 불교정화운동의 회오리가 거세었던 와중에서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고수하는 換父易祖論을 주장하여, 비구승 측과 결별하였다. 이 무렵 만암은 비구승, 대처승이 다 함께 추대한 조계종단의 종정의 직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적이야 말로 만암 선사의 한국불교관 특히 그의 불교정화관과 선종중심의 범맥관을 여실하게 압축해 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론의 주된 내용은 ‘만암의 선농일치 사상’이긴 하지만, 만암 스님하면 ‘환부역조론’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깊숙하게 논의할 주제가 아닌가하여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사가(史家)의 안목에서 간단한 몇 줄 만이라도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교수님은 만암 스님의 '선농일치사상'의 성격으로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선농일치는 불교정화의 성격도 갖는다는 것과 1954년 본격적인 불교정화운동이 자생적인 불교정화로서의 고불총림을 출범시켰다는 점을 파악한 것은 아주 탁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암의 선농일치에는 백학명의 선농일치 사상의 영향, 교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가는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한국불교를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정화의 공과에 대한 논의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화는 필요하였지만, 그 방법론은 급진적인 것 보다는 온건주의 적이어야 했었다는 분들의 견해도 상당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만암 스님의 '환부역조론과 정화온건론의 그 타당성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봐야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님께서서는 만암 큰 스님의 선농일치사상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잘 정리하여 주셨고, 한국의 불교도들이 만암 스님의 선농일치사상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부각시킨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끝으로 만암스님의 정화온건론과 환부역조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몇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주제]

## 근대 불교계와 만암 송종헌의 교육 활동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머 리 말

일제강점기 만암 송종헌(宋宗憲)은 1916년 7월 백양사 주지를 맡으며 명실상부하게 백양사를 대표하는 승려가 되었다. 이후 6번에 걸쳐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며 17년간 백양사의 중흥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동시에 만암 스님은 백양사 승려로서 조선불교계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인물로 활동하였다. 30본산연합사무소 상치원과 종무원 학무부장, 중앙교무원 교학부장을 비롯하여 불교전수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이끌었던 것이다.

다양한 분야와 활동 및 업적이 있겠지만 우선 만암 송종헌의 생애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선승으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원칙을 중시했던 스님이다. 원칙론자 만암 스님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조선 금일의 불교도는 어떠한 방면에 역량을 집주함이 옳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송종헌 중앙불전 교장의 답변은 “불교도는 먼저 자기의 본래면목을 찾은 후에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칙론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sup>143)</sup> 포광 김영수는 포교, 만해 한용운 역시 교육과 포교(역경), 민세 안재홍은 정화운동과 한글화, 민중화로 답하고 있거나 혹은 나름의 철학과 내용을 길게 답하고 있는 반면 만암 스님의 그것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그러면서도 만암 스님은 항상 겸손하고 대중과 함께 수행하는 모범을 보였고, 젊은 승려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게 지도해주는 금도를 지녔던 분이다. 스스로 올곧은 성품으로 수행은 물론 후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스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불교전수학교 및 불교전문학교 교장과 광주 정광중고등학교의 설립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하여 만암 스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체계적 논설을 쓰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많이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만암 스님의 교육에 관한 사상과 철학을 온전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스님의 문집 가운데 교육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 보면 다음이 있다.

143) ‘二大問題’, 『一光』 3(1931. 3), 47쪽.

온갖 設施 중에서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은 교육사업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

(凡百施設中 人生要務 莫先於教育也)<sup>144)</sup>

만암 스님이 어떠한 일보다 교육사업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지니고 평생을 불교계 교육사업에 헌신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설과 언급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몸소 실천하고 후진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을 통해 스님의 교육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백양사 광성의숙의 설치

만암 송종현이 1907년 해인사의 요청으로 강사생활을 시작하여 본사인 백양사로 돌아온 것은 1910년의 일이다. 전통강원에서 강백으로 이름을 떨쳐 사교와 대교의 학인대중이 늘 5~6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1910년 백양사에 돌아온 뒤 환응 스님을 방장으로 모시고 스스로 학감이 되어 백양사 청류암(清流庵)에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설치하였다. 이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전통식 강원교육만으로는 불교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전통강원에 더하여 신식학문을 보충 강화했던 것이다.<sup>145)</sup>

그런데 광성의숙을 백양사 본사가 아닌 산내암자인 청류암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16년 조사된 백양사와 산내 암자의 건물과 토지 현황을 통해 광성의숙이 왜 청류암에 설치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sup>146)</sup>

<표 5> 백양사 및 산내 암자 건물과 토지 현황

사 암	건 물(평수)	소계	경전류	토지(結)
백양사	극락보전(14) 명부전(5) 瞻星閣(23) 妙蓮堂(15) 門舍(1) 雙鷄樓(14)	72평	金剛經板(12)	5,109
清流庵	法殿(41) 관음전(30) 眞影閣(30) 寮舍(36) 문사(5)	142평	화엄경(81) 법화경(7) 원각경(6) 반야경(2) 능엄경(5) 기신론(4)	3,034
雲門庵	법전(48) 翼廊(9) 칠성각(9) 요사(30) 我淨寮(14) 王后閣(2) 문사(5)	117평	화엄경(70) 화엄론(12) 玄談(8) 법화경(7) 원각경(6) 반야경(2) 능엄경(10) 기신론(4) 會玄記(10)	6,078
藥師庵	법전(45) 문사(4)	49평		
白蓮庵	법전(26) 익랑(6) 요사(30)	72평		
靈泉庵	법전(9)	9평		
天真庵	법전(54) 익랑(3) 요사(3)	60평		
地藏庵	법전(40) 요사(18) 문사(3)	61평		
金剛庵	칠성각(1) 요사(12)	13평		
西陽庵	요사(12)	12평		

144) 『東愚齋純朝先生紀功碑』, 「雜著」, 『曼庵文集』, 1997, 291쪽.

145) 『年譜略記』, 『曼庵文集』, 백양사 고불총림, 1997, 334쪽.

146) 朝鮮總督府 中樞院, 『白羊寺寺院土地建物等臺帳』, 1916. 3. 31.

청류암은 본사인 백양사와 비교해서 건물 규모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백양사보다 2배에 가까운 건물규모였던 점에서 광성의숙이 청류암에 설치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청류암에는 경전도 상당량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물론 운문암의 경우 청류암보다 많은 경전들을 소장하고 있지만 건물에서 상대적으로 규모있는 건물이 적다는 점이다.

실제 광성의숙은 본사 백양사에 설치되는 것이 출입의 용이함과 행정적 편의 등에서 보다 효과적이겠지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건물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물의 규모와 경전의 소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류암이 보다 적당한 장소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성의숙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문건은 전해오지 않아 당시의 광성의숙 설립 의도를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시대적 요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던 것 같다.

전통적인 불교 강원교육 방식을 혁신하여 불교경전 뿐 아니라 外典을 겸수하게 하여 세상의 형편을 알도록 하였다. 특히 구한국 시대에 편찬된 국사와 지리 과목을 넣어 나라와 국토에 대한 지식을 확대 심화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도록 한 것을 보면 전통적인 강원교육이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排日명사들을 수시로 출입하게 하여 광성의숙을 일종의 민족정신 함양장이 되도록 한 것은 스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깊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147)</sup>

불교경전의 내전뿐만 아니라 국사와 지리 등 외전을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맡게 했다는 점이다.

당시 광성의숙의 학인은 늘 50명 이상 1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방장에는 환응 선백을 모시고 만암 스님은 학감을 맡아 학무를 총괄하였다. 광성의숙 학도들은 학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렵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의식주 모두가 넉넉하기는커녕 구차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방장이신 노스님이나 학감인 만암스님 당신도 그 음식을 학도들과 똑같이 달게 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별실이 있었지만 큰 방에서 기거를 함께 하며 조금도 불편케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만암 스님의 일상의 행사가 수양하던 때와 같이 조금도 다름없어 주위의 외경을 받았고 백양사 관할에 속한 30여 사암이 의숙사업에 모두 호응하였던 것이다.<sup>148)</sup>

특히 ‘排日명사들을 수시로 출입하게 하여 광성의숙을 일종의 민족정신 함양장’이 되도록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의숙은 일경에 의해 출판이 금지된 국사와 지리, 그밖에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모든 서적을 임의로 배우며 읽을 수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주목되는 것은 1912년 5월 「護國寶鏡」이라는 책자가 백양사 申鉉國 이름의 油印本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이다. 서문은 金智玄·李東錫, 그리고 발문은 金洵皓가 쓴 국한문 혼용의 책자이다.

147) 김상일, 「송만암 대종사」, 「曼庵文集」, 백양사 고불총림, 1997, 402~403쪽.

148) 「年譜略記」, 앞의 책, 백양사 고불총림, 1997, 334쪽.

이는 담양 용화사의 묵담유물관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광성의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149)</sup>

신현국(申鉉國, 1869~1949)은 자는 사현(士賢), 호는 직당(直堂)이다. 아버지는 만균(萬均)이며, 어머니는 함평이씨(咸平李氏)로 설서(高緒)의 딸이다. 1876년(고종 13)에 외종조 이직서(李稷緒)에게 배우기 시작하고, 1881년에 곽정현(郭鼎鉉)에게 수학하였다. 뒤에 박세화(朴世和)를 사사하였다. 1895년 명성왕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키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5년에 스승 박세화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가 적에게 잡혀 투옥되자 동문인 이수영(李守榮)과 함께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분(義憤)의 글을 써서 일본을 크게 꾸짖었다. 결국 그 일로 적에게 구금되어 대구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0년 8월 박세화가 순절한 뒤 여주 대포산(大布山) 아래에서 강학에 전념하며 많은 후진을 배출하였다. 저서로는 《직당집》이 있고, 음성 충룡사(忠龍祠)와 청풍 병산영당(屏山影堂)에 배향되었다.

「護國寶鏡」을 발간한 신현국이 이와 동일인인지 더욱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만일 동일인이라면 배일 명사들을 초빙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했던 만암 스님의 숭고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해지는 것이다. 또한 서문을 쓴 김지현(金智玄)은 1921~1922년 해인사청년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된다.<sup>150)</sup>

한편 광성의숙의 강사 가운데 김종래(金鍾來, 1881~?)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13년 朝鮮禪宗湖南布教所<sup>151)</sup> 開教師로 활동하기 전까지 광성의숙 한문교사로 재직하였다. 김종래는 12세에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범주사에서 張鏡惺을 은사로 출가하여 각지의 석덕과 강백에게 내외전의 교육을 받았다. 農林科·測量科를 졸업하였고 이후 순창군 龜岩寺 강사, 산청군 大源寺 강사, 장성군 백양사 강사 및 백양사 廣成義塾 漢文教師로 교육에 종사하였다.<sup>152)</sup> 특히 1911년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맹약에 반대하여 활동했던 朴漢永·韓龍雲·陳震應·金鍾來·金擎雲 등 임제종 운동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러한 이력의 소유자였던 김종래 스님을 광성의숙 강사였다는 점은 만암 스님이 배일강사를 다수 초청하였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성의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광성의숙의 일단을 해인사 해명학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광성의숙의 설립은 해인사 강사를 마치고 돌아온 만암스님에 의해서 시도된 것으로 해인사 해명학교의 운영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암 스님이 본격적으로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한 때는 해인사에서 강사생활을 마치고 본사인

149) 묵담(默潭, 1896~1981) 스님은 11세인 1906년 4월 14일 백양사 천경 순오선사에 의하여 출가하여 이듬해 1907년 10월 15일에 백양사 청류암에서 임종산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다. 그리고 17세 되는 1912년 3월 20일 해인사 해명학교(海明學校)를 졸업하고 1912년 4월 15일부터 이듬해인 1913년 12월 20일 백양사 운문선원 금해 노화상에게 사미과와 사집과 수료하고 있다. 따라서 해인사 해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뒤 1912년 백양사에서 발간한 「護國寶鏡」을 수중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묵담스님은 해인사 해명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광성의숙에서 배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0) 「陝川聯合大講演會」, 『동아일보』 1921. 5. 23. 「陝川靑年聯合講演」, 『동아일보』 1922. 5. 15.

151) 백양사에서 운영하였던 全州布教所로 추정된다. 1914년 〈포교규칙〉 공포 이전의 포교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이후 김종래는 백양사 전주포교소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2) 田中正剛, 『朝鮮紳士寶鑑』, 조선출판협회, 1912, 242쪽.

백양사에 돌아온 1910년부터였다. 따라서 해인사의 해명학교를 살펴보는 것은 광성의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인사에는 원래 1906년 明立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곧 海明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해명학교가 1908년 11월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153)</sup> 해명학교는 학생 48명으로 학력의 정도에 따라 1학년 甲·乙班과 2학년으로 나누었다. 1학년 학생은 12~17세, 2학년 학생은 17~22세로 구성되었다. 즉 해명학교는 2년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명학교 교사는 해인사 승려로 충원하였는데 4명이 분담하여 교수하였다. 과목은 불교·국어·한문·일어·수신·산술·체조였다. 圖書 및 理科는 과정표에 있어도 이를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과서는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學部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校舎는 해인사 窮玄堂을 사용하였는데, 교사용 책상 이외에 학생들은 책상이나 腰掛없이 꿇어앉아 수업을 받는 실정이었다. 당시 李古鏡 스님은 1910~1912년까지 해명학교 불교강사로 활동하였는데, 목담스님이 1912년 3월 20일 해인사 해명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때 함께 했던 셈이다.

따라서 광성의숙의 운영과 규모도 해인사 해명학교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2년제 정도의 초급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광성의숙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 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 만들어지는 즈음에 폐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중앙교계에서의 활동과 위상

백양사 주지가 되는 1916년 이전부터 김환웅 주지를 대신하여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30본산 주지회의에 참석하였다. 특히 1915년 1월 1일부터 개최된 朝鮮禪敎兩宗 三十大本山住持會議所 제4회 정기총회가 각황교당에서 진행되었을 때도 송종현은 김환웅 백양사 주지를 대리하여 참석하였다.<sup>154)</sup> 총회의 주요한 안건으로 覺皇敎堂 건축경비 처리, 佛敎中央學林 설립, 불교일보 간행 및 교육과 포교 상황 보고 등이었다. 이번 주지총회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1915년 1월 10일 中央學林 설립에 대한 결의였다. 이는 불교계 내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였다. 또한 1914년 8월중 정지된 「海東佛報」를 「佛敎振興會報」로 변경하여 불교진흥회에서 회비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회의 마지막날인 1월 10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회광을 대신하여 30본산주지회의 원장으로 姜大蓮이 선출되었다.

송종현이 1916년 백양사 주지가 된 이후 중앙교계의 30본산연합사무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1918년의 일이다. 즉 1915년 만들어진 30본산연합사무소는 위원장 강대련에서 1917년 통도사 김구하로 바뀌었다. 이듬해 1918년 7명의 상치원 가운데 백양사 송종현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즉 李晦光(해인사), 金南坡(동화사), 金龍谷(범어사), 李雪月(송광사), 姜大蓮(용주사), 羅

153) 靑柳綱太郎, 「朝鮮宗敎史」, 1911, 64쪽.

154) 「朝鮮禪敎兩宗三十大本山住持會議所 第四定期總會會議狀況」, 「佛敎振興會月報」1, 1915. 3, 69~82쪽.

晴湖(봉은사), 宋宗憲(백양사) 등이다.<sup>155)</sup>

실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中央學林의 운영이었다. 따라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간 30본산연합사무소의 7명의 상치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은 중앙교계에서 역할과 활동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거니와 중앙학림 - 불교전수학교로 이어지는 흐름과 더불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선임되는 계기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1921년 1월 11일 30본산주지총회에서 宗務院 임원을 새롭게 선임하였을 때 학무부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즉 총무원 원장은 홍보룡(월정사)이었고, 총무 김구하(통도사), 서무부장 강대련(용주사), 교무부장 김일운(유점사), 학무부장 송중헌(백양사), 재무부장 김상숙(봉은사)이었다.<sup>156)</sup> 중앙교계에서 학술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학무부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23년 3월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만들어질 때 송중헌은 26명의 주지 평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후 1926년 3월 중앙교무원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즉 1926년 3월 23~26일까지 진행된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4회 평의원회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주요한 안건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의 인수와 불교전문학교 건설 등을 결의하였다. 이때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7명의 이사는 李混惺·宋宗憲·姜大蓮·李愚榮·柳護庵·金一雲·金萬應 등이었다. 이후 1932년까지 7년간 중앙교무원 이사직을 연임함으로써 중앙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1929년 1월 5일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 제3일차 회의가 각황사에서 속개되었다. 오전 회의에서 宗憲, 敎務院院則, 敎正法, 法規委員會法, 僧尼法則 등을 제정하고 오후 회의에서는 敎正 선거에 들어가 金幻應(白羊寺) 徐海曇(通度寺) 方寒岩(五台山中臺) 池東宣(楡岾寺) 朴漢永(開運寺) 李龍虛(法住寺) 金敬雲(仙岩寺) 등 7명을 선임하였다. 한편 敎務院 임원으로 서무부장 李混惺, 교학부장 宋宗憲, 재무부장 黃耕雲을 선출하였다.<sup>157)</sup>

즉 교학부장으로 선임된 송중헌은 당시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따라서 송중헌에 대한 불교계의 이미지와 역할은 학술 및 교학 등에 밝은 승려로 인식되고 인정되었던 것이다.

지금 불교를 운전하는 중심세력은 朝鮮佛教中央敎務院에 있다. 교무원은 각지에 있는 31本山으로써 조직된 단체로써(一本山이라 하면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수십 或 수백 사찰을 전부 관리하는 곳 - 예컨대 安邊 釋王寺는 江原의 일부와 咸南의 定平 以南 사원을 총관하며 咸興의 歸住寺는 咸興 以北의 사원 전부와 咸北 전부를 敎化관리하는 곳) 여기에 3개의 부서가 있스니 敎學部엔 佛教專門學校 교장으로 잇섯든 宋宗憲씨가 據하였고 庶務部에 李昏성 財務部에 通度寺의 黃耕雲씨가 모다 그 책임자로 잇스며 따로히 敎化기관인 佛教社에 韓龍雲씨가 있다.<sup>158)</sup>

따라서 총무원 체제의 학무부장과 교무원 체제의 교학부장으로 만암 스님이 선임되어 활동했

155) 『朝鮮總督府官報』 1918. 1. 19.

156) 『每日申報』 1921. 1. 12.

157) 『東亞日報』 1929. 1. 7.

158) 『次代の指導者 總觀』, 『三千里』 4-3(1932. 3), 30쪽.

다는 것은 중앙교계에서 학술적이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무원의 교학부장은 보성고등보통학교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였다. 또한 1928년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교계에서의 이러한 위상은 더욱 확고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불교전수학교 교장 시절

1922년 5월 29일 중앙학림의 휴교 이후 불교계의 불교전문학교 건립 노력은 지속되었다. 1925년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평의원회에서 불교전문학교 설립을 의결하고 난 뒤 중앙학림이 사용하던 부지를 불하받았다. 이후 1926년 12월 교사 신축 공사 입찰을 통하여 옛 북관묘의 중앙학림 터였던 명륜동 1번지에 불교전문학교 교사를 완공한 것이 1927년 10월 21일이었다. 이에 1928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불교전수학교 설립 인가가 나왔던 것이다.<sup>159)</sup> 불교전수학교로 인가를 얻은 지 1개월 후인 4월 30일 개학하게 되었던 것이다.

1922년 중앙학림 휴교 이후 불교계의 교육기관은 보성고보 경영이 가장 큰 사업이었다. 이후 불교계 고등교육기관 설립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실이 불교전수학교의 인가라 할 수 있다.<sup>160)</sup>

불교전수학교가 1928년 4월 30일 개교하였을 때 교장은 만암 송종현이었다. 당시 교수로는 김영수 · 江田俊雄, 강사는 박한영 · 김법린 · 백성옥 · 윤태동 · 백우용 · 이희상, 그리고 서무는 조학유 등이었다. 또한 당시 입학생으로는 강유문 · 김말봉 · 김해운 · 문기석 · 박봉석 · 조명기 · 박영희 · 박윤진 · 한성훈 · 한영석 등 40명이었다.

만암 스님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1928년 4월 30일부터 1931년 4월 22일까지였다. 이 시기는 한국근대불교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빛나는 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우선 만암 스님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이는 우선 중앙교계에서 학무부장과 교학부장을 담당하였던 경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28년 3월 14~17일까지 각항사에서 불교계 모순을 개혁하려는 승려 46명이 ‘조선불교학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원도의 학승들이 불교개혁과 불교발전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최초의 대회였다. 학인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강원도의 재학생과 수료생들이었고 대회를 이끌었던 주체들은 불교개혁의 방향을 불교교육에서 찾았다.<sup>161)</sup>

이러한 학인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회를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1928년 3월 18일 오찬을 만암 송종현(중앙교무원 이사)이 베풀었다.<sup>162)</sup> 여타 중앙교무원의 교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9) 『東大七十年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1, 35~37쪽.

160) 金嘆潭, 『朝鮮佛敎生命의 象徵인 中央佛敎專門學校』, 『一光』 4호(1933. 12), 12~13쪽.

161) 김광식, 『조선불교학인대회록과 불교개혁』, 『불교평론』 18, 2004, 3.

162) 이보다 앞서 3월 16일 오찬은 임천명화(단성사 경영주 박승필의 자당), 3월 17일 오찬은 경인생 이씨(경성 무교동 거주)가 보시하였다.

고 축하연을 베푸는 사실은 백양사 강원을 대표하여 김영식·유영하·이지원 등이 참석한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강원의 학인들에 대한 애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원의 학인들과의 연대의식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학인들의 불교현실에 대한 인식, 불교개혁은 불교교육에 있다는 것이 만암 송종현의 불교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암 스님의 구체적인 불교 인식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 이러한 측면의 이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불교전수학교 시절 가장 탁월한 업적은 불교전문학교로의 승격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교무원과 총독부에 대한 압박이 주요한 측면이 강하였지만, 교장 이하 교직원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1929년 3월 27일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는 제7회 평의원회를 열고 40만원을 증자하며 佛敎專修學校를 專門學校로 승격시킬 것을 결의하였다.<sup>163)</sup> 결국 1930년 1월 8일 전문학교 승격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고, 1930년 4월 7일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 인가되었다. 이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전문교육기관 설립의 꿈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수업연한 3년의 本科 特科 選科 3개과에 학생 정원 150명의 불교전문학교는 1930년 4월 25일 역사적인 개교를 하게 되었다.

만암 스님은 전수학교에서 전문학교로 변화하는 역사적 현장에 가장 중요한 교장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만암 스님의 재직시에 조직된 불전 교우회와 그 활동이 특기할 만하다. 1928년 5월 4일 佛專學友會 창립을 결의하고, 준비위원 5인(박영희, 문기석, 주동훈, 손옥현, 강유문)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1928년 5월 28일 佛專校友會 창립총회를 열고 제반사를 토의한 뒤 역원을 선거하였다.

회 장 : 송종현	
총 무 : 김영수	
종교부장 : 박한영	종교부 간사 : 박영희, 박윤진, 김재원
학예부장 : 윤태동	학예부 간사 : 강유문, 주동훈, 한성훈
변론부장 : 김법린	변론부 간사 : 문기석, 김해운, 권증원
체육부장 : 이희상	체육부 간사 : 박근섭, 박봉석, 박성희, 방규석
회 계 : 조학유, 정재기	

회장은 만암스님이었고, 1931년 교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불전 교우회 역시 재학생들의 주동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교직원의 호응과 참여가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우회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교지(校誌)에 해당하는 잡지 「一光」을 발간한 점이다. 이 역시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국옹변대회와 학술강연회 및 지방순회 강연회는 불교전문학교의 존재와 더불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대외적 활동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하계순강단(夏季巡講團)을 조직하

163) 「동아일보」 1929. 3. 29.



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교 강연 및 계몽활동을 벌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4. 8)을 기하여 전국에 10만매에 달하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이렇듯 만암 스님이 교우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강유문을 비롯한 박영희·박윤진·한성훈 등 불교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이라는 자부심과 자신들의 역할과 의미를 인식하고 새로운 신진세력으로 등장한 二九五八會(1931년 2월 24일 조직)의 빛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31년 4월 22일 만암 스님은 불교전문학교 교장직을 사면하였다.<sup>164)</sup> 그리고 열흘 뒤인 1931년 5월 2일 종래 교직원과 학생으로 조직된 ‘중진 교우회’를 해체하고 직원 및 졸업생으로 ‘교우회’를 조직하고 학생들은 ‘학생회’를 분립하여 조직되었다.

1931년 5월 6일 교무원 이사회에서 김영수 교수를 중앙불교전문학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학생들은 5월 9일 교장문제로 동맹휴학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튿날 임시 교직원회를 개최하고 11일 학교 및 교무원 당국자가 학교에서 회집하여 사태 해결에 노력하여 26일 동맹휴학이 무사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6월 8일 김영수 교장 취임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만암 스님의 교장직 사퇴 이후 벌어진 일련의 학교사태를 통해서도 만암 스님의 역력에 대한 반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1931년 7월 6일 만암 스님은 김해은과 더불어 불전 도서관 고문으로 추천되었다.

#### 4. 보성고보 인계 문제

불교계가 운영하던 보성고보가 고계학원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만암 스님이 보여주었던 활동은 교육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문제는 연구논문이 제출되어 있어 그 종합적인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sup>165)</sup>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고보를 1924년 총무원에서 인수하면서 불교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총무원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흡수되면서 보성고보는 교무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불교계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1935년 고계학원으로 인계하면서 10여 년간 불교계에서 운영한 보성고보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보성고보를 고계학원으로 운영권을 인계한다는 교무원 실무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백양사 만암스님은 격렬한 반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즉 1934년 10월 31일 소집된 본산 주지회의에서 보성고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보성고보 문제로 서울로 급히 올라온 만암 스님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164) ‘모교급본회의 중요일지’, 『北漢烽臺』, 『一光』 4호(1933. 12) 69쪽.

165) 김광식, 『일제하 佛敎界의 普成高普 經營』,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우리 불교측에서 경영할 힘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다른 조호재단에 넘기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물론 당연한 일이고 조흔 일입니다. 그러나 재력이 없지아니하고 또 경영권을 다른 데 넘긴다는 것이 우리의 종의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진대 법률상 문제는 둘째로 첫째 우리 불교계 전체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로 생긴다는 재단 그 자체가 의문 중이라면 도모지 문제도 안되는 일입니다. 설혹 최악한 경우를 가정해서 전 조선본산이 일치못된다고 하더라도 몇군대 본산만 협력하면 재원은 염려없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는 우리 손으로 완성해 가야 할 일입니다.”<sup>166)</sup>

경제적 재력이 튼튼한 재단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현재 불교계가 재력이 충분 한데도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불교계의 수치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인계가 전체적인 불교계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견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몇 군대 재력있는 본산이 협력해서라도 보성고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만암스님은 백양사 등 8본산 중심이라도 보성고보를 계속 경영기로 약속하고, 성명서와 책임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주동한 인물이 백양사 만암스님이었다.

애당초 1923년 이전 총무원 시절 몇 개 본산의 힘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았던 역사적 경험도 있고, 불교전수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향후 불교계의 학교 운영에 대한 총체적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백양사 송중헌 주지를 중심으로 한 8본산의 ‘聲明書’와 ‘責任書’는 보성고보 운영에 대한 의지의 천명이자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몸부림이기도 했다. 즉 ‘성명서’에서 “...普成高等普通學校는 未來際가 다하도록 다른 機關으로 引渡치안키를 同意決心하고 따라서 同校를 繼續經營함에 當하여 全責任을 지고 從前보다 一層 內容을 充實케하기로 滿場一致 可決되었기 此를 聲明함”으로써 영원토록 보성고보를 경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책임서’를 통해 회의에 8개 본산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sup>167)</sup>

실제 경남 3본산(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경북 은해사, 전남 대흥사, 충북 범주사, 전북 백양사, 강원 건봉사 등 8대 본산이 의지를 갖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한다면 문제는 없었다. 이에 1934년 11월, 보성고보 경영을 위해 각 본산은 재단의 20만원 증자를 결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 납부금에 불응한 본사는 봉은사 · 전등사 · 송광사 · 김룡사 · 패엽사 · 영명사 · 월정사 · 동화사 · 위봉사 등 9개 사찰이었고, 가부에 대한 회답이 없는 사찰은 봉선사 · 마곡사 · 보석사 · 보현사 · 석왕사 등 5개 사찰, 교섭 사찰로는 용주사 · 화엄사 · 선암사 · 기림사 · 유점사 · 귀주사 등 6개 사찰이었다. 그리고 납부한 2개의 사찰은 고운사와 성불사에 불과하였다. 이에 만암스님은 교섭위원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증자 교섭에 힘쓰고 있다. 그 가 교섭할 대상 사찰이었던 화엄사는 만암 스님의 설득과 교섭에도 불구

166) ‘어쨌든 이 學校는 우리의 손으로 - 이 앞으로 열성을 다할터라’, 『동아일보』 1934. 11. 2

167) 責任書

右는 普成高等普通學校를 繼續經營하자함에 對하여 今日會合한 14本山은 一致協力하여 此를 經營함은 勿論이어나와 今日 不參한 他16本山까지 絕對協力を 切實히 바라는 바이나 若 此가 最惡한 경우에 至할 時는 吾等 8本山이 右校 經營에 對한 最後 까지 絕對責任에 臨할 것을 이에 約束함

하고 끝내 어떠한 회답도 주지 않았다. 결국 8개 본사 주지들을 비롯한 교섭위원들은 전국 각 본산에 대하여 재단 분담금을 독려하였지만 기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각 본산에서 분담금 수금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결국 1935년 3월 4일 제13회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증자 성적이 좋지 않음으로 하여 1935년 9월 12일 전국 각 사찰에 보성고보 양도 성명서를 발부하고, 9월 13일 고계학원에 정식으로 인계수속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에 9월 16일 백양사 만암 스님은 보성고보 양도에 반대하며 교무원 탈퇴를 성명하고, 성명서를 9월 20일 교무원에 전달하였다. 이에 교무원에서는 즉각 김정해를 백양사로 출장하여 만암 스님을 만나 재단 탈퇴 성명은 합법적 효력이 없고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에 만암 스님은 자신이 1936년 3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성고보의 운영의 핵심은 재단 증자에 있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였다. 더욱이 각 본산은 60만원 재단 전입금 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1935년 2월 15일 현재 교무원의 재단금 60만원 중 1종 미수금은 27만1,770원에 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해인사(9만7천원), 범어사(4만4천원), 통도사(3만6천원)의 뒤를 이어 백양사가 1만4천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지니고 있었다. 경남3본산의 경제력에 비해 열악한 백양사의 처지에서 보면 재단 분담금의 미수상태는 주지 송종헌의 의지와 상관없이 백양사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수금 내역을 살펴보면 1926년 8월 28일 원금 1만3천730원에 대하여 백양사 토지를 저당하고 1926년부터 1930년까지 5개년 연부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금만 매회 980원씩 상환하기로 한 바 1934년까지 9개년간 상환액 이 8천178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이후 1931년까지 6개년을 걸쳐 상환금액이 겨우 831원으로 1회분도 못되는 상환금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sup>168)</sup>

따라서 만암 스님의 보성고보 유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보성고보 운영을 위해 20만원 증자안에 적극적이지 못한 각 본산의 현실은 백양사의 현실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백양사 만암스님의 보성고보 운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재정 문제에 직면하여 궁극적으로 보성고보를 고계학원에 인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168) 『財團法人 朝鮮佛教中央教務院 第13回 定期評議員會會議錄』(1935. 3. 4), 26~32쪽, (『한국근대불교자료전집 66, 민족사』)

## 5. 해방 후 정광학원의 설립

정광학원은 만암 스님이 발기하여 성립된 호남지역 유일의 불교종립학교이다.

정광학원은 불교 종립 재단이다. 만암 송종헌 대종사께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민족교육을 제창하시고, 백양사 내에 광성학숙을 설립하시어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쳐서 민족정신과 민족정기를 일깨우셨다. 해방 후에 만암 큰스님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5대 종찰의 출연과 협조로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광학원을 설립하셨다. 참나를 발견하여 자비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건학이념을 두고 있다.<sup>169)</sup>

2009년 정광중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성명서를 통해 학교 교사들이 갖는 정광학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암 스님에 대한 자부심과 호남지역 5대 사찰의 출연에 대한 의의, 그리고 불교종립학교로서의 이상과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광학교의 역사에서 만암 스님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광학교는 1946년 1월 10일 만암(송종헌)스님 발기로 전라도 5대 본사(백양사, 대흥사, 선암사, 화엄사, 송광사)의 토지 출연(108,876평)으로 법인 및 중학교 설립을 합의하였다. 1946년 1월10일 정광학교 설립을 발기한 셈이다.

그러나 이 보다 앞서 최태종과 신지정 등 당시 젊은 승려들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태종 등이 해방 당시 만암스님에게 백양사 재산을 절반을 들여 사회사업, 즉 교육사업을 하자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신지정 동지와 함께 송만암 스님에게 백양사 재산의 절반을 들여 사회사업(교육사업)을 하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절집에서는 앞문 돌쩌귀를 뒷문에 옮겨 박아도 죄가 된다는 사상이 지배하기에 선뜻 용납될 리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3회에 걸쳐 간청하다가 “네 놈들이 무엇이 잘났다고 천 년을 지켜 오던 선사스님의 피땀어린 재산을 절반이나 털어내라는 것이냐” 라며 주장자를 휘둘렀다.<sup>170)</sup>

이는 만암 스님이 젊은 승려들의 사회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대목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만암 스님의 처지에서 보면 젊은 승려들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태종과 신지정 등은 목포로 나아가 1945년 10월 목포청년회와 목포문화동지회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던 일본인 사원 동본원사(정광사)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사찰에서 한글강습소를 열었으나 인쇄비와 강사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백양사 만암스님에게 도움을

169) '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광중분회·정광고분회, 2009년 2월 27일

170) '생애 회상', 月下文集 刊行委員會, 「月下 崔泰鍾 大宗師 月下文集」, 1999, 437쪽.

요청하였던 것이다.

백양사에 갔던 신지정 동지가 약간의 자금을 가져와서 강습소를 계속 운영하던 중 46년 1월경 송만암 스님으로부터 오라는 기별을 받고 갔더니, 천은사·화엄사·선암사·송광사·대흥사 주지에게 보내는 서신을 주면서, “목포 사원에다 학교를 설립하자는 회의 소집 통지서이니, 주지를 잘 설득하여 2월 회의에 참석토록 하라” 는 것이었다.<sup>171)</sup>

만암 스님의 발기로 인하여 호남지역의 5대 본산과 천은사를 포함한 6개 주요 사찰에 의한 학교 설립 움직임이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에 최태종은 눈 속을 걸어서 각 사찰을 돌며 학교설립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6년 2월 첫 1차 회의에 백양·천은·화엄·선암사 등 4개 사찰이 참석하였다. 송광사·대흥사는 불참하였으나, 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바로 학생 모집에 착수하여 1946년 3월 동본원사에서 역사적 개교를 하였던 것이다. 즉 1946년 3월 1일 목포시 무안동 3번지 정광사에서 정광중학교를 개교하였던 것이다. 이후 대흥사 총무 조희순과 회담을 통해 제3차 회의에 비로소 대흥사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송광사는 이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6년 9월 24일 3년제 중학교 인가(문교부)를 받고 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만암(송종헌) 스님이 추대되었다. 이에 대흥사를 대표하여 허인용을 교무주임으로 결정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목포에서 2년간 학교를 경영하다가 학급 증설로 교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사 신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송광사 측에서 중앙지로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1948년 2월 현 송정리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송광사의 처지에서 보면 목포는 전남의 바닷가 쪽의 변방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1948년 3월 1일 목포에서 전남 광산군 송정읍 선암리 1번지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이는 송광사의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광산군의 유지였던 정순조(鄭純朝)의 수완과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sup>172)</sup>

정광학교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전할 때 신지정은 사찰 관리 때문에 목포에 남고, 최태종·허인용·김재윤·최말진 등이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에 1948년 5월 5일 기공식을 갖고 1949년 4월 26일 재단법인 정광학원으로 인가받았다. 그리고 1949년 5월 5일 상량식을 거쳐 교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다.

설립자 만암스님을 대신하여 몇 명이 교육과 교사 신축 및 각 사찰 연락업무로 바쁜 나날이었다. 더욱이 공사 착공 후 몇 개월 만에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해 각사 연락이 두절되고 각 사찰

171) '생애 회상', 월하문집간행위원회, 「월하 최태종 대종사 月下文集」, 1999, 438쪽.

172) 南中의 여러 사찰에서 정광학교를 이곳으로 옮겼으니 더욱이 공의 탁월한 수완이다. 「東愚鄭純朝先生紀功碑」, 「雜著」, 「曼庵文集」, 291~292쪽.

정순조(鄭純朝, 1888~?)는 경남 동래 출생으로 부산상업학교 제1회 졸업 후 전남 법성포 금융조합 이사, 1921년 남선흥업회사 지배인을 맡았다. 이후 조선주 양조업을 자영하며 부를 축적하였다. 이후 송정읍의원, 송정상공회장, 공업학교 후원회장, 본동수리조합장, 호남선 송정노동조합장, 광주곡자회사 및 조선임업회사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 후 국민회 광산군 지부장, 전남도 주조조합연합회장,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기금조성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 자재 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사 신축공사는 정지상태였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사태에 따라 물가는 몇 배로 양등되는 상황이었어서 애초 1천만원의 예산으로는 태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각 사찰에 분담금이 할당되고 1950년 6월 총 공사비 3천만원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새로운 교사로 목조 단층의 12개 교실을 마무리 천장공사를 빼고 거의 완공단계에서 6.25전쟁을 맞이하였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천정공사를 준비하면서 쌓아 두었던 목재 수십만 재는 방공호 구축 자재로 사용되었고, 장성역에 출하된 벽돌 3만여 장은 인민군의 포대 구축용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학교 교사는 인민군 수용소(훈련장)로 활용되었고, 연이은 사격과 포격으로 교사는 96개소가 파괴되었다. 얼마 뒤 수복은 되었으나 학생들과 교사들이 흩어지고 교사가 파괴된 상태에서 최태종은 건설업자를 교섭하여 외상으로 교사를 수리하고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전쟁 중 ‘학생등교독려반’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지만 학생수는 전쟁전의 1/3수준에 불과하였다.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27일 학제개편으로 중학교 4년제로 인가되었고, 1951년 9월 1일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초대 교장으로 기산(임석진) 스님이 취임하였다. 즉 1951년 전남교원 재단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교장으로 임기산 스님을 모시고 동시에 김보산 스님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전남 광주지역의 본산인 송광사가 본격적으로 학교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는 백양사 만암스님이 자연스럽게 정광학교 사업에서 후배들에게 맡기고 송광사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재편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만암스님은 1952년 조계종 제3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52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일부 수리하고 일부 자재를 구입하여 1953년 7월 9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약 4개월간 목수, 토수 20여 명을 투입하여 1953년 8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빠르게 전후복구를 마치고 학교를 정상화시켰다.

한편 1955년 8월 25일 정광중학교 제3대 교장으로 최태종 선생이 취임하였다. 백양사 만암스님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 바, 그리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만암스님은 입적하였다.

호남지역의 유일한 불교종립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만암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되었고,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현재 안정적인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73)</sup>

173) 정광학교는 1987년 8월 선암리 1번지에서 현재의 소촌리 815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 대지 총 48,037㎡에 어학실, 컴퓨터실, 방송실, 생활관, 체육관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학교 곳곳에는 학교 역사와 함께 사찰 소개 등 다양한 게시물이 있어 불교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 6. 백양사 한글강습회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1945년 11월 26일(월)부터 12월 9일(일)까지 2주간 합숙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에 10분씩 쉬는 일정이었다. 국어강사 김민수는 1945년 9월 11일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사범부를 수강하고 9월 26일 국어강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조선어학회 교양부 이희승 간사의 지시로 백양사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이번 강습회는 송만암 주지스님의 뜻을 받아 감사가 주관하는 듯 보였다.”

당시 백양사 監事는 정문학 스님으로 그 스스로도 고등부 수강생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승려들과 마을 청년들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를 ‘보통부’로, 중등학교 졸업 정도를 ‘고등부’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통부 24명, 고등부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백양사의 경우 고등부 정문학·국덕신·이만홍·조종모 등 4명이었고, 보통부는 한정열·김남중·전복신·이상효·김행심·박해경·강경화·임병옥 등 8명이었다.

백양사 말사들로 영광 불갑사, 순창 구암사, 정읍 내장사, 담양 용흥사 및 부안 개암사, 고창 문수사, 고창 상원사, 고창 소요사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백양사 인근의 마을, 즉 사거리·중평리·약수리·가산리의 청년들로 고등부 4명, 보통부 8명으로 모두 12명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74)</sup> 이는 백양사가 인근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과 역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한글강습회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945. 9)을 위주로 하고 최현배의 「한글의 바른 길」을 보충용으로 활용되었다. 「한글의 바른길」은 1937년 초판이 나온 것으로 해방 뒤인 1945년 정음사에서 다시 간행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다 알다시피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이듬해 1938년 3월 4일에 개정 공포된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어를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고치고, 1939년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이와 동시에 교내외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에 1945년 8월 15일까지 7년간은

174) 김민수 교수의 백양사일기(45.11~12)의 <수강생 명단>

- ▶ 고등부: 12명
 

백양사- 정문학 국덕신 이만홍 조종모	영광 불갑사- 이광운
순창 구암사- 김흥기	정읍 내장사- 조기옥
담양 용흥사- 차정묵	장성 사거리- 김우홍 김락홍
장성 중평리- 김동철	장성 약수리- 임정태
- ▶ 보통부: 24명
 

백양사-한정열 김남중 전복신 이상효 김행심 박해경 강경화 임병옥	
부안 개암사- 허재근 이성기 김형범	영광 불갑사- 강갑선
고창 문수사- 이법림	고창 상원사- 박영구
순창 구암사- 김홍용	고창 소요사- 고성흔
장성 사거리- 김락규 김용구	담양 가산리- 김정채
장성 약수리- 김영진 김기주 김봉수 김정상 송옥선	

학교교육에서 우리 어문교육이 완전히 제거된 암흑기였다.

이보다 앞서 조선어학회에서는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공표하고, 1936년에는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제 말기 7년간이나 말살되었던 국어교육을 급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했던 것은 교육용 한글 교본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첫걸음」으로 우리 글자를 독학하여 거리의 벽보를 읽을 수 있었다는 당시의 증언을 통해 한글강습회가 진행되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제시기 특히 민족말살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한글을 전혀 배우지 못한 처지였던 것이다. 「한글 첫걸음」은 1945년 11월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하여 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한 한글입문교본이다.

따라서 1945년 11월부터 실시된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해방된 조국의 현실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45년 해방이 될 즈음 만암스님이 최태종을 비롯한 청년승려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주장자를 들어 내쫓던 상황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1946년 1월 입장이 바뀐 것을 설명해야 한다. 실상 만암스님의 교육사업에 대한 의도는 이미 해방 직후 백양사에서 실시한 한글강습회를 통해 발현되고 있었다.

실제 목표의 정광사에서 한글강습회가 1946년 가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글강습회가 필요하다는 청년승려들의 요구에 따라 만암스님은 그들을 지원하고 정광사 강습회의 운영비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이후 1946년 11월 백양사 한글강습회를 만암 스님이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백양사 한글강습회를 통해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암 스님은 호남지역 본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적인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광사에서 실시했던 한글강습회와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만암스님의 혜량과 역량에 기댄 사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앞서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만암스님의 혜량과 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더불어 정광학교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오게 했던 또 다른 계기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결 론

만암 스님이 1950년 스스로 쓴 약력의 일부 내용이다.

그러나 평생토록 처리해 온 일은 공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을 따름이요, 털끝만큼도 자신을 위해 영리를 도모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불행한 가운데 한 가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sup>175)</sup>

평생을 털끝만큼도 자신을 위해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한 인간을 존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과 관련한 활동과 교육의 목표가 또한 그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을 위한 삶,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이 또한 아니겠는가?

지난해(1926년-필자) 겨울동안 나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선교양종 대본산 백양사를 巡禮하여 본 일이 있다. 當寺의 淸衆은 住持 宋曼庵 和尚의 道率下에 在하여 和合一致되야 공동심력으로써 一大伽藍 法堂 寮舍 其他를 一新建築하야노코 그 淸規를 직힘에는 朝夕禮佛, 一堂會食뿐만 아니라 비록 小沙彌일지라도 法衣를 입지안코는 朝夕供養에 參與을 不許하며 工課를 함에는 晝參夜參의 禪風과 四敎大敎의 講規를 엄격으로 행함을 보고 나는 심중에 실지소견이 표면소문과 상이함을 느꼈다. 그리고 조선각사가 이와가튼 풍규를 직히는 줄을 알겠다.<sup>176)</sup>

1926년 백양사를 방문한 이능화가 “工課를 함에는 晝參夜參의 禪風과 四敎大敎의 講規를 엄격으로 행함” 을 보고 만암 스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다.

만암 스님의 그것은 내외의 제반 교무를 총괄하면서도 일상의 행사는 수양하던 때와 같이 추후도 다름없이 行持가 견고하여 항상 四圍의 畏敬을 받았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만암 스님의 교육활동 역시 그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생활과 교육적 태도와 활동을 일치시키는 삶이었다는 점이다.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점되는 현실에서 불교의 전통강원 교육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기 위하여 신학문을 수용하고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해 광성의숙을 설립하고 몸소 실천공행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고등교육기관인 불교전수학교 교장을 맡아 불교전문학교로 승격을 이루었던 장본인이었고, 불교전문학교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시기의 교장직을 수행하였고, 더불어 불전 교우회 회장으로 각종 행사와 강연 등을 이끌었던 것이다.

또한 해방 후 호남지역의 여러 사찰과 연합하여 운영하는 정광학교를 설립하여 불교 종립학교의 또 다른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던 것이다. 만암 스님의 거대한 삶에서 교육기관의 운영과 설립은 또 다른 금자탑이었던 셈이다.

175) '자서약력', 『曼庵文集』, 1997, 257쪽.

176) 李能和, 『朝鮮佛敎의 三時代』, 『佛敎』 31(1927. 1), 11쪽.



[논 평]

## 「근대불교계와 만암 송종헌의 교육활동」를 읽고

황인규 (동국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만암 종헌(1876~1956)선사(이하 경어 생략)는 백양사의 중창주로서 백양사가 5대총림 가운데 하나인 고불총림을 이루게 한 고승이자, 위대한 교육자이자 교육행정가였다. 즉, 퇴경당은 만암의 비를 찬술하면서 ‘교장이 되어서는 교육을 발전하게 하였고 이사가 되어서는 재단을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며 공자 같은 위상을 지닌 교육자로 정립한 바 있다.

금번 발제지는 이러한 만암의 교육의 활동과 근대불교계의 동향을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만암의 교육활동을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백양사의 광성의숙(1910~1915)의 설립 및 학감, <불교전수학교(1928.4~1930.4) 교장과 중앙불교전문학교(1930.4~1930.4)의 초대교장><sup>177)</sup>, 중전교우회(1931.5.2~ )회장, 중앙불교전문학교 도서관 고문(1931.7~ ), 정광학원의 설립(1946~,1950.5~ )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초대교장, 백양사 한글강습회(1945.11.26~12. 9) 등이다. 발제지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발제지가 만암의 교육분야에 대한 개척자적인 연구이지만, 근대불교계의 동향 내지 흐름 속에서 근대불교교육의 의의를 좀 더 부각시켜야 할 듯하다. 즉, 근대불교교육사의 흐름이나 근대교육사의 의미, 나아가 근대 불교사의 의의 등을 좀 더 천착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sup>178)</sup>
- 2) 만암의 교육활동을 교육자와 교육행정가 혹은 종단 교육분야 활동 등을 구분 서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즉, 만암의 종단 이사로서의 교육분야 활동은 당시 교육계와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만암의 교육자로서의 활동, 특히 최초의 근대불교학교이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불교전수학교와 중앙불전의 승격 및 운동, 보성고보의 인수문제 등은 불교근대학교 뿐만 아니라 근대교육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주

177) 이에 대해서는 논평자도 다룬 바 있다.(황인규,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개교와 학풍」, 『불교 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7.1.) 그리고 「동대70년사」와 논평자가 작업에 참여한 「동대90년지」, 「동대100년사」를 좀 더 참조하기 바란다.

178) 최근에 만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석사학위논문이 제출된 바 있다.(박애숙, 「만암종헌연구」,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9.)

목해야 할 것이다.

- 3) 특히 만암의 교육자로서의 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각 시기에 따라,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의 교육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 국사와 지리 등 외전을 강조하거나, 근대 불교전문학교의 승격이나 교육내용, 해방후 호남유일의 불교종립학교인 정광학원과 백양사 한글강습회 등은 각 시대와 사회에 부응 또는 선진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앞서 가는 불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만암이 강조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후 계몽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추구한 교육목표와 각급 학교의 교풍·학풍이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교육내용이 추가 보강하여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불교전수학교와 중앙불전의 교장재직시 함께 학교를 이끌어간 포광 김영수 학감 등의 학제와 교수진 및 교직원, 교육과목, 교육내용, 학풍 등에 대한 정리 보강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교교육사의 전개라는 측면과, 타 지역의 불교교육 및 일반 교육기관과 비교 설명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사적 의의, 불교계에서의 위상과 그 의의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4) 최초의 근대불교학교의 동창회는 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되어 그 이름을 廣學會라고 하였다. 광학회는 만해 한용운이 초대 회장이었으며, 고려 정종대 불교공동체 금융기관인 寶 가운데 廣學寶에서 이름 딴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불교학교는 우리의 불교전통과 정신을 되살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암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시 1931년 5월 중전교우회를 해체하고 교우회와 학생회를 분리 독립시켰는데, 그 이유와 의의는 무엇인가? 오늘날 동창회와 학생회를 아우르는 광학회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불교공동체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sup>179)</sup> 특히 근대불교학교와 각급 학교에서 강조하고자 한 만암의 불교 및 교육정신, 불교의 역사문화 전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

179)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여 언급하면, 동국대 교사는 근대불교학교의 역사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교사직업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불교를 기본으로 하여 동양인문학을 흥성시키자' 는 건학이념을 계승하는 것이며, 곧 동국대의 정체성과 불교계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건학이념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5주제]

# 내가 들은 만암스님

암 도 (조계종 원로의원)

## 1. 만암스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근현대 고승으로 명망이 높은 만암큰스님에 대하여 제가 들은 내용을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암스님은 근현대 백양사를 대표하는 고승이면서, 한국불교(조계종단)의 종정(교정)을 역임한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엄혹함과 불교계 내부의 혼미함으로 인하여 그간에는 존재 자체도 부정당했습니다. 만암스님의 진면목은 세월의 잔인함과 교단 내의 광풍에 의해 그간 역사의 이면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의 본 사이었던 백양사에서 스님을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염원으로 표출된 이 학술세미나에 임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암스님은 진정한 수행자이면서, 백양사를 중창한 어른이면서, 불교 교단 내부의 자정과 혁신을 누구 못지않게 걱정하고 그를 실천에 옮긴 선각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자생적인 불교정화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 외부의 힘이 개입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던 불교정화운동, 근본과 종지를 저버린 정화운동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님의 진심, 지성, 고투, 흔적은 교단 외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러한 점을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백양사가 주최하는 이런 귀한 행사장에 와서, 만암스님에 대하여 들은 것을 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 <내가 들은 만암스님>이라는 주제하에 몇가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스님의 역사 및 진면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은 추후 보완되고, 역사적인 자료 및 근거에 의해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불교를 만나고, 조계종 스님으로서 지금까지 그래도 별탈 없이 스님노릇을 하게 된 것은 음으로 양으로 백양사의 가풍, 만암스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만암스님의 상좌이신 서옹스님(석호스님), 월하(최태종)스님을 은사로 모셨고, 만암스님이 설립한 정광중학교의 제5회 졸업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만암스님과 떼레야 떼 수 없는 인연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광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만암스님을 면발치로 뵈 수 있었고, 은사스님 및 백양

사의 노장스님들로부터 수많은 일화, 가르침, 이야기 등을 들었습니다. 진작에 만암스님에 대한 선양 사업, 학술적인 정리 등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노장스님으로부터 들은 만암스님의 이야기를 여시아문(如是我聞)의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런 것이 초석, 자극이 되어 만암스님을 역사의 무대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소박한 바램에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2. 만암스님의 인격, 수행, 가르침

### - 의리를 통해 수행을 하다

만암스님의 은사는 취운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은 땡초와 같은 행실을 갖고 있었답니다. 유년 시절에 출가한 만암스님은 은사가 땡초이어서 늘상 탁발을 해서 은사가 좋아하는 탁배기를 사다 드려야 하였답니다. 만암스님이 백양사 주지를 하실 때에도 본사에는 모실 수가 없어서 약수암에 모셔 놓고 초하루나 보름에 찾아 뵙고 대접을 잘 하였답니다. 즉 만암스님은 비록 당신의 은사가 승풍이 문제가 있고, 홀륭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스님에게로 건당하지 않고, 의리로써 입적하는 그날까지 잘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암스님의 인격, 가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리라 함은 옳은 이치이고, 홀륭한 것을 말함입니다. 예전에는 은사를 바꾸어서 법답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스님은 결코 의리를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 - 눈과 귀가 좋지 않은 이유

만암스님은 눈이 좋지 않고 귀가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거기에는 슬픈 사연, 그리고 의리를 중시하였던 사정이 있었습니니다. 눈이 나쁜 것은 어려운 사찰 사정으로 그때에는 화목이 없어, 늘상 생나무 가지를 쳐서 불을 땀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연기가 나고, 그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눈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악 조건속에서 고생을 하고 수행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가 어두운 것은 스님의 친형도 출가를 해서 불갑사에서 스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출가한 형님은 술과 담배를 하고 그래서 만암스님은 탁발을 나가서 그런 것을 사다 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스님을 막 두드렸기에 귀를 맞아서 귀가 어두웠답니다. 그러니 스님으로서의 참으로 그 형님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매정하게 단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거듭한 스님은 형님의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 가끔씩 찾아와서는 참선을 하자고 권유를 해서 선도, 시정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들은 만암스님의 수행, 가르침에는 의리가 진하게 깔려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리는 사람, 스님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암스님의 덕화, 가르침의 근원에는 의리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흠을 잡지 마라

백양사 스님중에 기룡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의 은사 스님은 동학운동에 참가하여 전주감옥에 3년간이나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룡스님은 열세살의 어린 나이지만 탁발을 해서 은사에게 사식을 넣어주는 등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옥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기룡스님은 성장을 해서 백양사의 재무 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룡스님은 행실이 거칠고 대중화합을 못하고 그래서 대중들은 만암스님에게 왜 그런 스님을 거두냐, 행실이 나쁜 스님을 재무를 맡기냐면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 그러나 만암스님은 절의 회계는 돈 계산이나 하고 수판은 놓을 수 있지만, 재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당신 평생 사찰재건을 위해 불사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데, 기룡이라는 스님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니 공부나 잘하라"고 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러시면서 "사람의 흠을 잡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일화는 스님은 사람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일의 효용성을 높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스님의 아량과 용병술이 간단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민족대표 33인에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

만암스님은 용성스님과 매우 친근하고, 특별한 인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백양사에 있는 8층탑의 안에는 용성스님이 만암스님에게 주신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를 듣고서 저는 은사인 월하스님(최태중, 만암의 상좌)에게 물었더니, 월하스님의 답변은 노스님은 백양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민족대표에 안 들어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월하스님의 말씀의 진위, 진실, 정황은 따져볼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저는 만암스님의 애사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암스님은 백양사를 중창한 어른이셨는데, 당신이 주지 소임을 맡을 때의 백양사는 건물이 불과 두채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백양사를 수십채의 가람으로 발전시킨 그 정신과 고투는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스님들은 위의를 갖추어야

만암스님은 복이 많은 스님으로도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스님은 종정을 역임하셨고, 불교정화를 주장한 어른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따뜻한 인간, 훌륭한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사도 하시고, 불사도 대단하게 하시고, 종정까지 역임하셨으니 복이 많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면 만암스님은 어떤 연고로 이렇듯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몇 달 전, 저는 해인사에 가서 법전 종정스님에게서 만암스님의 일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전 스님은 본래 백양사 출신이고, 만암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법전 스님은 저를 보고 만

암스님의 음식 잡수시는 것이 독특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를 요약하면은 만암스님은 공양을 하시기 전에 칫솔질을 먼저 하시고, 장삼을 꼭 입으시고, 정좌를 하시고는 공양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하실 때에는 주먹 밥을 입에 넣으시고, 한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밥을 씹어서 잡수신답니다. 그렇게 공양하는 것이 신기해서 신도들이 공양을 갖다 드리고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암스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에 복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를 법전스님이 저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암스님은 스님들에게도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고르게 먹어야 하고,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암스님은 공양을 하는 것만 보아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밥의 앞에서부터 먹는 사람이면 자기만을 아는 현실주의자이고, 뒤에서 먹는 사람이면은 도둑놈 심보가 있는 도심이 강한 사람이고, 한쪽에서 먹는 사람이면 편협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즉 스님들은 공양을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경전에도 부처님이 공양을 할 때에는 '착의익반(着衣喫飯)'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만암 스님은 스님들의 걸음 걸이도 임금님처럼 짧 짧게 걸어야 한다, 가급적 무겁게 움직이면서 걸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은 스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함을, 행주좌와에서부터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이런 생활불교가 수행이고,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도도 하고, 행주좌와에서 화두를 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 생활 속에서 가르쳤다

만암스님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스님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은 종단내의 위계질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행종단, 수행불교의 면모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국의 절을 돌아다녀 보면, 몇 절은 나누고 본사도 관청 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만암스님은 생활 규칙을 정해서 스님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스님이 정한 생활 속의 가르침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불을 하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주지마라"입니다. 둘째는 매일 오후 세시에 울력을 하는데, "울력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마라"입니다. 셋째는 매일 참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백양사에 있을 적의 예불 후에는 조석으로 30분씩을 반드시 참선을 하였습니다.

만암스님은 백양사 본사에서든 이렇게 하시고, 말사의 주지들도 백양사로 불러서 참선 수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사 주지들의 일이 불편해지니깐은 만암스님이 보름씩 지역 사찰별로 순시를 하시면서 동시에 참선수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름을 하시다가 1주일로 줄여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지방 사찰도 점검하시고 말사 스님들의 수행도 지도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스님은 무서운 지혜를 활용하시면서 수행가풍을 진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암스님은 일상 생활 속에서 스님들의 수행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 백양사에 와서 중노릇 잘한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유명한 본사급 사찰은 각 본사의 전통, 역사에 걸맞은 별칭이 있습니다. 백양사의 별칭은 "백양사에 와서 중노릇 잘하는 척 하지 마라"입니다. 백양사가 이렇듯 좋은 별명을 받은 것은 만암스님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양사는 예전부터 '산강수약(山强水弱)'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백양사 인근 산은 우뚝우뚝하고, 절 주위로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백양사를 찾은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백양사는 재산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였지요. 즉 경제적으로 나약했습니다. 통도사, 범어사가 수천석을 가을에 걷어들일 때에 백양사는 불과 백여석에 불과하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찰이 경제적으로 미약한 것은 역설적으로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된 말로 스님들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적으니 자연 시비(是非)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날 그믐날 저녁에 모이면은 하루 저녁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입으로 설을 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중공사(大衆公事)를 많이 하였다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좋은 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찾는 전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엄사에 와서 '주먹자랑' 하지 마라, 선암사에 와서 '글 자랑' 하지 마라, 송광사에 와서 '음식 자랑' 하지 마라, 대흥사에 와서 '술 자랑' 하지 마라 등등은 그 사찰의 전통, 문화, 역사를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별칭들입니다. 이에 반해 백양사는 중노릇 잘한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입니다. 백양사에서는 잘못하고는 살 수 없는 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백양사의 특징입니다. 제가 볼 때에 산세가 그리 생겼어요. 이런 것이 사풍(寺風)이 된 것예요. 이렇듯 백양사의 전통은 만암스님의 가르침과도 상호 연결되었음은 분명합니다.

### 3. 만암스님의 교단 애증정신

- 시대의 선각자

만암스님은 스님들의 교육활동에도 선각적인 공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님은 1900년대 백양사 청류암에 광성의숙을 설립하여 신교육을 단행하였고, 1930년대초에는 지금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정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인재교육, 교육불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그 무렵 운문암이라는 선방에는 수좌스님들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방 수좌들이 신식교육을 단행한 것에 반대하는 것을 이겨내고, 스님이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을 한 것은 정치적 판단, 두뇌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즉 불교의 현대화를 단행한 것이지요. 백양사의 사세(寺勢)가 약한데 그렇게 빨리 불교 현대화가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백양사를 다시 일으키는 중창 역할을 하신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

을 선각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생활 자체에서 수행자, 당대의 인재를 길러 내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 - 가람수호에 목숨을 던지다

6.25때에 전국의 많은 절은 전소되거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는 가람이 잘 수호되었는데, 여기에는 만암스님의 헌신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6.25전쟁 기간중, 1.4후퇴가 단행되자 백양사에 퇴각하는 국군 중대장이 와서 백양사가 인민군의 근거지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가람 전체를 불을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만암스님은 가사 장삼을 입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앉고서는, 그런 후에 불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중대장이 불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가 질린 군인은 향적전의 처마에다가 불을 놓고서, 불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그렇게 불이 붙자, 마을입구의 사람들이 와서 그 불을 꺼서, 향적전이 끄실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던 후에는 백양사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한 동네 식구로 여기고 배척하지 않은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때에 백양사는 대웅전, 조사전, 극락전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민군들이 절에 와서 숙박하지 못하게 방문을 다 때고, 벽을 헐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저는 석산노스님에게 들었습니다. 석산스님은 만날 그 소리를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만암스님의 가람수호 정신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대산의 한암스님이 만암스님과 같이 상원사를 목숨으로 구한 것은 널리 알려지고, 백양사 만암스님의 일화는 알려지지 않았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 종단을 구하세요

만암스님은 조계종단의 교정(종정)을 역임하셨다. 교정을 처음으로 하신 시점은 6.25기간이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오대산의 한암스님이었습니다. 한암스님도 대단한 도인으로 교정과 종정을 몇차례나 한 어른이었지요. 그런데 한암스님은 오대산(상원사)에 칩거하시면서 27년간을 산중을 떠나지 않았던 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암스님은 한암스님의 노선과는 달리 종단을 위해서는 종단의 일선에 서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암스님이 교정을 역임할 때, 서울 총무원에서 스님들간의 내분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자 만암스님은 한암스님에게 두차례나 편지를 보내서, 스님이 종단의 책임자이시니 법력으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종단의 일선으로 나와서 종단 문제를 직접 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전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보면 만암스님은 종단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였음이 파악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만암스님은 종정될 자격이 충분하였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종정이 되는 동기로 작용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종단에 대한 관심, 애정,

결단, 자신이 계셨기에 당시 전국의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만암스님을 교정(종정)으로 추대하였다고 봅니다.

1980년대에 종정을 역임하신 성철스님도 가야산 해인사에 칩거하시면서, 서울에 한번도 오시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종단 소임을 보면서 종정인 성철스님께서 부처님 오신날이라도 한번은 내려오셔서 불교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은 적이 있습니다. 한암, 성철스님의 행보가 더욱 좋은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저는 만암스님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불교정화는 이사(理事) 병진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통, 만암스님은 정화를 반대하였다는 근거 없는 말들을 하지만은 만암스님이 불교정화를 해방공간에서는 처음으로 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의 불교정화관은 고불총림의 유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단행한 것이 1947년입니다. 스님은 자체 정화, 이사(이판승, 사판승)가 병진하여 점진적으로 정화하는 노선으로 백양사를 중심으로 정화를 실시하고, 전라도 지역에서 그를 자생적으로 시행하신 어른입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는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교정화가 나던 1955년 9월, 선학원에서 전국비구승대회를 마치고 촬영한 고승대덕 스님들의 사진을 보면 스님이 종정으로서 그 중앙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님은 정화 초창기에는 종정으로서 정화를 찬동하였으나 일부 비구승들이 보조국사를 들고 나와서 종단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여서, 노선을 달리 하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 무렵, 만암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여 효봉스님과 그를 상의하기 위해 통영의 미래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만암스님의 시자이었던 월하스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부연합니다. 월하스님도 두 스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 일부 내용은 매우 귀중한 증언입니다. 두 고승이 밤새도록 하는 대화에서는 선(禪)에 대한 지견은 막상막하와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종단을 쇄신해야 한다는 것에는 서로 동의를 하시면서 밤새도록 대화를 하였답니다.

그때에 만암스님은 효봉스님에게 비구승의 숫자가 500명도 안 되는 현실에서, 능력이 없는 비구승 한 명이 몇개 사찰의 주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서 현실적으로 조계종이라는 큰 종단의 불교 정화의 대안을 물었더니, 효봉스님이 답을 못해드래요. 물론 이런 증언도 객관성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지요. 하여간에 만암스님은 정화는 이사(理事)가 병진하는 점진적인 노선으로 가서, 비구승의 숫자를 늘리고, 비구승의 학식도 높이면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셨다고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효봉스님도 만암스님의 주장에 찬동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불교정화의 점진성, 온건성을 주장한 것은 효봉스님이었다는 것만 널리 알려지고, 만암스님의 주장과 진정성은 소홀하게 대해진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 백양사에서는 비구승만이 주지를 하였다

백양사에서는 비구승을 정법중, 대처승을 호법중으로 부르면서도 비구승을 정통으로, 비구승을 사찰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뚜렷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암스님의 자체 정화를 기하면서도 정통, 전통을 우선시 하였던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백양사 전통을 실제 지켜 보았습니다.

백양사가 뒤늦게 조계종단에 합류할 때에 주지로 내정된 스님은 대처승인 등암스님(신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백양사 대종인 이춘산이라는 스님이 내정된 그 다음날에 낮을 들고 나와서, 주지 내정자의 배를 긁어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선방에 있다가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 스님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니 춘산스님은 "우리 백양사가 어떻게 해서 장가간 놈이 주지를 할 수 있는냐면서 그렇다면 나도 주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력 이의를 제기하자, 등암스님의 주지 취임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동이 있었던 다음날, 등암스님의 대신으로 비구승인 석호(서용, 후에 종정)스님을 주지로 모셨습니다. 이런 것은 만암스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 이것 세가지는 꼭 지켜라

만암스님의 종단에 대한 애증은 단순히 불교만을, 조계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만암스님은 국기(단기), 국조(단군), 국기(태극기) 이 세가지는 중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스님이 애국자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스님의 종단관, 불교정화관 등이 열린 불교, 개방적인 민족불교임을 은연중 말해주는 것입니다.

- 역사의식이 있었던 스님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시에 나타난 이른바 환부역조에 의해서 강경적인 비구승계열과 노선을 달리하셔서 결별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스님은 태고 보우국사가 종단의 종조이기에 정치적으로, 급격하게 지눌스님을 종조로 내세운 강경 비구스님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종단 외곽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암스님께서 그래도 종단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좋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투, 이면에서 저는 스님의 역사의식, 종단의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정신이 간단하지 않음을 봅니다. 만암스님 당시에는 백양사 내에 도의국사를 모시는 영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계종단의 종조로 모시는 도의국사를 스님은 이미 일제시대에 추모, 선양하는 역사의식을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백양사에는 조사전이라고 하여 선대의 조사들을 모시고 있는 전각이 있습니다. 그 조사전에는 도의국사, 보우국사 등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만암스님의 역사의식, 종단의 정체성을 염려하였던 고뇌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4. 만암스님의 중생교화

##### - 상추를 심어라

6.25때에 불교, 스님은 많은 혼란을 겪고 고생을 하였다. 어느 절은 소각되고, 스님들은 절을 떠나고, 사찰 주변의 불자들도 그런 고생을 겪기는 마찬가지이었다. 6.25때에 백양사에는 군인이 쳐들어 오고, 지방 공비도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출몰하였다. 6.25 기간의 어느 해 봄이었는데 만암스님은 손주상좌인 자광이라는 스님에게 백양사 주변의 땅에 상추를 심으라고 말씀하였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자광이라는 스님이 전쟁통에 상추를 심을 필요가 있냐고 말하자, 스님은 "이 놈아, 상추를 심으면 누가 먹든지 다 먹게된다, 심으라면 심어"라고 하였다. 이는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스님은 전쟁통에서도 어려운 중생들을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 - 공짜로는 안된다

만암스님은 백양사 인근에 있는 개천의 독을 절의 입구 사람(洞下民)들을 시켜서 자주, 괜히 트게 하였다. 그럴 때이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울력을 하고, 그 댓가로 노임을 받아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굳이 독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스님은 일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암스님의 옆에 있던 어떤 스님이 "큰스님 그럴 바에야 노임을 그냥 쥐버리지 왜 독만 헐었다, 쌓았다는 반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암스님은 "그렇게 공짜로 주면 안된다. 그리 되면 저 사람들의 심성이 나빠지면, 불법이 계승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잘못 이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중생교화의 방법도 다양하고, 자상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사회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만암스님이 강조하신 것의 하나는 사회 사람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회 사람을 우습게 보기 이전에 스님들 자신이 인간으로서 위의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암스님은 승려도 인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려들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연후에 중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승려가 인간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속인들을 우습게 볼 수 있냐고 하신 것입니다. 즉 스님은 사람이 돼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 속인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 5. 소결 : 만암스님의 정신을 다시 찾아야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만암스님의 행적, 정신, 가르침과 수행에 대한 일부입니다. 앞으로는 백양사 및 만암문도 차원에서 스님의 흔적을 더욱 찾고, 정리해서, 그를 바른 역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이 가신지 50여년이 넘었지만, 스님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의 무대로 올리는 작업이 전무하였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학술세미나가 스님을 재평가 하고, 다시 찾는 대장정의 초석이 되어서 스님의 고투, 정신, 가르침이 조계종단사, 한국불교사에 당당하게 편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역사찾기를 통하여 우리 문도스님들도 만암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더욱 수행을 열심히 해서 각자가 여법한 스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